

히브리 일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 아주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말할 필요도 없이 많은 논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서책에 누가 기록했다는 말이 없으므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견으로는 바울사도가 저자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글의 형태가 바울이 쓴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나의 의견일 뿐이며 별로 의미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말씀 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말을 할 때에 이것은 단지 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지하기를 바라며 혹시 당신들이 “야 그것은 단지 그의 생각이야” 라고 말하고 받아 들이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여 좋은 것만 취하면 될 줄로 압니다. 바울이 저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이 저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디모데 후서 3:16)

이책은 제목이 히브리라고 기록된 것처럼 물론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아직도 유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유대 율법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방신자들에게 와서 활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고 선언함으로 교회를 문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유대교를 믿는 자와 기독교를 믿는 자들로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유대 율법의 전통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사람들과 먹지도 않고 또 어떤 특수한 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성전에 가서 경배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면서도 심지어는 성전가서 실제로 제사도 드리는 일을 했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다시금 유대 종교제도에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추구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라고 기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장차 올 왕국을 맛보고 옛날로 돌아가서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다시금 제사장 앞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드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책은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심을 전제로 하고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항상 취하는 태도는 하나님은 이미 존재 하시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음을 볼수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의 증명을 시도한다는 것은 우스꽝 스런 일입니다.

마치 당신이 존재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이 이상한 위치에 처할때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출생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할때에 당신의 존재를 미국 정부 당국에 증명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한다는 우스꽝스런 일입니다.

내가 여기 있소. 라고 말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의 존재를 증명하려 시도하시지 않았읍니다. 성경은 그의 존재를 증명하려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이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수가 있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당연한 일이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이두가지를 보아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지사로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1:1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다른때에 다른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신것을 인정합니다. 성경, 곧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른 장소에서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기 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전달자들이 었읍니다. 천사라는 말이 그 어원이 전달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달자 들 이라 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기름부은받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제 당신이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오 우리는 그장소에 접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심히 두려워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당신이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순종하

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져 했을때 그들은 제사장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면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 답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세우시고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때에 여러모양으로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을 공부해보면 아주환상적인 방법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것을 볼수있습니다.:오랜기간동안 한쪽으로 누워있는것 그리고 돌려서 다른쪽으로 누워있는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가지방법과 여러다른 때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시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는 많은 때에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잘못이해 되었고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마지막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해 곧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할일들이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발견될수있습니다.

“이모든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금 그의 아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모든 다른 계시보다 훨씬 월등한 것입니다. 오늘밤 우리가 그렇게 바뀌질 것입니다. 첫번 두장은 그의 아들이 천사들보다 월등하므로 천사들을 통한것 보다 아들을 통하여 나타난 계시가 월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장에서는 모세를 통해 말한것 보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더욱 월등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람인 모세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이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일수가 없었고 단지 그땅을 가르키기만 했습니다.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갔으나 그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여호수아 보다 월등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 왔으나 그들에게 참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4 장). 그리고 5 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는 제사장 직분 보다 월등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0 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제사직분을 레위지파의 제사직분과 비교해 볼때에 그리스도의 제사직분이 더좋은 언약이요 더좋은 방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이 더좋은 희생의 제사요 그리스도의 제사직분이 훨씬 월등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모양으로 여러 다른때에 우리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로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올것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런 왕국 말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왕국의 국면에 대해서 일부 계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작은 창문을 열어주셔서 앞으로 올 왕국에 대해서 조금맛을 보여 주 셧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볼수있었고 이땅에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함께 살수있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상업주의로 이땅이 저주 받는 일이 없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가 필요한 것들은 자유로이 취할수있는 세상이 올것입니다.

모든 사람마다 필요한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이 공급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될것입니다.

이세상에는 더 이상 병이 없고 신체 장애가 없을 것이며 앓은 방이가 기쁨으로 될것이며 병어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노래 할것이며 눈먼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런 세대와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의 아들로 하여금 통치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써 이 왕국을 통치하게 될것입니다.

“그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 후영원토록 공평과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이사야 9:7)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영광의 세대를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것을 이어 받을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양자로 택함을 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될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

님께서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어 받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어셨느니라” (1:2)

예수 그리스도는 온세상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1:1”태 초 에 말 씀 이 계 시 니 라 이 말 씀 이 하 나 님 과 함 께 계 셧 으 니 이 말 씀 은 곧 하 나 님 이 시 니 라

1:2 그 가 태 초 에 하 나 님 과 함 께 계 셧 고

1:3 만 물 이 그 로 말 미 암 아 지 은 바 되 었 으 니 지 은 것 이 하 나 도 그 가 없 이 는 된 것 이 없 느 니 라” (요한복음 1:1-3).

골로세서에 보면(골로세 1 장 15 절-17 절)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니
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선언하고 있다.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에 주가 달려있는데 *effulgence* 란 말이 있습니다. 이말이 무슨 뜻인가? 헬라어 원어에 두말이 하나가 된 말인데 *the first being off and the second being shining* 이두말이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위에는 영광스런 광채가 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밝아 사람이 감지 할수가 없습니다. 광채가 너무밝아 볼수없고 사람이 그빛에 접근 할수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부터 발하는 광채 입니다. 천국에는 해나 달같은 빛이 필요가 없으니 어린 양이 빛이 될것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부터 발하는 그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하는 그빛난 광채가 천국을 밝힐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모든 것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쉬카이나 영광이 구약 성경의 회막의 지성소를 밝혔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바깥 마당에서 가로 15 피트 세로 30 피트 크기의 두부분으로 나뉘어져있는 천막속의 첫번째 방인 성소로 들어 가됩니다

그 성소에 들어서면 오른쪽에는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 개의 빵 진설병이 놓여있는 책상이 있고 앞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튼인 베일로 내려져있고, 그커튼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계시록에서 성령을 대표 하는 일곱금촛대가 성 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커튼 뒤에 있는 방인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방에는 불이 없습니다. 언약궤와 그위에 금으로 아로 새긴 그룹천사가 있습니다. 그방은 하 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 그빛난 밝음이 바로 하나님의 광채인데 그광채가 그리스도안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본체의 형상이시라” (1:3)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요한 14:9)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는 아버지를 영판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모신자는 아버지를 모셨고 아들을 거절한 자는 아버지를 거절한 것이라고 말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들을 미워하면 서 아버지를 사랑할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거절하면서 아버지를 영접할수 없습니다. 그들은 나눌수없는 한 묶음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한분을 모시면 다른 분도 모시게 됩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1:3)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은 나에게 큰 흥미를 갖게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내용을 보면 그가 선언하면 그대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창세기 1:3). 히브리 문자 그데로를 보면 ‘*owr haya owr*’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 그가 말씀 하심으로 존재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궁창이 있어 물과물이 나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이 한곳으로 몰이고 마른 땅이 들어나게 하라’하시니 말씀하신 데로 그것이 존재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 되었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셨다. 라고 했습니다.

원자의 구조를 보면 핵속에 양성을 띤 두물체가 있는데 하나는 양자이고 다른 하나는 중성자인 것입니다. 양성을 띤 두물체가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양성을 띤 전자는 서로가 밀치는 전기에 대한 쿨럼의법칙(Coulom’sLaw)에 어긋나는 현상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한손가락의 양성을 띤 물질을 북극에 놓고 같은 양의 양성을 띤물 질을 남극에 놓았다면 이들이 서로 밀침으로 이들을 붙드는데 필요한 힘의 압력이

30,000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먼 거리에서도 서로 밀어내는 힘이 강하여 이들을 붙드는데 필요한 힘의 압력이 30,000 톤의 압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남철을 가지고 두양성을 서로 붙이려고 시도 해보면 큰 힘이 필요할것입니다.

전기적으로 양성을 띤 물질이서로 밀어내는 것을 붙들어 두려면 큰 힘이 필요한것입니다. 그이유는 전기적인 자연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속에 두양성을 띤 물질이 전기적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자핵속의 균형에 타격을 줄때에 핵속의 양성을 띤물질이 자연법칙에 의한 본질의 성격을 나타낼것인데 이균형의 파괴로 인해 양성의 힘이 배출되는 무서운 힘이 원자폭탄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양성의 전자의 기질이 배출될때에 그 위력을 히로쉬마 그리고 나가사키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와같이 양자의 붙드는 힘이 풀어질때에 나타나는 큰힘이 핵속의 두물질을 붙드는데 필요한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파괴될수있는 기전을 가진 물질로써 이흥미스런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큰 Bang 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을 놓으실때에 다른 큰 bang 이 일으날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이 온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궁창이 있으라 하시매 마른 땅이 나타났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놓여라’말하시면 원자속에 양성끼리 서로 붙들고 있는 힘이 핵속에서 풀어질때에 얼마나 무서운 힘이 나타나서 큰뱅을 형성할것인지 가히 짐작 할수 있을것입니다. 양성을 띤 우주의 창조물들이 서로밀칠때에 우주의 끝없는 광대한 공간으로 폭발하는 일이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주가 존재하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상상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주를 말씀으로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하나님께는 창조만큼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가히 짐작할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죄를 정결케하는 일을 하시고” (1:3)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메시아를 임신하겠다는 말을 한 것도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마리아를 아내로 대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또 천사가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찾고 있으니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경고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봉사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게셋마네 동산에서도 천사가 예수께 소종들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천사가 그를 수종들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홀로져야 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홀로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는 일을 그날에 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다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평일 매일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 백성들의 죄와 나라의 죄를 위해 속죄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날에 대제사장이 홀로 그일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 특수한 날에 그가 홀로 약 27 마리나 되는 짐승을 도살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홀로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홀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에 어떤 천사도 주님을 안위하기 위함이나 도움을 준 일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셨읍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라고 했읍니다

그리고 “놓은 곳에 계시는 위엄에 앉으셨느니라” (1:3)
우리는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2 장에 보면 예수께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했읍니다

지금 우리는 일장에서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우위성을 계시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은 미가엘 천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께서는 절대적으로 천사보다 뛰어나신다고 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천사로 있다가 하나님의 위치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했읍니다.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공존했던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시니라” (요한복음 1:1)

몰몬은 예수를 루시퍼의 형제인 하나의 그룹천사라고 말합니다. 루시퍼는 기름부음을 받은 그룹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두형제들을 불러놓고 이세상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계획을 제출했을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계획을 채택히심으로 루시퍼가 화가 나서 형제인 예수간의 경쟁심에서 이땅에 내려와 그의 계획을 모두망치게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는 천사인 루시퍼 보다 훨씬 월등 뛰어난다고 말씀하심을 볼수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는 루시퍼와의 같은 위치의 적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좋은 천사가 아니며 조물주인 하나님이 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루시퍼는 나쁜 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좋은 형제 그리고 루시퍼는 나쁜형제의 관계도 아닙니다.

루시퍼를 하나님또는 예수와의 같은 위치에 적수로 올려놓는 것은 망칙한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많은 때에 하나님과 사탄은 반대인 원수의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질적으로 아주 다른 부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하시며 창조주 이신데 반해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타락한 천사이고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루시퍼는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가 적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다투며 변론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시신을 놓고 다투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과 루시퍼가 크게 다투었습니다. 미가엘은 루시퍼와 다투어 변론할때 감히 훼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꾸짖어 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유다 9).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통해서 멧세지를 전했을때 사탄이 가브리엘 천사를 붙들어 두고 있었는데 그때에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를 놓아주게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10:12-14)

“군장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백성의 당한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라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미가엘과 사탄은 전에도 서로 대적하는 일이 있었고 계시록에 앞으로도 서로 대적하는 일이 있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적수가 아니고 미가엘 천사가 적수인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말하지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1:4 저가 천사보다얼마큼뛰어난은저희보다더욱아름다운이름을기
업으로얻으심이니 1:5 하나님께서어느때에천사중누구에게네가내아

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2:7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미가엘 천사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읍니다.

예수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요한복음 3:16)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1:5)

이에언은 사무엘하 7 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예언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했을때 나단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의 손이 전쟁으로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성전짓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고 말했읍니다’그러나 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사무엘후서 7:13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7:14 나는 그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7:15 내가 네 앞에서 폐한 사울에게서 내은 총을 빼앗은 것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 하리라 7:16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 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은 나단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너무나 그 축복이 크므로 할말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7:18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 관대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7:19 주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 다

7:20 주여호와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 까?

7:21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 다

7:22 여호와와 하나님이여 이르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의 예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과 같이 말을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대해서 할말을 잃었던 것입니다.”
(삼하 7:18-22)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워 할말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보나롤라 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그 경배가 극치에 달할때는 할말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표현 하였다. 하나님 너무나 축복이 큼니다. 다윗은 무엇이라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다시금 그는 몇구절을 말했는데 이 사람은 구약성경의 말씀을 잘 표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할말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1:6 또 말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히 1:6)

이말씀은 구약에서 찾아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말로 성경을 읽기를 원했던 동기에서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히브리말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것을 70 인 역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히브리 구약 원문에서 헬라 말로 번역한 70 인 역에 보면 신명기 32:43 절에서 모든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천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1:7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1:8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흠은 공평한 흠이니이다
(히브리 1:7-8)

여기에 또 흥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불렀고 바울도 예수를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도마도 그를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 시니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간 수치스런 일이 아닙니다.

시편 45:6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흠은 공평한 흠이니이다

45:7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으로 왕에게 부여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1:8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흠은 공평한 흠이니이다

1:9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네게 주어 네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히브리 1:8-9)

7 절로 돌아 가서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말씀은 시편 104:4 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4 절에서 천사들의 봉사활동과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한것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그구절이 나올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10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1:10)

시편 102 편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1:11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닦아내고 같이 닦아 지리니 1:12 의 복처럼 갈아 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닦아내고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 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히 1:11-12)

이말씀은 그의 아들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우주는 점점태화되며 늙어가고 있습니다.

해가 매초마다 1,200,000 톤의 물체가 소모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반짝거리다가 사라지고 말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불이 꺼지게 마련입니다. 하늘도 종이 짝 처럼 모두 없어지고 말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남아 있을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으지겠으나 나의 말을 결코 없어지지 아니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마태 24:35). 물질적인 우주도 사라질 것입니다.

물계의 우주는 모두 사라지고 없어질 것인데 그러므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물계가 모두 없어진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물계의 사람이 되어서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계는 모두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은 시간이 가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 할 것입니다..

1:13 어느 때 에 천 사 중 누구 에 게 내 가 네 원 수 로 네 발 등 상 되 게 하 기 까 지 너 는 내 우 편 에 앉 았 으 라 하 션 느 뇨 1 히 1:13)

그는 어떤 천사들에게 그렇게 말한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10:1 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110:1 (다윗 의 시) 여 호 와 께 서 내 주 에 게 말 씀 하 시 기 를 내 가 네 원 수 로 네 발 등 상 되 게 하 기 까 지 너 는 내 우 편 에 앉 으 라 하 션 도 다.

그러나 천사들에 대해서는

히브리 1:14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 이 아니요

천사들은 첫째 부리는 영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림을 받는 영들임을 볼수있습니다. 이사야에서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하나님 “ 이라고 경배하는 스랍천사들을 보았읍니다. 또 계시록 4 장에 보면 요한이 하늘의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하나님”이 라고 그룹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첫째 봉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광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필요 로하는 어떤 특수한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이사야 6 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와 그주위에서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하나님”이라고 경배하는 스랍천사들을 보았읍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선언하며 경배들일때에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았을때에 자신이 사악한 죄인임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5 “그 때 에 내 가 말 하 되 화 로 다 나 여, 망 하 게 되 었 도 다 나 는 입 술 이 부정 한 사 람 이 요 입 술 이 부정 한 백 성 중 에 거 하 면 서 만 군 의 여 호 와 이 신 왕 을 뵈 었 음 이 로 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랍천사를 보내셔서 제단의 불타는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켰읍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깨끗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리는 영인 천사들이 거기서 “거룩 거룩 거룩”이라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때에 이사야가 그광경을 보고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외쳤을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람을 봉사케하신 사실을 볼수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존재하며 그들의 첫째 임무는 하나님을 봉사하며 그리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들인 후사들을 돌보는 부리는 영들이인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시편 91:11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천사들은 실제로 부리는 영들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수한 천사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하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읍니다.또 “내가 네원수로 네발등상되게 하기 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말하시지도 않으셨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림을 받는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통치하는 자이십니다. 예수님과 천사와의 큰 차이점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임재앞에서 경배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봉사하지만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경배를 받으시며 봉사를 받으시며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2 장

2:1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더욱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들로부터 떠내려 갈가”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로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처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로 통해서 말씀하신 것보다 친 아들로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더욱 우리는 귀를 기우려야 할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이말씀에서 떠내려 가지 않도록 더욱 그말씀에 유의해야 할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위치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것이 바로 히브리 성도들이 처해있는 위험한 일이 었읍니다.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위험한 위치 었읍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에서 떠내려 가지 않도록 그말씀을 더욱 귀담아 듣고 그말씀에 거해야 할것입니다.

2:2 천사들로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2:3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바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계획에 대해서 들은 말씀을 더욱 간절히 믿고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라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17).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요한복음 3:19)

그래서 그장의 마지막 부분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36)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한말도 굳게 서고 그들의 말이 참되고 그대로 보존 되어 와서 그 말씀을 들었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야 말로 두말할것 없이 얼마나 더욱 더 믿고 청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의 진노를 피할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이상 당신은 율법으로 돌아 갈수 없습니다. 율법아래서는 죄와 허물의 대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아래서는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형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되는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귀담아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떤 유대인 신자들과 같이 이말씀에서 흘러 떠나려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진리의 복음을 떠나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어떤 선한 행 실로 의롭게 되어 보고져 하는 일을 다시금 추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영광스런 구원의 멧세지를 선언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증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뉘 주신 것으로 써 저희와 함께 증거 하셨느니라(히 2:4)

이 말씀을 처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이 믿음의 말씀 곧 이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들은 제자들이 확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성령의 나눠주신 것으로써 예수님께서로 부터 이뱃세지를 들은 제자들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증거 하셨고 선언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이것이 참인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도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로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의 뜻에 따른 성령의 은사”라는 말씀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 장 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과 같이 “성령께서 그의 뜻에 따라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눠 주신 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돈으로 살수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은사를 믿음으로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뜻에 따라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생활에서 성령의 은사를 내마음대로 조절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말은 “이제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있으니 지금 내가 실시하겠다라고 말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성령이 내생활속에서 역사하시는 절대 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 이 아니라(히 2:5)

천사들은 앞으로 올세상에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때도 수종드는 일을 하게 될것입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 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 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 하시나이까(히 2:6)

다윗은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야외에서 활동하기를 좋아 한다면 다윗을 좋아 하게 될것입니다. 그는 남자중의 남자 입니다. 밖에서 활동하는 자입니다. 위대한 사냥꾼이며 위대한 스포츠 맨입니다. 다윗은 많은 때에 야영을 하면서 스막(smog) 이나 도시의 강한 밝은 빛이 없는 선명한 밤에 밝게 반짝이는 별들을 보곤했을 것입니다.

그는 누워서 캄캄한 유대땅의 밤하늘에 펼쳐져있는 아주 발게 반짝이는 별들과 천체들 그리고 은하수가 깔려있는 별들의 세계가 휘황 찬란하게 빛나는 광활한 밤하늘을 쳐다보며 “내가 아무존제도 아닌 얼마나 작은 인간 인가”라고 생각 했을 것입니다. 시편 8장에서 그의 읊은 시를 보면

시편 8:3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8:4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 하시나이까 (시편 8:3-4)

하나님 내가 누구관대 나를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산이나 흐르는 시냇가나 사막에서 야영을 할때 캄캄한 밤하늘에 펼쳐진 선명한 무수한 별들과 은하수의 수십억의 천체의 무리들을 볼때에 다윗이 읊은 이시가 나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나도 유사한 경험을 하였는데 내가 하늘을 쳐다보며 무수한 별들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손길을 볼때에 “와 내가 무엇이냐?” 우주의 천체를 비교해 보면 이 지구는 수억의 은하수중의 한구석에 있는 해 주위를 도는 한 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해는 은하수안에 있는 수십억의별들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 라는 존재는 우주 가운데 한 점에 지나지 않는 지구 안에서도 한점에 지나지 않는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는 전세계에서도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알수 없습니다. 특히 사막에 나가 보면 언덕위에 카요티(미국의 작은 늑대 종류) 우는 소리를 들을수 있고 가까운 곳에 방울뱀의 꼬리 흔드는 소리를 들을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막에서 펴논 잠자리에 누워 있으면 머리 위로 밤하늘의 고요함과 사막의 소리만을 들을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수천마일에 걸쳐 아무도 없고 자신만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께서 나를 염두에 두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 하시나이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방문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방문하시는 특권을 내가 가졌는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와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가지면서 그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데 내가 누구관대 나를 마음에 두시고 나를 방문 하시나이까? 내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가 가까이 계심을 인지 함은 어쩔인고”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면

저를 잠간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썩우시며(히 2:7)

그래서 사람은 천사보다 못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그들은 몸의 형태를 취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들이 몸에 의해 제한 되는 것처럼 제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원자로써 만들어 졌는데 우리가 벽을 향해 걸어가면 밀어내는 힘을 경험하게 될것입니다. 당신이 양성을 띤 물질의 밀어내는 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벽으로 한번 달려 가보십시오

지금 이론 적으로는 당신이 벽을 통과할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단단 물질보다 그벽속은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단단한 물질보다 당신의 몸은 더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공간이 없는 단단한 물질로 압축시킨다면 당신은 하나의 먼지가 되어 현미경으로 보아야 볼수 있을 것입니다. 무게는 같을 것입니다.당신의 몸의 원자가 단지 압축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크기는 하나의 먼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신의 몸은 원자가 부풀어서 형성된 것입니다.

가장 작은 물질이 전자 입니다. 2.5 쿼틸리언 (1 쿼틸리언이 100 만의 5 제곱)의 전자를 함께 부쳐 나열해보면 그길이가 1 인치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숫자를 계수한다면 일분에 250 을 밤낮으로 계수한다고 가상할때에 19,000,000 년이 소요됩니다. 전자는 아주 작은 물질입니다

그보다 약간 큰 물질이 양자입니다.

원자의 핵주위를 돌고있는 전자의 거리는 만일 원자의 핵이 농구공 만큼 크게 확대한다고 가상한다면 핵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와 핵의거리가 3,000 마일이나된다고 합니다. 원자의 핵과 그주위를 돌고있는 전자 사이의 거리가 그만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단히 압축된 물질보다 많은 공간이 있긴 하지만 양성을 띤 물질에 대해서 밀어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벽을 통과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다른 물질의 구조로 만들어 졌다면 그벽을 손상치 않고 바로 통과 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분명히 구조가 다른 물질로 형성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모두 문을 닫고 몰여 있을때에 예수께서 갑자기 그들이 있는 방에 나타 나셨던 것입니다.

이제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두세계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공존 할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통과할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물질의 근본이 다른 기질로 만들어 졌을때 만이 가능한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로 만들은 젤트기가 많은 승객을 태우고 멀리 있는 어떤 다른 대륙으로 향해서 우리 가운데로 신속히 지나 갈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 가지만 서로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흥미있는 개념입니다. 내가 이런 개념을 좋아하는 이유는 두세계가 서로 통과 하며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나 실제로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영들로 둘러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영들은 구원 얻은 후사들을 돌보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부리는 영들이 아닌가?

대부분 우리는 그들의 현존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를 통과하고 지나가며 도와주고 힘을 돋우워주고 봉사하고 찾아와서 도우는 손길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존재를 의식하나 우리들은 그들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천국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다른 물질 구조로 형성된 세계 일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오 하나님의 보좌가 저멀리 먼곳에 있을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나 밤에 사막에 나가보면 수많은 별들을 볼수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하기를 그곳에 가려면 수백만년 광년을 지나야 갈수 있는 곳이 겠거니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가 멀리 계시는 하나님께 도달하자면 얼마나 오랜 시일이 걸릴것인가? 라고 생각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주 끝에 계신다면 나의 기도가 빛의 속도로 간다해도 그곳에 도달하려면 120 억 광년이 필요로 할것 입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때는 이미때가 늦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우리는 움직이고 그안에 우리 존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주위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의식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 계시며 우리는 그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그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둘러 쌓여 있습니다. 그는 단지 다른 물질의 구성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과하고 우리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아주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 씩우시고 그의 손으로 지어신 만물에 사람을 놓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모든 움직이는 것들과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2:8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것을보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2:9 오직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간동안 못하게 하심을입은 자 곧 죽음의고난 받으심을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보니 이를 행 하심은 하나님의은혜로말미암아 모든사람을위하여 죽음을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탄에게 차압당한 세상을 되찾기 위하여 사람의 근친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이심으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사람이 되어 자신을 한정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를 볼때에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 보려 하심이라(히 2:9 하)

이제 구속에 대한 모든것을 여러분이 포착하였을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요”(로마서 6:23).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그에게 모두 지우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했다시피 땅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와 영적인 죽음의 정의가 다른것입니다. 땅에서 죽음에 대한 견지는 몸과 의식(영)이 갈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말기에 이르렀을때에 면도한 머리에다 EEG 를 연결해두고 모니터를 주시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얀 작은 선의 진동이 멈추고 평행으로 나타날때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뇌의 활동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24 시간 동안 뇌의 활동이 없을때에 전원의 스위치를 뽑고 그사람은 사망했다고 선언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 24 시간 동안 뇌의 활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뇌가 산소를 갈구하는 어떤 살아있는 증거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산소를 다시 공급하며 말하기를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식이 몸으로 부터 떠났을때는 사람들은 그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때에 당신의 의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 되었을때 당신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이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외친 말씀을 기억 하시지요”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시점에서 우리의 죄가 모두 예수님께 옮겨졌습니다. 주님은 그때에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을 모두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부터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때에 ”그는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은 것은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아야 만 했던 것입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네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과 격리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죽음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있지 않아 이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새집으로 이사갈 것입니다. 그날이 기쁜날이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부터 결코 격리 되지 않으므로 이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신문에 보도하기를” 척스미스”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것입니다. 신문보도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할것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대해서 과거에도 아주 잘못되게 보도 한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나는 죽음에 대한 충분한 상식이 있는 기자가 나의 영혼이 내몸인 천막을 떠났을 때에 “척스미스는 이 낡고 구멍이 많이 뚫린 천막을 떠나 아름다운 새로운 저택으로 이사 갔다” 라고 보도 해주웠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줄 아나니”(고린도후서 5:1)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 보셨습니다. 그뜻은 여러분이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께로 부터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것과 같이

“여호와 의 손이 짧아 구원 치 못 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 하여 듣지 못 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이사야 59:1-2)

이것은 죄의 영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던 것입니다.

2:10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예수님의 위치에 대해서 주시해보시라.

만물이 그를 위하고 이말씀은 골로세 일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고 그를 위해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다시금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고 또 그를 위하여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그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으니 그는 창조주 심니다. 그보다 더한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24 장노들이 그룹천사들이 드리는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자라 만물이 주의 기쁨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나이다” 라고 주님께 영광송을 올렸습니다.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것이 있는데 내가

조물주인 예수를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생활이 주님을 위해서 살기까지는 결코 완성된 것도 아니고 만족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당신의 삶은 공허하고 의미없고 갈등으로 만 가득차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순간 당신의 생활은 성취감과 풍성한 생활을 하게 될것입니다.

2:10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 2:10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게 하사” 이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장에 이르면 그의 고통을 통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룬사실을 알게 될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란 말은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난을 경험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가장 절친한 친구를 잃은 사람을 어떻게 단한번도 친구를 잃은적이 없는 사람이 그사람에게 위로를 할수 있겠습니까?

어린 자식을 잃은 사람의 슬픔을 한번도 경험못하고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자가 어떻게 그 슬픔을 이해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경험을 한자만이 그러한 슬픔을 당한자를 이해할수 있고 참으로 동정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경험이 있음으로 그 사정을 잘압니다 라고 그를 진실로 위로하고 도와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사람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장을 오려내는 듯한 슬픈일 인지 경험한자 만이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마치 삼킬수 없는 것과 같은 느낌인데 그고통이 너무심해서삼킬수 없는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그는 경험으로 잘 이해 하시고 우리가 필요하고 어려움을 당할때에 우리를 도와 주실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히 2:10)

다른말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만들어 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귀이란 말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과 사귀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히 2:11)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통과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 보신것을 깨닫게 되었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그의 형제라 부르심은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가 된것임을 말씀하신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하시고 또 다시 불지어 다 나와 밋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히 2:12-13)

그래서 여기서보면 “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 예수께서 우리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계신곳으로 갈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한부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의 형제라고 소개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영광을 그와 함께 나눌수있는 그와 함께하는 후사로써 아버지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라고 한 말이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받으시고 내가 죽을 죽음을 맛보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얻고 죽음을 면하게 하신 예수님의 행하신 이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 받을 이영광스런 특권을 나에게 허락 하신데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것 인가? 이 크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며 사랑을 표시할수 있을까?

어떨때는 나는 거지와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을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고 나는 그에게 드릴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생활 입니다. 내가 연보 케에 돈을 떨어터리는 것보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티비를 끄고 주님과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 다입니다. 당신과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고는 우리는 이러한 것 같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4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나는 혈육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이 몸은 천사보다 조금 낮은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모양으로 혈육에 함께속하심은(히 2:14)

그는 혈육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나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그는 한정된 육신의 몸을 입어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는 피곤이 무엇인지 경험했습니다. 발가락이 돌에 부딪힌 경험도 했습니다. 망치로 손가락을 잘못 쳐서 그 아픔도 경험 했습니다. 그는 육신의 제한과 한정을 경험했습니다. 혈과 육을 가 진 몸의 아픔과 고통도 경험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히 2:14)

예수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를 없이 한다는 없이하는 말이 katargero 인데 이말은 모든것을 끝나게 했다는 뜻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자 곧 마귀를 없이 했다는 뜻입니다. 이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여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한자인 것입니다. 사탄은 더이상 죄로 인해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나의 죄로 인해 결과한 사망 에 관해서는 나에게 더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죽음으로 나 의 모든 불의를 정결케하시고 하나님앞에서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자를 더이상 주관치 못하게 하였었습니다. 사탄이 나에게 사망을 더이상 선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히 2:15)

이것은 인생이 죄의 종이 되어 얽매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히 2:16)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2:17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 이라

2:18 자기 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 시느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이사실은 아주 중요 합니다.

그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육신의 몸의 제한성을 모두 경험 하셨음으로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잘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길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복잡다단한 생활을 잘 아십니다.. 주님은 배고픔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그는 세금을 낼돈이 없는 사람들의 사정도 잘 아십니다. 그는 정부에 의해서 부당하게 징세를 강요당할때의 사정도 잘 아십니다. 그는 우리가 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정을 잘 아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당하는 사정을 모두 아시고 이런 일들을 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는 몸소 이러한 일들을 체험하셨기 때문에우리가 유혹을 당할때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주님은 그것이 어떠한지 경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질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흠에 지나지 않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가슴에다 “S”를 달고 자신을 “신령한 성도”로써 자처 하면서 마치 한번 뛰면 총알보다 더빨리 날아가 고층건물을 뛰어넘을것 처럼자신을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런사람들에게 경고하기를 “스스로 섰다는 자는 넘어질가 조심하라”고했습니다. 내가 설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때에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배 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시편 8:3)

내일 새벽 4 시경에 하늘에 구름이 다 걷힌 후 밖에 나가 서남쪽의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기에 오리온 성좌를 볼수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리온 성좌의 왼쪽을 바라 보면 비틀기즈라는 큰 별을 볼수있습니다. 이별의 직경이 465,000,000 마일인 것입니다. 이별중심에 해를 갖다 놓으면 그별둘레를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 크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별속에서 200,000,000 마일을 더가야 그별의 가장자리에 갈수 있습니다. 이별의 속도는 일초에 19 마일의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 이별이 이러한 속도로 별의 궤도를 달리고 있을까요?

이 465,000,000 마일의 직경을 가진 거대한 천체가 무슨 힘으로 일초에 19 마일이란 빠른속도로 궤도를 달리고 있을까요?

다윗이 말했듯이 19:1 (다윗의 시. 영광으로 한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 비틀기즈 별을 하늘에서 반짝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영원하신 팔에 안기워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틀기즈별을 그의 손가락으로 반짝이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써 나를 붙들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떨어질가 염려할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영원하신 그의 왕국의 후사를 삼으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그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사랑의 풍성함의 깊이를 더욱 완전히 깨닫게 하시고 계속하여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안에서 발견되고 주님만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앞에 험도 없이 나를 나타내시고 보존하시기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것을 주신데 반하여 그의 요구는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윗과 같이 발끝으로 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광대하심을 담념으로 조금 맛을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무한하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가치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관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두에 두시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관대 주님께서 친히 나를 방문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사오며 지금도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살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매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온세계에 높임을 받기를 기원하오며 제가 오늘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걸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아멘

잠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기사를 보니까 과학자들이 관찰 한결과 하나의 은하수가 2,000,000,000 해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 하고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지구상에서 희미하게 만원경으로볼수있는 한 은하수에서 2,000,000,000 해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만원경으로 발견 했다고 합니다.

이에너지의 근원은 미지수라고 천문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이은하수는 AR220 로 알려져있고 지구에서 300,000,000 광년을 여행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은하수는 1966 년에 발견 된것인데 1983 년에 설치된 적외선 천체궤도측정 만원경으로 그 날자가 정해진 것입니다.

이은하수는 드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개 에너지의 99%가 가시적인 빛보다 열의 형태로 방출하기 때문이라고 캘리포니아 기술 연구소에서 비 토마스 소퍼 박사가 말했습니다.

ARP220 의 에너지는 분광에서 그리고 양에서 적외선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에너지의 방출이 여태까지 발견된 은하수 가운데 가장 밝은 빛을 내는 적외선 은하수입니다.

소퍼 박사는 적외선 은하수는 빛보다 열을 더 방출하는 은하수라고 미국천문학회의 년중 회의에서 발표 하였습니다.

다른 은하수는 같은 양의 빛과 열을 방출하므로 이것은 적외선 은하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그러나 흥미있는 사실은 적외선 은하수가 태양보다 2,000,000,000 더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만간에 ARP220 를 방문하여 조사를 하게 될것입니다.

저광대한 우주는 아주흥미 진진한 것으로 가득차 있음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그곳에 탐험을 하러가게 될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 손가락이나 만지작 거리고 거문고나 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주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발견했듯이 더욱 놀랍고 흥분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될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들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사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와 함께 사귀는 일에서 더욱자라며 이번주도 당신에게 크게 유익되는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히브리 3-4

테일 #C2297

척 스미스

우리 모두 히브리 3장을 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히 3:1)

그러므로 란 말은 우리를 다음에 나오는 말과 즉시 연결을 시켜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 3:1)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 책에 관한 전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모두다 인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라” 불렀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기록된 책입니다. 히브리의 종교인 유대 종교에서 자라고 훈련받은 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성전에서 의식을 행하였고 제사장의 경배와 의상에 아주 익숙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드리는 일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고 선언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때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레위지파의 족보를 따라 되는 제사장 보다 우위라는 것을 보여 줄것입니다

그러나 3장에서 현재로서는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사제도를 설립한 모세보다 우위임을 보여줄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집 곧 영적인 집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셨는데 회막을 만들게 하셨고 치수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보다 더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 계 충 성 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3:3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현재 흥미있는 사실은 그집의 표현이 하나님의 백성의 몸인 단체를 지칭하여 사용한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음을 볼수있습니다.

우리는 왕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생 각이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이었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알려져 있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역대하 6:8)

나에게 흥미있는 사실은 아니 더욱 영광스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우주에 어디든지 그가 원하시는 곳에 거하실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주를 채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쁘하십니다. 그가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실때 에 그의 임재를 깨달아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밤 우리가 소리를 높여 주를 경배하며 찬양할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중에 바로 여기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좋아 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현실인가요?

집을 짓는 자가 그집자체보다 크시다고 했습니다. 그집을 지은 자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집보다 크십니다.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3:4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인과 법칙의 원리 입니다. 원인이 없이 결과한 것은 없습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집을 바라보고 그집의 건축 구조가 좋다고 생각될때에 당신은 말하기를 “누가 이집을 지었나요/” “누가 이집을 설계하였나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조금 속여 보려고 말하기를 “아무도 이집을 지은 사람을 없습니다. 그냥 어떤날 보니까 갑자기 나타났어요’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진을 잘하시지요 땅이 진동하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갑자기 땅에서 아름다운 문이며 아름답게 무늬가진 유리창이 있는 집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나타났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라고 말한다면 아마 당신은 말하기를 “당신은 미쳤소”라고 말하며 원인이 없이 결과는 없다고 말할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집짓는 자가 없이는 집이 지어질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이 갑자기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는 말입니다.

집마다 지은자가 있습니다. 그말은 인과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인과 법칙에 대한 논쟁입니다.

여기에 집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집을 하나 장만 했다면 그집을 지은 건축자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교회를 지은 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이반석위에 내가교회를 짓겠노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은 자가 그집 자체보다 더크신 것입니다.

3:4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3:5 또한 모세는 장래의 말 할 것을 증거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 하였고

그래서 모세는 충성된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사환이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심판과 경배와 예식을 선언 하였고 이모든 것은 예수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것과 같이

“이 것 들 은 장 래 일 의 그 림 자 이 나 몸 은 그 리 스 도 의 것 이 니 라”(골로새 2:17)

만일 율법으로 다시돌아가보고 희생 제사제도를 살펴보면 또 의식들을 관촬해보면 이모든 것이 그 배후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가르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도 죄를 위한 예수의 죽음을 뜻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예수를 의미하고 가르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예언 된 말씀을 증명하며 성취하시는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 예수 안에서 모두 성취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충성된 사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말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히 3:6)

여기서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인내할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교와 그 모든 전통을 떠난 유대인들이 다시금 그유대교와 전통으로 빠져들어 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서를 기록한자가 바울이라 생각하는데 히브리서를 쓴자가 누구이든지 그분이 그들에게 경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은 나의 의견이며 바울은 그들이 소망을 견고히 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소망의 기쁨과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있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3:7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3:8 노 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지 말라

3:9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사십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3:10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너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3:11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히 3:7-11)

그래서 바울은 시편 95 편을 3 장과 4 장에서 두번이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세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증거와 율법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종이였습니다. 그러나 안식으로는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므리바의 우물에 왔을때 므리바는 다툰다는 뜻을가졌는데 그들이 광야의 므리바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에게 원망하여 말하기를 “네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인도해왔도다. 마실물이 없어 우리가 죽게되였다. 차라리 애굽에 머물렀더라면 좋을뻔하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말을 40 년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는 더이상 참을수없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더이상 참을수가 없나이다. 그들은 40 년동안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내가 낳은 내자식들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생산 하지도 않았고 이들을 이끌고 나아가기에는 이제 지쳤습니다”라고 말했을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백성들이 목말라하지 않느냐 그들은 마실 물이 필요하다. 네가 가서 반석을 향하여 말을 하라 그리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화가 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는 원망하는 소리를 듣는 데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 말하기를 “항상 원망과 불평만하는 사이비 무리들이

내가 너희들의 마실 물을 위해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다시금 쳐야 하느냐?” 라고 말하고 그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이리 줌오너라 내가 반석을 쳐라 했느냐?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이라 했느냐?” 모세가 대답하기를 “반석에게 말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반석을 쳤느냐?” 모세가 대답하기를 “제가 너무 화가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하시기를 “모세 야 너는 백성들에게 나를 잘 나타 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너를 보고 나의 태도와 나를 알게 될것인데 모세야 너는 나를 잘 나타내지 못하였다. 너는 내가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한것처럼 백성들에게 나타 내었는데 나는 화도 나지 않았고 마음이 상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마실물이 필요 했고 나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노라 나는 그들의 필요 를 잘알고 있었다 라는 뜻의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백성들 앞에서 나를 잘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할것이다.

“오 하나님 진정한 말씀이 아니시지요” “모세야 내가 말한데로야”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 그것이 나의 전생의 소원이 였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않됐어 모세야” “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않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여러번 간청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인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안식으로 인도하지 못했 습니다.

이것은 아주 의미 심장한 뜻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결코 당신이 안식으로 들어 갈수 없다는 사실을 관찰 할수있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율법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당신은 결코 안식에 들어올수 없습니다. 당신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결코 들어 갈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복지로 향하여 들어가는 초창기에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에 왔을때 었습니다. 호렘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지역 까지는 단지 열하루 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 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사십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먼저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그들이 스파이를 약속의 땅에 보내었는데 그중 열명이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결과로 백성들을 불신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들어갈수 없다 우리는 할수 없다 우리는 그땅을 차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하나님을 노하게 하였 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좋아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구나 너희들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들어가면 너의 자녀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가봐 두렵다고 했지 내가 말하노니 역사적으로 가장 긴 장례식이 될것이야 너희 모두가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광야에 머물게 될것이야 그러나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가 두려워 하던 너희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땅을 차지 하게 될것이야”라고 말씀하 셧 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으로 부터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데 대한 대목을 말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너희는 프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맛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말지어다

9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모았도다

10 내가 사십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시편 95:8-11)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히 3:12)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애굽의 속박에서 풀려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죄에서 구속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흑암에서 빛의 왕국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부하고 풍성한 생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크리스찬생활은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듯 광야의 경험뿐입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누려야 할 동행하는 기쁨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 안에서의 풍성한 생활과 승리의 생활인 하나님의 완전한 부에 들어 오도록 계속 시련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듯 우리들도 불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믿고 청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히 3:13-14)

다시금 이본문에서 두번이나 인내할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때에 확신한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3:15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3:16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좇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3:17 또 하나님이 사십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 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었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3:18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시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

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3:19 이 로 보 건 대 저 희 가 믿 지 아 니 하 므 로 능 히 들 어 가 지 못 한 것 이
라(히 3:15-19)

그들의 실패가 믿음의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주시함이 아주 중요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인도하실수 있음을 믿지 않았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적들의 능력을 비교하여 보았읍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할수 없어 우리는 들어 갈수 없다”라고 했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풍성한 생활을
경험하도록 예비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적의 능력을 쳐다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눈을 주님을 쳐다보지 않고 적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 다. 그리하여
무서워 하는 마음으로 가득차서 불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자 보다 더큰 능력을 가지신자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녀 들 아 너 희 는 하 나 님 께 속 하 였 고 또 저 희 를 이 기 었 나 니 이 는 너 희 안
에 계 신 이 가 세 상 에 있 는 이 보 다 크 심 이 라”0(요일 4:4)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며 모세보다 크시며 모세는 단지 집의 사환일
따름인 것입니다. 예수는 아들로써 집을 지은 자시요 또 집을 다스리는 자이십니다. 모세는
그들을 안식에 인도할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안식으로 인도 하실 것입니다.

4 장

4:1 사 랑 하 는 자 들 아 ! 영 을 다 믿 지 말 고 오 직 영 들 이 하 나 님 께 속 하 였
나 시 험 하 라 많 은 거 짓 선 지 자 가 세 상 에 나 왔 음 이 니 라(히 4:1)

오늘밤 당신의 마음을 관찰해 볼때 당신은 안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습니까? 당신 생활과 마음과 심령에 그리스도의 깊은 화평으로 가득차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다툼과 불안과 착잡한 마음으로 가득차 있습니까? 오늘밤 당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검토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고 안식에 들어 갑시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수가 있고 우리가 그 안식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할찌라도 당신은 그안식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 도 안에 있는 그안식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

11:28 수 고 하 고 무 거 운 짐 진 자 들 아 ! 다 내 게 로 오 라 내 가 너 희 를 쉬 게 하
리 라

11:29 나 는 마 음 이 온 유 하 고 겸 손 하 니 나 의 명 에 를 메 고 내 게 배 우 라 그 러
면 너 희 마 음 이 쉬 을 얻 으 리 니

11:30 이 는 내 명 에 는 쉬 고 내 짐 은 가 벼 움 이 라 하 시 니 라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안식을 발견했습니까?

당신은 오늘밤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요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윤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생활과 자신들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미리 아시고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참 하나님의 안식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히 4:2)

하나님께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어야 만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의 마음은 계속 불안과 혼란속에 빠지게 될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의 안식을 당신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활을 완전히 주장하신다고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 하신다고 믿습니까?

만일 당신이 그사실을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 전부를 조절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좌를 떠나 더이상 통치하지 않는것 처럼 생각하고 행동할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행복하고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돌보아 주신다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4:3 이 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 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열쇠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만이 안식에 들어 갈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러나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여 주시기만 하면 아주 쉬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 났으며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선을 이루는지 설명을 해 주셔서 내가 그것을 미리 볼수있다면 아마 내가 보다 쉽게 안식할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식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안식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안식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 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이나 재주에 안식할수도 없고 당신의 노력에도 안식할수 없습니다. 믿음 이외에는 어떤것을 통해서도 당신은 결코 안식할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환경을 어떻게 조절할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저는 단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나 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다만 주님만 믿고 있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계획을 믿사옵니다.” 그렇게 믿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맡기면 완전한 안식을 할수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두면 완전한 화평에 이르게 됩니다.

이사야 26: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4:3 이 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행위에 대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행위를 완성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제자들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라고 예수님께 물었을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요한복음 6:28-29)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끝난일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는 사역에 참가할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접되기 위해서 참가할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에 참가할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그리스도의 끝내신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안에서 당신을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한것과 같이

“3:1-3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2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3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할때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 할무렵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자기의 노력으로 들어가서 취할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땅을 점령 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인들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차서 그들의 마음이 거인에게 집착되어 말하기를 “우리는 할수 없다 “라고 말했고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악된 생활에서 하나님의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앞에 성령 안에서 풍성한 생활과 성령안에서 행하는 것과 성령을 쫓아 사는 것과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결코 그렇게 살수 없어 그것은 내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내가 그러한 좋은 사람이 될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마치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가 어디보 자” 라고 말씀한것같이 심지어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2:12)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 하면서 할수없다고 만 말합니다.

이성경구절이 얼마나 나를 흔들어 놓았는지 이말씀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에게 설교를 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에서 그치고 있는데 말씀의 문장반만 보고 있는데 그말씀의 전체의 뜻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잇따라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히 2:13) 성경구절 전체를 보지않고 반만따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구절 전체를 보면 그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을 배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저하는 뜻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두부분이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능력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결과로 내속에 영광스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칩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저하는 것은 내가 완전한데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갈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속에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니 성령님께 계속 의존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좇아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 나는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도 하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설 수 있도록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그리고 그의 끝난 일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4:4 제 칠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렸으되 하나님은 제 칠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4:5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제 칠일에 는 그의 창조하시는 일이 끝났기 때문에 창조의 모든 일을 쉬셨다고 하셨습니다.

창조의 일이 한번 끝났으면 창조의 일이 다시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칠 일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고 쉬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설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정하시고 쉬셨습니다.

“너는 육일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제 칠일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계 집 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출 23:12)

이제 모세의 율법에 설립된 안식일날 쉬는 것이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안식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안식일날 쉬는것을 어떤 행위의 논제로 만든것 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것을 해야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안식일을 실제로는 어떤 일하는 것으로 변개하고 그들은 그날을 지킬 규칙과 법규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짐도 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짐을 진다”는 것에 대해서 세칙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의치도 짐이 되니 낄수 없다라고 정하니 내가 생각컨데 가짜눈섭도 같은 분류에 들어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랍비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지 못 한것 같습니다.

안식일에는 현금을 쓸수는 없지만 플라스틱으로 된 크레딧 카드는 쓸수있다고 했습니다.

안식일날 사고 팔고하는 것을 금하여 현금을 사용할수 없지만 크레딧카드는 오늘 지불하지 않음으로 괜찮다는 불균형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가 현금내는 것보다 크레딧 카드를 쓰는 편이 더욱 편리하긴 합니다.

크레딧 카드를 쓰는 것은 돈으로 지불한다고 생각되지 않고 단지 프라스틱 카드로 만 생각 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예수그리스도안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안식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제의 인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2:16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2:16-17)

오늘날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들을 판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안식일날 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안식일날 예 배해야 한다는 율법을 교회에 설정하고자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

만일 당신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보려고 애 쓴다면 당신은 율법의 저주에 빠지게 될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 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 이라”(갈라디아 3:10)

안식일에 불을 피워도 안됩니다. 안식일날 차를 운전하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는 것은 당신이 자동차의 엔진을 걸때에 휘발류에 점화하기 때문에 불을 피우지 말라는 규칙에 위반 되는 것입니다. 전기 스위치도 켤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구에 불을 오게하기 때문 입니다.

4:6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4:7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렸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케 말라 하였나니

본문에서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이라고 다섯번이나 명시하고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은 오늘입니다. 그는 어떤 날에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편 95 편에 보면 다윗은 오늘이란 말을 하였는데 광야의 실패후 오랜시간 이후의 때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패후 오랜 세월 후에도 그들이 들어 갈수있는 날을 아직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4:7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렸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케 말라 하였나니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대에 사는사람들에게 간청하기를 오늘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불순종 하다가 죽은 자들의 표본을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강박케 말라 라고 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4:8)

이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예수라는 말의 어원은 여호수아를 헬라 말로 번역하면 예수입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직책을 이어 받은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 중의 하나였습니다.

4:8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 하였던 여호수아는 그들을 안식으로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흥미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자들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안식이었습니다.

이 안식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 전히 끝난 사역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의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의지 할자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합니다. 그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나의 죄를 위해서 값을 다 치셨습니다.

그를 믿고 의지함으로 나를 의롭게 하신분이 바로 예수그리스도이십니다 .

이것은 완전히 끝난 사역입니다

그의 끝난 구원의 사역에 내가 보충하여 첨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역은 그분에 의하여 단번에 끝을 낸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안식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분투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 나의 노력으로 간절한 마음의 소원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활동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께서 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으니 단지 믿음으로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8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4:9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안식할 장소가 있습니다.

4:10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일을 끝 내었을때 곧 제칠일에 쉬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관해서 예수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끝 내었을때에 하나님께서는 쉬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일은 사람을 구속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그일을 끝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습니다. 사람의 구속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 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끝내시고 안식 하심과 같이 우리도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이미 제공 하신것 이외에 당신을 구원 하기 위한 다른 아무 방도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접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믿고 하나님의 안식을 믿음으로 받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터 영접되 기를 힘쓰야 하는 것입니다. 이말씀은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 하신 예수 그리스도안에 거하는 일에 있도록 힘쓰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축복이 사랑하는자 안에서 믿는 우리에게 주워지는 것입니다.

4:11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를 힘쓸 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 이라

여러분 안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안식에 들어 가도록 힘쓰시다.

사탄은 우리의 발걸음 마다 도전할것입니다.

“너는 할수 없어 너는 그러한 삶을 살수 없어 네가 어떻게 순전하고 의롭고 거룩 한 삶을 살수 있단 말인가.” 라고 용기 저하 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 주십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믿고 의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수 없 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심령과 나의생활 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사탄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지 못하도록 계속 도전하므로 내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내 마음속에 다시금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사탄은 나의 노력과 힘으로 해야 된다고 격려하여 나를 혼란과 불안속에 휘몰아 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내가 그렇게 할때에 실패할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하는 어떤것도 실패로 돌아 갈 것입니다. 모든 육신적인 노력에 대한 대가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당신이 육신으로 성취하려고 할때에 육신적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실패 할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과 화평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여 혼란 상태에 빠지며 용기 저하 될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4:11)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들 자신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거인들을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트릴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만 바라보다가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4:12 하나님 의 말씀 은 살 았 고 운 동 력 이 있 어 좌 우 에 날 선 어 떤 검 보 다 도 예 리 하 여 혼 과 영 과 및 관 절 과 골 수 를 찢 러 쪼 개 기 까 지 하 며 또 마음 의 생 각 과 뜻 을 감 찰 하 나 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언급하는데 사람들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인용 하고 있습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6)

사람들은 성경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의문은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뜻이 율법의 의문을 지켜 자신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당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 보려고 한다면 그것이 당신을 죽입니다.

율법은 매시간마다 당신을 저주하여 죽게 할것입니다. 율법의 의문은 당신을 매번 죽입니다.

그러나 영은 생명을 줍니다.

본문에서 선언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두날의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을 쪼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조질수가 있습니다.

영과 혼은 우리가 나누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의 영과 혼은 너무나 서로 짜여있고 또 이들이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혼(마음) 적 이나 감정적인 것인지 감별하기가 힘들 니다.

영과 혼을 구분하여 나누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그것이 혼 적인지 아니면 영적인지를 나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감찰하나니”

내가 예수님의 완성하신 일을 믿든지 아니면 나의 행함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완전하게 되어 보려고 하든지 둘중의 하나입니다.

만일 내가 나의 행함을 의지한다면 나는 안식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동기로 그일을 하는지 내자신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일을 할때에 밖으로 볼때는 아주 놀랍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심적으로 자신을 검토 해보면 그속심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보이려고 하는 동기가 있어 모든 사람들이 나의 하는 것을 볼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사랑하 심은” 이라고 횃바람을 아주 크게 불고 내가 어떤 일을 할때에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와 놀랍구나”라고 감탄하지만 그 놀라운 일의 배경에는 불순한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 람 에 게 보 이 려 고 그 들 앞 에 서 너 희 의 를 행 치 않 도 록 주 의 하 라 그 령 지 아 니 하 면 하늘 에 계 신 너 희 아 버 지 께 상 을 얻 지 못 하 느 니 라(마태 6:1)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도우소서.

나의 착한 행위의 배후에는 내가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몸에 있을때 행한 선악간의 일에 대해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날이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한 일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심판을 받게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앞에 설때에 우리의 행한일도 주님앞에 나타나 심판을 받게 될것인데 내가 행한 일 혹은 아니한일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그것을 행한 일의 동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게된 동기에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에 많은 좋은일한 것들이 제외 될것입니다. 나의 행함이 불에 의하여 심판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만 상이 주워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합니다. 많은때에 사람들은 신약성경에서 베드로가 바울의 쓴 편지에 대해서 억지로 잘못 해석 하여 멸망에 이룰수 있다고 말한것과 같습니다. 바울도 지적하기를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수 없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예수님의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에서 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울도 말했읍 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러면 어떤일도 할 필요가 없군 우리가 행한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해서 뭘하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일의 배후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보여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때에 나의 한일을 바라보거나 그것을 지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단지 말하기를 “주님 제가 이것 저것을 한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일에 대해서 마음깊이 감사하여 나타나는 반응에 불과 합니다. 내가 한일에 대해서 그에 대한 영광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깨닫고 보니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나는 감사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열정뿐입니다.”

다윗은 시편 116 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생각 할때에 나의 영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수 있을까?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것이 너무도 많습니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일이 너무도 큼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에 주신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무엇을 드려서 감사 할수 있을까? 단지 나의 감사와 사랑을 주님께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 드리기를 원하고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보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한일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야 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일을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행한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때문에 저는 단지 그것에 대해 반응 하기를 원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위치에 있지 않도록 우리는 조 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밤 주님을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백성들의 찬양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모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찬양을 할때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신다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찬양을 시작할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할찌 모르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찬양 한다면 그것이 무슨 찬양입니까?

그것이 참된 찬양인가요 아니면 의기적인 것인가요? 나는 축복 받기 위해서 찬양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된 찬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과 그의 선하심을 생각 할때에 내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으로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이 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없는 사람인 것을 잘 압니다.

제가 이렇게 상상에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축복을 깨닫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흘러 나와 드리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에 감사하여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나에게 반응할 만큼 내가 하나님께 행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시작하시고 내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나는 나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수년동안 많은 금식기도를 해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금식기도에 반응을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금식기도는 나의 행함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금식하지 않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아마 내가 금식기도 하는 날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마는 그때는 나의 초기의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금식했던 목회시절과 같지 않고 지금은 금식하는 동기가 완전히 다른 이유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금식기도에 대해서 쓴책들을 읽어 보면 금식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일에 역사하실수 있도록 하는 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책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축복을 받기위해서는 “당신이 금식을 해야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5일 금식하면 무슨일이 일어나고 10일금식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며 15일을 금식하면 무슨일이 일어날것이라는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이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금식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금식함에 따라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을 주시는 시작자 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시다

4:13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것도 숨길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는 열린 책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어떤것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생각하기 전에 미리 나의 생각을 아신 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왜 하는지 동기도 아십니다. 바로 그 이유때 문에 나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그리스도의 끝내신 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보다 주님의 끝난 일에 내가 서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렸을때 이웃집 아이들과 클럽하우스에 가서 전지 배터리를 가슴의 티셔츠 안에 넣고 계집애인야 흥내를 내는 작난을 한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마 4 살쯤 되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나의 어머니가 와서 그것을 목격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내가 이런 작난을 하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내가 대림질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라고 했습니다.

나의 일평생의 생활이 그러했습니다.

나에게는 경건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어머니에게 나에 대해 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항상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라나면서 어떤 것도 두려워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어머니에게 말씀 하시면 내가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주 어릴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앞에 아무것도 숨길수 없습니다. 하나님앞에서 숨기려하는 것은 얼마나 어 리석은 일인지요.

3:1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4: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하늘의 모델인 땅위의 지성소에는 들어 가지지는 않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이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우리에게는 영광스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중보 하 시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는 동정심이 많은 대제사장 입니다.

그는 나의 약함을 잘아시고 계시며 그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당하는 유혹을 모두 체휼하신 분입니다. 그는 나의 문제점을 잘아십니다. 그는 나의 약점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잘 이해하며 동정심으로 가득차있습니다.

오! 우리가 얼마나 영광 스런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

내가 예수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앞에 나아갈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앞에 어떻게 감히 당돌하게 자신의 한일을 받아 주시고 상을 달라고 나아갈수 있겠습니까?

“주님이번주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을 보십시오 그한일에 대해서 상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나는 오직 예수그리스도 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수 있습니다. 나는 감히 나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 아 갈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는 나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을 통해서 내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 갈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유혹 받듯이 그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유혹을 당할때에 주님은나를 도와 주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에 대한 상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행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

나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접근 하는 것이며 나의 행위나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나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나를 향한 그의 선하심과 은혜를 기초 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담대히 나아갈뿐만 아니라 나는 항상 내가 필요할때에 그의 도움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자녀로써 초청하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때에 나를 돕는 은혜를 나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릴때부터 우리의 착한 행실에 대해서 상을 받는 다는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다.

만일 오늘 내가 착한 아이가 되면 오늘밤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이 어릴때부터 나쁜일 한데 대해서는 벌이며 착한일을 했을때는 상을 받는다는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너는 오늘 나쁜짓을 했기때문에 오늘밤에는 아이스크림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심지어는 산타클로스할아버지도 너의 행실을 두번이나 체크하며 네가 나쁜짓을 했 기 때문에 너는 오늘 한보따리 매를 맞게 될것이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때에 우리의 착한 행실로써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나아 간다면 대부분 시간에 나는 나아갈수 없읍 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덕으로 나아 간다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 갈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후에 간다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일이 전혀 없기 때문 입니다.

나는 그의 은혜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문이 활짝열려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 에 그의 풍성함이 값없이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함을 아시고 나의 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동정 하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접근하십니까? 당신의 선함과 당신의 노력이나 행위를 기초하여 하나님께 나아 가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끝내신 사역을 기초로 해서 그에게 나아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나는 안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자신의 의로움에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끝내신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오늘밤 하나님 이번 주일 나의 선한 행실과 나의 행한 모든일이 잘 되여가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의 은혜에 기초하여 그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로 말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 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를 초청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만을 의지 합니다. 주님 내가 비록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나아 옵니다. 나는 받을 가치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 지금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것을 믿고 의지 함으로 그에게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십니다. 축복은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것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결핍은 당신의 헌신의 결핍으로 오는 것은 아니며 당신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좀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 나는 이번주에 주님께 헌신하는 일을 게홀리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구를 못하겠군요 나는 또다시 하나님을 실망 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요구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 내가 도와 달라고 해봐야 도와주시지 않을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번주는 아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이 거든 내가 감히 하나님께 도와 달라고 말을 못하겠군 그는 나를 도와 주시지 않을 거야 나는 알아”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믿 지 않는다면 도와 주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축복의 결핍은 헌신의 결핍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것이 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나의 실패가 나의 믿음의 길 앞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끝내신 일을 믿는 것보다 나의 일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개념을 포착하는데 도움을 주신다면 당신의 생활은 안식에 처 하게 될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결과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당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신일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와 찬양으로 반응을 하게 될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자비하시고 놀라워서 당신은 그를 찬양하고 그를 기뻐하게 될것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놀라 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게 될것이며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축복에 축복 그리고 축복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 오게 하실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밤 우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내신 일을 믿게 도와 주시

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와 자비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오 하나님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 하옵는지요.

우리는 우리의 구속의 사역을 끝내신 구주시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그의 끝내신 구속의 사역에 안식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의 생활을 주님께 바쳐 드려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십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든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오며 당신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나의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이번주에 당신을 축복하시기 원하며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활에 풍성하신 그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부어 주시기를 축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당신에게 넘치고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히브리 5-6

테잎 #c2298

척 스미스

우리모두 히브리 5 장을 펴겠습니다.

히브리 4 장마지막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는 우리의 큰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 였습니다.

히 4:14 “그 러 므 로 우 리 에 게 큰 대 제 사 장 이 있 으 니 승 천 하 신 자 곧 하 나 님 아 들 예 수 시 라 우 리 가 믿 는 도 리 를 굳 게 잡 을 지 어 다 !”

이것이 우리의 믿는 도리 인 것입니다.

4:15 우 리 에 게 있 는 대 제 사 장 은 우 리 연 약 함 을 체 흘 하 지 아 니 하 는 자 가 아 니 요 모 든 일 에 우 리 와 한 결 같 이 시 험 을 받 은 자 로 되 죄 는 없 으 시 니 라 !

4:16 그 러 므 로 우 리 가 긍 흘 하 심 을 받 고 때 를 따 라 돕 는 은 혜 를 얻 기 위 하 여 은 혜 의 보 좌 앞 에 담 대 히 나 아 갈 것 이 니 라

우리게는 큰대제사장이 있음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제사장에게는 직무의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사정을 아뢰는 일이있습니다. 여기에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죄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접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희생물을 가지고 그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를 나타내기 위해서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가 희생제사를 드린후에 밖으로 나와서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여 나타 내는 것입니다. 그는 중보자 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희생제물이 없이 감히 하나님께 접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상은 오늘날 변했습니다.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오늘날 유대인 들은 중보 자가 없이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있다고 느낍니다. 바로 그이유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믿지않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 갑니다”그래서 수년을 걸쳐서 그들의 마음 상태의 개념이 변했습니다.

바울이 이말씀을 기록할때는 유대인들의 마음상태는 죄인이 하나님께 전혀 접근 할수 없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감히 하나님께 접근 하고져 시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접근 할수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장을 통해서 만이 할수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 만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 갈수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때에 무의식 가운데 문제 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대표할 제사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지적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며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 할수 있으며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므로 그들 통해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즉각적인 반대가 일어날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지파의 후손인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수있단 말인가? 우리는 레위지파가 제사장 지파인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자는 그 대답을 5 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제목을 7 장에서 다시 더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심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레위지파의 제사장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직은 레위지파의 계통으로 통해서 만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서 제사장 직이 다른 계통을 통해서도 주워지는데 그것은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지파에 속하지도 않고 레위지파의 계통으로 제사장이 된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오신 분입니다. 7 장에서 멜기세덱의계통이 레위지파 계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5 장

5:1 대 제 사 장 마 다 사 람 가 운 데 서 취 한 자 이 므 로 하 나 님 께 속 한 일 에 사 람 을 위 하 여 예 물 과 속 죄 하 는 제 사 를 드 리 게 하 나 니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나타냅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나아갈수 없습니다.

나는 희생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그제물의 머리위에 손을 얹고 제물이 소이든 양이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모든 죄를 고백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희생제물이 소이든 양이든 죽이고

그는 나를 위해서 그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졌으며 그는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서 하나님 앞세 나올수 있도록 임명된 것입니다.

5:1 대 제 사 장 마 다 사 람 가 운 데 서 취 한 자 이 므 로 하 나 님 께 속 한 일 에 사 람 을 위 하 여 예 물 과 속 죄 하 는 제 사 를 드 리 게 하 나 니

5:2 저 가 무 식 하 고 미 혹 한 자 를 능 히 용 납 할 수 있 는 것 은 자 기 도 연 약 에 싸 여 있 음 이 니 라

제사장이 사람들 가운데 취하였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또 죄인이나 참회하는 자에 대해 동정심을 가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자신도 그러한 죄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어떤 희생제물을 실제로 드리기에 전에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희생제물을 드려야만 한다는 사실은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는 직접 하나님께 접근 할수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해결을 본다음 그후에 와서 나의 죄에 대한 희생제물을 드릴수 있습니다.

5:3 이 러 므 로 백 성 을 위 하 여 속 죄 제 를 드 림 과 같 이 또 한 자 기 를 위 하 여 드 리 는 것 이 마 땅 하 니 라(히 5:3)

그는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가져 올뿐만 자신을 위해서도 희생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입니다. 죄인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5:4 이 존 귀 는 아 무 나 스 스 로 취 하 지 못 하 고 오 직 아 론 과 같 이 하 나 님 의 부 르 심 을 입 은 자 라 야 할 것 이 니 라

이것은 “내가 이제 대제상이 되겠다”라고 하여 되는 것이 이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명예로운 직분이 아닙니다.

이직분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세우시는 것입니다.

불행이도 이직분이 정치적인 직분이 되고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제도가 실제로 퇴락되고 영성이 결핍된데 대한 고발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만든 기관은 높은 지위를 세워놓고 원래의 의도인 영적인 개체보다 더 저질로 퇴락된 정치적인 기관으로 퇴락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큰교파의교회의 문제들은 영적인 단체라기 보다 오히려 정치적인 단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사람들 가운데서 취하여 사람을 위해서 희생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같은 사람임으로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람이 스스로 취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목회는 사람이 자의로 직업으로써 취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목회에 종사하도록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육의 양에 따라 당신이 목회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따라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목사로 세울수는 없습니다. 비숍이 나에게 손을 얹었다고 해서 목회에 임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존귀가 아닙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5:5 또 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인 지위를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5:5 또 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히 5:5-6)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라고 예수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5:7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 5:7)

이말씀은 겿세마네 동산에서 그를 구원하실수 있는 하나님께 눈물과 강한 통곡으로 기도한 예수님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말씀하기를 “12:27 지 금 내 마음 이 민 망 하니 무슨 말 을 하 리 요 아 버 지 여 나 를 구 원 하 여 이 때 를 면 하 게 하 여 주 옴 소 서 그 러 나 내 가 이 를 위 하 여 이 때 에 왔

나 이 다

12:28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때에 얼마나 강렬하게 기도하셨든지 땀방울이 피방울로 땅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26:39 조금 나아가 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 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가는 많은 사람에게 걸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이 하나님께 나아갈수 있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할수만 있으면 이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수만 있으면이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구속이 십자가 이외의 다른길이 있다면 아린 뜻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을 다른 방법으로 구속할수있다면,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구속될수있다면 자기의 노력으로 선을 행함으로 자신의 의로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 신실함으로 구속을 얻는 길이 있다면 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잔은 지나가지 않고 예수님은 그잔을 마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이 사람이 구속이나 구원을 얻을수 있다는 것을 지적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제로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이 하나님께 나아갈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 하는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 이외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는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께서는 그를 이죽음에서 구할수 있었고 또 그 기도도 들어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들어셨고 그의 기도도 들어 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기도하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는기도로 끝내었습니다. 그는 그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관해서 그관계를 인지함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은 분노와 심판하시는 마음으로 가득차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기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구원의 계획을 시작이신이가 아버지 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분도 아버지십니다. 아들이 십자가를 피하려할때에 아버지의 뜻의계획을 오지부동하게 견지하신 분도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아버지는 노하여 원수를 멸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옥유황불에 던질 준비가되어 있는 분이 아니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죄의 죄를 사하 시 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의 품으로 영 접하시고 또한 사귀를 갖기 위해서 하나밖 에 없는 독생자를 수치스런 죽음으로 가게 하시는 극치의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개이 치 아니하시고 단행하신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엿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어떤것보다 우리와 사귀를 가지시기를 심히 원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입니다. 그는 당신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시고 그가 원하는 데로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기도할때에 우리가 항상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땅위에서 우리의 뜻을 이루고져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는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마음데로 갖도록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주신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행히도 많은 경우에 사람 들은 기도를 그러한 각도에서 보는 것입니 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안으셨냐? 누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나?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나?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는 자격이 무엇인가?

“ 이 에 예 수 께 서 제 자 들 에 게 이 르 시 되 아 무 든 지 나 를 따 라 오 려 거 든 자 기 를 부 인 하 고 자 기 십 자 가 를 지 고 나 를 좇 을 것 이 니 라”(마태복음 16:24).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을 것이며 가진줄로 믿으라”라는 말씀위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라는 말씀을 놓아 보십시오.

이러한 제자들에게 엷은 약속의 말씀을주신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는다면 내자신의 영광이나 나의 육신적인 어떤것을 구하지 않고 다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만 구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주 기도가 변합니다.

내가 만일 어떤것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나는 기도하기를 “오 주님 그것을 주십시요” 그러나 내가 기도할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바꿔주십니다.

“주님 내게 그것이 꼭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히 5:8)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아버지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는 고난으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사도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오 나는 부활의 능력과 그를 알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도 바울에 동의합니다. 나도 그를 알고 그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계속 말하기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한다”고 했습니다. 오바울 사도 고난은 원치 않습니다. 나는 능력을원합니다. 나는 영광을 원합니다. 나는 쉽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에 참여한다구요 그것은 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십자가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여 나의 생활을 주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어떤장소보다 고난에서 더 배우게 됩니다. 내가 훌륭한 군사와 같이 고난을 견딜때에 거기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나의 생활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러한 것을 수락할때에 “주님 나의 생활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자들은 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 지어다 (벧전 4:19)

하나님 저는 고난 당하는것 원치 않습니다

이계획은 제가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함보다 하나님 주님 제가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은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생활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드려 순종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고통을 제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보다 더욱큰 믿음 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나의 뜻에 따라 주실것을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로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 고(히 5:9)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근원)이요 그리고 우리믿음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 구원의 근원”이라고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고 또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가 십자가를 지셨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만일 그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었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5:10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5:11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제 유대인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그리스도를 믿게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조들로 부터 깊이 뿌리 박힌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평생을 통해서 성전에 가는 것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일들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좋은 길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렀고 그들 중에는 아직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그의가 르침을 따라갈것인지 아니면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희생제물을 가지고 자신을 위 해서 제물을 바쳐야할지 그리고 성전에서 경배도드려야 할지 어떻게 할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듣는 것이 둔하였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에 대해서 더자세히 말하기를 원하나”라고 하면서 그는 7 장에서도 그는 그것에 대해서 더자세히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할말이 많으나 너희들은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라고 했습니다.

5:12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들은 그기에 오래 있었고 말씀을 들어 왔습니다. 그들은 더욱 발전함이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쯤은 그들이 나가서 다른사람을 가르치는 일을해야 할것인데 아직도 초보에 머물면서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우유병만 마시고 있다고했습니다

“지금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때가 되었는데도너희들은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너희들은 영적인 발전의 정지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내에서 영적성장의 중단이 가장 보편적인 병인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알고 믿지만 어느수준에서 발전없이 정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25년전에 말하던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의 정지 상태입니다.

그들은 25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영적성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보면 아직도 우유병을 마시고 있습니다.

“나를 재미있게 하세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하프도 치고 뭐 재미있는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며 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당신들이 한번 단단한 음식을 맛보고 나면다시는 우유병으로 만족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나가서 옛날 마시던 우유를 그리워하여 마시보지만 그들은 더이상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번 단단한 말씀의 진미를 맛보고 나면 옛날 초보적인 우유를 마시던 시절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5:13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바울은 고린도서신에서 육신적인 신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걸려있는 병이 영적성장의 정지 상태입니다.

5:14 단 단 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에서 자라면 영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소한 우유에 속하는 일시적 반짝하는 교리에 대해서 근방 분별을 할수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당신은 “여보시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사탕같이 달콤하나 영양을 주지 못합니다”라고 말할것입니다.

옆에있는 어떤 사람은 이러한 흥분되는 말에 대해서 “오 이얼마나 놀라운가? 정말 놀랍다” 감탄을하지만

이것은 마치 솜사탕과 같아서 즉시 녹아 내리고 참으로 몸에 영양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6 장

6:1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6:2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나아갈지니라

6:3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제 구원이나 구속 같은 교리 초보적인 것을 벗어나서 성숙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숙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주님과 걷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성숙해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나의목회의 오랜 세월동안 나는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나는 설교자였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격의 위치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멧세지 마다 나는 복음주의적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해있는 교단이 이것을 첫째로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보고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나를 기록해야합니다. 만일 그년에 사람의 수가 많지 않으면 비숍이 좋게 보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주의 전도를 하는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몇년동안 갈등에 빠져있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설교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중생한 자에게는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가르치는 선생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설교만 한다면 교회는 결코 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성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사람들이 아는 것은 구원얻는 도리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중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해야 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아야 함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말씀만 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때 까지는 그들은 결코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날수 가 없습니다.

초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항상 반복 할 것이 아니라 초보적인 교리에서 떠나 그 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믿음의 기초에 대한것을 계속 반복할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에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쌓아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이해하기 힘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4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6: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6:6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성경구절은 사탄이 자주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사탄은 이브에게 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더러움 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4:6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 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을 이루셨다. 성경말씀을 본문의 뜻에서 벗어나면 다른 뜻으로 될수 있다. 성경말씀을 취하여 본문의 원뜻에서 벗어나 격리하여 해석하면 완전히 다른뜻이되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해야 한다.

그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아는가?

사람이 실수 하고 심지어는 참람한 말을 한다할찌라도 아직도 용서 받을수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 합니다 “닭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내가 죽을찌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닭이 두번울었을때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바라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를 세번 부인한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는 “나는 그사람을 모른다”라고 참람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회복함을 받았고 초대교회에 기둥이 되었으며 사도로서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할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제외하시거나 또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여 다시금 새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오래참 으시 는 하나님이신줄 압니다. 그는 인내하시며 우리의 행한 악을 따라 갚지 않으심도 우리가 압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높습니다.

사탄은 자주 타락한자에게 이러한 성경구 절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말하기를 “이사람아 너는 이제 끝이야 히브리서에서 말하것을 보느냐? 너는 이제 희망없어 너는 용서받을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 너는 이제 구원얻을 희망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많은 경우에 이구절에 대해 서 사람들 찾아와서 카운슬링을 요구하 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용서 받지 못할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수있습니다.

우리는심지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장거리 전화로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믿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곤 합니다.

그럴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찌 아십니까?”라고 물으면 “왜냐하면 당신이 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 용서받지 못할죄를 지었다면 당신은 전화도 걸지 않을 것이고 무관심 할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을 것입 니다.

당신은 마음이 굳고 차가워 당신이 행한일 에 대해서 아무자책도 없고 무관심할것 입 니다.

당신의 행한일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고 염려한다는 자책가 용서받지 못할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 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직도 당신에게 감화를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구절을 사용하기 를 좋아하여 사람들의 머리를 죽도록 치는 것입니다.

이말씀을 아래와 같이 암시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침을 받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 유대종교의 의식으로 다시 돌아간 유대인 들에 게 쓴 글로써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견을 전혀 받아 들일수 없습니다

이말씀은 저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씀에 미루어 볼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란 말씀은 나에게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체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가지 다른 밭에 떨어지 씨에 대해서 그라치신 말씀을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매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짜밭에 가시밭에 더러는 옥토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멎어버렸고 이것은 사탄이 와서 즉시 없애 버렸습니다. 여기서는 뿌리가 결코내려본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도 작용도 반응도 없는 사람들을 볼수있습니다.

땅이 굳어서 씨가 뿌리를 내릴 못합니다.

그리고 돌짜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돌짜밭 위에 흙이 알팍해서 싹이 빨리 솟아 나옵니다. 바위위가 되여서 따뜻하고 좋아 싹이 속히 돋으나 해가 뜨서 뜨거운 햇빛이 쬐이면 흙이 깊지 못해 뿌리를 내릴수가 없어 근방 말라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경우에 행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흥분되어 예수님께 한동안 큰관심과 열심을 내다가 뿌리가 없고 깊이가 없어 조그마한 폭풍아니 뜨거운 햇빛이 비칠때에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그들은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것을 나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내가 경험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깃밭에 떨어진 씨는 자라기는 하나 가시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지 모사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성장은 하나 그들의 생활에서 열매가 없습니다.

이본문에서 내가 어려움을 갖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여 다시금 새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미안 합니다.

내가 이본문이 무슨뜻을 가지고 있다는 영광스런 숨겨진 계시를 말 할수가 없읍 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가 쫓아 내지 않으 리라”고 말씀하신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밤내가 아는 것은 당신의 배경이 무엇이든지 과거에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 되었든지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께 나아오면 그는 결코 당신을 쫓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말씀은 당신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께 로 오기를 원치 않으며 또 오지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이말씀이 당신에게 적 용 될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닫은 자들에게는 회개할 자리 도 없고 새롭게 된다는 것이 불가능 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도 교회 나간적이 있고 그곳에 앉아서 찬송도 불렀고 했지만 이제 그런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지칭해서 말한 구절일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을 만난적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직도있고 하나님게로 돌아와서 바른 관계를 맺고져 하는 소원이 있다면 이구 절의 말씀은 그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 다.

그럼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굳어있지 않는 한 우리는 이구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일 굳어 있다면 아주 염려해야 할 문제 인 것입니다.

6:7 땅 이 그 위 에 자 주 내 리 는 비 를 흡 수 하 여 밭 가 는 자 들 의 쓰 기 에 합 당 한 채 소 를 내 면 하 나 님 께 복 을 받고

6:8 만 일 가 시 와 영 경 귀 를 내 면 버 림 을 당 하 고 저 주 함 에 가 까 와 그 마 지 막 은 불 사 름 이 되 리 라

그래서 다시금 씨뿌리는 농부와 씨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내는 씨도 있고 과일을 내는 씨도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땅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좋은 땅이 밭을 잘가꾸워서 씨를 뿌린자에 게 좋은 채소의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이 가시나 엉겅퀴를 내면 농부는 그것을 몰아다가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이제 저자는 제가 믿기는 바울이라 생각되는데 저자인 바울은 말하기를

6:9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으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특별한 저주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6:9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6:10 하나님이 불의 치아니 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넘어지고 당신은 영적인 어린아이고 또 영적 성장이 중지 되고 타락하여 넘어진다 할찌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시고 계시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6:11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지런 하십시오 그리하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것입니다.

소망의 풍성함이란 아주 영광스런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소망에 풍성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나 의문이나 불확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품안에 영원히 거한다는 확신과 구원에 대한 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될까 하는 의심은 추호도 없습니다.

나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러한 것들 항상가지고 있지는 않았 습니다. 오랜 세월을 저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마는 지금은 그때 보다 더욱 확 신을 가지고 있음을 제가 인식합니다.

왜내가 그러한 확신이 없었던 이유는 나의 구원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나 모든 것이 나의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한 나는 결코 그러한 구원의 소망을 가질수가 없었습니다.

“오 그러면 당신은 결코 구원을 잃을수 없단 말입니까?” 물론이지요 내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겨로 버릴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상상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걸으며 그와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으니 결코 뒤돌아 서지 않을 것이며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갈것입니다. 주님을 떠난다는 개념이나 생각은 해본적도 없습니다. 바로 그이유때문에 나는 끝까지 구원의 풍성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6:12 게으르지 아니 하고 믿음 과 오래 참음 으로 말 미암 아 약속 들 을 기 업 으 로 받 는 자 들 을 본 받 는 자 되 게 하 려 는 것 이 니 라

이제 이러한것은 나를 게으르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와 주님의 일에 대해서 나를 완전히 바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입니다.

6:12 게으르지 아니 하고 믿음 과 오래 참음 으로 말 미암 아 약속 들 을 기 업 으 로 받 는 자 들 을 본 받 는 자 되 게 하 려 는 것 이 니 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것은 어떤 것이라도 해주신다는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고도 귀한 약속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집에 작은 약속의 말씀구 절을 담은 통이 있을줄 믿습니다.

그기서 약속의 말씀이 담긴 구절을 뽑아 읽어 보면 너무도 많은 좋은 약속의 말씀이 닳겨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아주 좋아 합니다

이하나님의 약속의말씀을 읽을때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심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약 속의 말씀을 우리집 벽에다 붙이기도 합니 다.

오랫동안 우리 딸의 방의 벽에다 “두 려 워 말 라 내 가 너 와 함 께 함 이 니 라 놀 라 지 말 라 나 는 네 하 나 님 이 됨 이 니 라 내 가 너 를 굳 세 게 하 리 라 참 으 로 너 를 도 와 주 리 라 참 으 로 나 의 의 로 운 오 른 손 으 로 너 를 붙 들 리 라” 이사야(41:10)

밤에 두려워하는 어린 딸의 방의 벽에다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는 것은 얼마나 용기를 주는 것일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4장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4:1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 할 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 지라도 너희 중에 흑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히 4:10).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두려운 가운데서 떨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야곱이 아주 어려운 곤경에 빠져있을때의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 합니다.

그가 외삼촌의 두 딸과 거기서 봉사하며 얻은 소와 양떼들을 모두 이끌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야곱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의 아내인 라헬이 아버지의 작은 신상을 훔쳐 왔던 것입니다. 라반은 그의 많은 종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추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이를 만나느 전날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하시기를 “그에게 손을 데지말라고 하시며 손을 데는 날에는 너에게 큰 벌이 임할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죽이기를 원하였으나 그전 날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데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감히 손을 데지는 못했으나 적어도 말로써 공격했던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렀을때에 말하기를 너는 나의 재산을 모두 훔쳐갔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외삼촌을 위해서 17년이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나의 임금을 열번이나 변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것을 취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때에 라반은 말하기를 너는 나의 딸들을 말없이 뺏아 갈 뿐 아니라 손자들에게 작별키스할 기회도 주지 않았고 소와 양떼들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너의 나의 신상까지 훔쳐갔다고 했습니다.

도둑당할수있는 신상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아주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 모르나 그들이 이와같이 흥분할때에 분위기가 아주 험악함을 볼수있습니다.

그들은 곧 옷속에 숨겨놓은 단칼을 뽑아 들고 찌를듯한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야곱과 라반의 대화분위기를 대강 짐작할수 있을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아주 힘든 날이었고 맥 다빠졌 을 것입니다.

라반이 떠나자 마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온자가 말하기를 “당신형인 에서가 200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당신을 맞으려고 오고 있습니다”라고 할때에 야곱은 형인 에서와 마지막 접견에서하는 말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나는 죽이고 말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형 에서가 지금 자기를 만나려고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200 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심적인 두려움으로 가득찼습니다.

그때 야곱은 말하기를 “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돌아가라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겠 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며”내가 지금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겠다고 해서 왔습니다”라고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처해 있을때에 내일당하는 일이 고통스러울때에 형제가 자기를 미워하여 200 명의 장정을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올때에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보일때에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함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될것이다”라는 말씀을 믿고 그약속위에 서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그리고 둘째는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이두가지를 간직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것과 그를찾는자에게 반드시 상주심을 믿어야 할찌니라”라고 했습니다.(히 11:6)/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 다. 하나님께서 하실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 행 하실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해하시는 하나님임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기도할때 즉시로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많은 때에 나의 믿음을 테스트 해보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와 그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까지는 어떤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인내 속에서 믿음이 시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약속을 받은 선진들을 본받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의 하신 말씀을 이루실때까지 인내로써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있는 것입니다. 그약속을 굳게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 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 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히 6:13-14)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약속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내로써 그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결국은 그약속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가? 35년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읍니다” 우리는 너무 나 인내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즉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대게 우리는 시간을 정합니다. 한주간 정도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실것을 기대합니다.

“그가 인내로서 기다린후에 그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약속한데로 한 아들을주셨읍니다.

불가능이란 말은 우리가 상요하고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러한 것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불가능한 일에 처할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을 개입하게하시면 그기에 불가능이란 단어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해질일 전혀 업읍니다. 어떤것에서도 힘든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되는 곳에서는 불가능이라는 말이 제거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항상 그일을 하는 자의 능력에 따라 발생하는 말인 것입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자”라 말하면 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반석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지으리 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하실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일을 하느냐에 따라 어렵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당신을 어렵다는 말을 빼여 버려야 할것입니다.

만일 내가 한다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아마 불가능할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자신을 믿지 아니하며 나의 재능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할때에 나는 어렵다 불가능하다란 말을 제거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을 능가하여 풍성히 해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내로써 기다려 약속을 받았습니다. 불가능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망은 경우 불가능하다고생각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나는 “저사람은 구원을 얻기에는 불가능해 희망이 없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시면 불가능은 사라지고 어려움도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 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히6:16)

좋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할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그것을 할것을 당신에게 약속 합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제가 하겠다고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여기서 내가 그것을 할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서로가 다투고 있다”

마지막에 내가 “이사람아 내가 성경을 두고 내가 할것을 맹세한다”라고 말하면 “좋습니다” 라고 그논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맹세란 그러한 논쟁을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내가 하지 않았다” “예 네가 했다” “아니 하지 않았서”라고 논쟁하다가

“내가 지금 하지않았다고 성경을 두고 맹세한다”

“그럼 좋아 내가당신이그것을 했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것을두고 맹세 하는 것이다.

내가 아침시간에도 말했듯이 내가 오늘밤 그곳에 갈것을 나의 고양이를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보다 못한것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보다 큰자를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맹세하는 것이 아주 큰일들중에하나 였는데 맹세할때에 어느것은 지켜야 하고 어느것은 아니지켜도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제단을 두고 맹세한다면 그맹세는 아니지켜도 되지만 만일 제단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한다면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맹세할때에 “제단을 두고 맹세한다면 제단위에 있는 금을 놓고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은 이맹세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법정에 가서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고 진실아닌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 합니다”예수께서는 본문에서 맹세를 전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책임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되며 당신이 하는 말이 참이라는 것으로 그사람을 증명하는 맹세는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예이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됩니다. 당신의 한말에 대한책임을 지면 됩니다.”

맹세하는 목적은 논쟁의 종지부를 짓기 위함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부를 논쟁하다가 어떤 사람이 맹세함으로 논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맹세를 할때에 좋습니다. 그것으로끝을 맺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6:17 하나님은 약속을 기 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변치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다른 말을 하여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약속을 하고 약속을 되돌아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당신이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변치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이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그의 모사의 불변하심이 그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의 모사는 그의 말씀이이요 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맹세로써 이것을 확인하셨습니다.

6:18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두가지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늘나라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태복음 24:35)

맹세가 두번째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그의 모사를 확인하는 맹세를 하시면 이제 당신은 두가지 변할수 없는 사실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맹세를 하면 변할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어겨 다른 말할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맹세를 한번하면 후퇴할수 없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것을 선언하시고 맹세 하셨습니다

“ 내가 맹세하노라”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보다 더 큰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당신은 두가지 변할수 없는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거짓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결과는

6:18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놀라운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하셨습니다 고로 그데로 될줄 믿습니다. 그말씀대로 될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피난처인 그곳으로 도망합니다.”

원수가 와서 말하기를 “어떻게 할작정인가? 다음주에 또와서 집세를 독촉할터인데 어떻게 돈을 마련할것인가?”라고 말할때에 여기가 내가 도망할 피난처인 것입니다.

“여보게 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영광의 부에따라 나의 모든 필요한것을 채워주신다네
집세넬돈이 올것이네”라고 강한 위로가 될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망을 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 합니다.

그말씀을 읽고 또일고 또 읽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약속의말씀을
적용하면서 나의 피할 안식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야곡의 말씀을 당신의
문제점에 적용하십시오

그리하여 원수가 와서 나를 괴롭히고 겁을 줄때 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도망하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고 곤할때 우리앞에 놓여진 소망의 피난처로 도망하시기 바랍니다.

6:19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달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나의 영혼이 여기에 달을 내리고 거기서 다른곳으로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이러한 소망 가운데 달을 내리는 것입니다.

6:19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달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영광스런 찬송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굳건하게 하는 소망의 달이 있습니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한 반석위에 달을 내렸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의 구세주의 사랑안에 깊게 굳게 달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 나의 영혼의 달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파선되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위에 달을 내리고 있습니다.

휘장안에 들어 가나니)6:19 하)

나는 하나님의 임재앞에 즉시 나아 갑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앞에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 갑니다.

휘장안으로 나는 아버지 앞에 즉시 나아갑 니다. 왜냐하면 예췌서 통로를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제단에 들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휘장안에 아버지가 계신곳에 담대히 나아가며 그의 하신 말씀에
굳게 섭니다.

6:20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
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다음주 7 장에들어갈때레위지파를 통한 제사장직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제사장직을 비교하여 공부할것입니다.

여기서 레위지파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보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월등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10 장까지 이말씀이 계속 됩니다. 다음주에는 8 장과 9 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오늘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약속 안에 닿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곳이 당신의 피난처입니까? 그말씀에서 큰위로와 안위와 확신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것입니다. 그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유산받게 하셨으니 이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런 약속을 받게 하셨으며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으니 이얼마나 감사한 일입까?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엑 임하시며 날마다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와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며 그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축원 합니다.

이번주에도 성령께서 당신의 생활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믿음의 풍성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사랑과 말씀에 뿌리를 내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기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기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의 모든 풍성함을 당신에게 주시기를 하신 축복이 그리스도예수 안에서 넘치기를 축원하오며예수님의 이르므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들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다음

다섯왕의 연합군들이 롯이 살던 지역을 공격하고 정복한후 롯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여러도시들을 약탈해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소식을 듣고 즉시 그의 종들을 그느리고 약탈해간 다섯왕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패배시키고 여러도시 로부터 약탈한 물건 들을 다시 빼앗아 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승리를 거두고 다섯왕으로 부터 약탈당한 물건들을 모두 빼앗아 왔을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이름의 뜻이 “의의 왕”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사람은 “살렘의 왕” 이라는 이름을 가진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번역하면 ”평화의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족보도 알지 못하고 그의 부모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된것도 알지 못합니다.

모세와 율법이 오기전 약 400 년전의 일입니다.

멜기세덱, 우리가 그에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제사장이 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두곳에서 만 언급 되어 있습니다.

첫번은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를 맞았을때이고 또 시편 110 편에서 시편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할때에 난대없이 멜기세덱이란 이름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는 맹세하기를 “:1 (다 윌 의 시) 여 호 와 께 서 내 주 에 게 말 씀 하 시 기 를 내 가 네 원 수 로 네 발 등 상 되 게 하 기 까 지 너 는 내 우 편 에 앉 으 라 하 셧 도 다

110:2 여 호 와 께 서 시 온 에 서 부 터 주 의 권 능 의 흘 을 내 어 보 내 시 리 니 주 는 원 수 중 에 서 다 스 리 소 서

110:3 주 의 권 능 의 날 에 주 의 백 성 이 거 록 한 옷 을 입 고 즐 거 이 헌 신 하 니 새 벽 이 슬 같 은 주 의 청 년 들 이 주 께 나 오 는 도 다

110:4 여 호 와 는 맹 세 하 고 변 치 아 니 하 시 리 라 이 르 시 기 를 너 는 멜 기 세 텍 의 반 차 를 좇 아 영 원 한 제 사 장 이 라 하 셧 도 다”

이시편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 다

지금 아론의 반차를 따라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직을 부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대제사장이 되는 자격중에 하나인 것이 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먼저 레위 지파라야 하며 아론의 반차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의 반차는 레위 지파가 생기기전 약 400 년경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국부인 아브라함이 그 대제사장에게 경배하고 소득의 십의 일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7 장에서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율법에서 설립된 아론의 반차를 통한 제사장직 보다 훨씬 우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라 설립된 제사장직이 수립된지 약 천년후에... 실제로 구약성경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명시한 두부분의 시간차가 천년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 주전 2000 년 경의 살았던 사람이며 그때에 멜기세덱을 맞났습니다.

그리고 천년후에 같은 성경에서 갑자기 메시아에 대한 말이 나오면서 멜기세덱 의 이름이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10:4 “여호와 는 맹 세 하 고 변 치 아 니 하 시 리 라 이 르 시 기 를 너 는 멜 기 세 텍 의 반 차 를 좇 아 영 원 한 제 사 장(메시아에 대한 언급) 이 라 하 셧 도 다” 제사장직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 된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된것 이 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배경을 조금 명 시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전 한가지 주지할 사항이 있는데 바리세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메시아 됨과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도전을 해오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라”고 했을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희 조 상 아 브 라 함 은 나 의 때 볼 것 을 즐 거 워 하 다 가 보 고 기 뻐 하 였 느 니 라’

8:57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오십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8:58 예수께서 가로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8:59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요한복음 8:56)

지금 “너 희 조 상 아 브 라 함 은 나 의 때 볼 것 을 즐 거 워 하 다 가 보 고 기 뻐 하 였 느 니 라”라는 진술을 놓고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았나? 라는 질문을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나자신을 포함 하여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내가 꼭 성경 학자 라기 보다 단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신것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믿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 타 난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노략물의 십의 일조를 받고 축복하신 멜기세덱이 다름아닌 예 수님이 라고 믿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 실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주님 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 주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7:1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할때에 엘 엘리온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7:1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7:2 아브라함이 일체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의 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 평강의 왕이란 놀라운 이름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마하기를 주님께서 이땅을 통치하려 오실때에 “여호와 찌푸게누” 곧 “여호와 의”
혹은 “의 의 왕”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가 평화의 왕으로 오실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두이름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기를

7:3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
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가 어디서 태어 났는지 언제 태어 났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가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족보나 그의 부모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사건과 관계없이 나타나셨고 배경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도 전혀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때 아브라함 에 게 나타 나서서 축복하였고 십일조를 받았으며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 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했습니다.

7:3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
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 여호와 는 맹세 하고 변치 아니 하시 리 라 이르 시 기 를 너 는 멜 기 세 텍 의
반 차 를 좇 아 영 원 한 제 사 장 이 라 하 셧 도 다”

그는 영원히 살며 제사장직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영원한 반차를
따라된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영원히 제사장 되는 것입니다.

7:4 이 사람의 어 똥 게 높은 것을 생각 하 라

당신이 기억하다시피 히브리에서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이 두번 나왔습니다. “지금 그를
생각하라...”하십니다.

이제 그는 우리들에게 멜기세덱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말해듯이 나는 그가 구약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출현으로 믿습니다.

7:4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십분의 일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이사람이 얼마나 높은 것을 생각하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사람이 그들의 마음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민족의 시작자인 국부로써 믿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의 시작인 조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더큰자인지 생각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그의 소유물의 십의 일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략한 물질 가운데 십분의 일을 드렸습니다.

7:5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은 소득의 십의 일조를 성전으로 가져오라는 법으로 제정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소득의 십일조를 바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추수할때 그 소득의 십일조를 주님께 바쳐라고 했습니다.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형제들로 부터 십일조를 받았습니다. 그 백성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7:6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자로써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은 족보에 들지 않고 있습니다.

7:6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고 그 (액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땅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씨로 통해서 이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 이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워졌는데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이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고있습니다. “이사람을 생각하라”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바치고 또한 아브라함으로 부터 송축을 받은 이사람이 누구인가?

7:7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느니라

축복은 항상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배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 부터 축복을 받은 사실은 그들의 국부인 아브라함 보 다 멜기세덱이 더욱 큰 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7:8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십분의 일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제사장직이 각 세대마다 계속해서 이어 받아 온것입니다.

여기서 죽을자들이 십일조를 받았읍니다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히 7:8 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 이라”이라고 한것은 멜기세덱은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7:9 또 한 십분의 일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십분의 일을 바쳤 다 할 수 있나니

7:10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그래서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은 레위 제사장 직보다 실제로 우위에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은 그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고 다시말하면 아브라함 속에 있는 유전인자가 전해져 앞으로 레위 지파까지 이르게 되므로 실제로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바친것은 레위 지파가 십일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셈이 되는 것입니다.

7:11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 전함을 얻을 수 있었 으면 백성이 그 아래 서울 법을 받았으니 어찌 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그래서 시편 110:4 절에” 여호와 는 맹세 하고 변치 아니 하시 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 이라 하셨도 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레위 제사장직이 완전했다면 또 완전한 상태의 사람으로 만들수 있었다면 왜구타여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는 아론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까요?

왜내하면 아론의 반차를 통한 제사장 직 은 사람을 완전하게 할수 없었기 때문입 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초기의 제사 장직 그리고 더 큰 제사장직으로 되돌 려 놓은 것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7:12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 하리니

7:13 이것은 한 사람도 제 단 일을 받 들 지 않는 지 파 에 속 한 자 를 가 리 켜 말한 것 이 라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 직으로 변경 하였기 때문에 율법도 반드시 변역될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레위 지파에서 나온 사람 만이 제사장 제사장직을 맡을수 있었기 때문입 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제사 장이라 고

주장하는데 그들이 레위지파임을 증 명 할수가 없어서 제사장 직말는 것을 허용치 않았읍니다.

그들이 족보를 가져와서 레위 지파라고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반차를 따른 제사장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번역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 족속을 통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유다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제 사장이 될수 있다는 법이 없기 때문 입니다.

율법에서는 레위지파에서 나온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수있습니다.

그분에 관해서 이것들이 발설되었고 예 수님 그분에 대해서 말씀한것이기 때문 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 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파에서 어떤 사람도 제단에서 봉사할수 없었고 유대 지파에서 어떤 사람 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봉사하지 않았읍 니다.

7:14 우리 주 께서 유다로 좇아 나신 것이 분명 하도 다 이 지 파 에 는 모 세 가 제 사 장 들 에 관 하 여 말 한 것 이 하 나 도 없 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이신 의로우신 예수그리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즉시로 도전해 옵니다. “예수가 유다지파에서 온자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수 있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유다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겠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110을 들고 나오니 다.

110:4 “여 호 와 는 맹 세 하 고 변 치 아 니 하 시 리 라 이 르 시 기 를 너 는 멜 기 세 텍 의 반 차 를 좇 아 영 원 한 제 사 장 이 라 하 셧 도 다”

그래서 그는 유다지파에서 나온 예수가 대제사장이 될수 없다고 선언하는 유대 인의 논쟁에 답을 말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말씀인 시편 110을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논쟁을 벌이면서 답을 합니다

7:15 멜 기 세 텍 과 같 은 별 다 른 한 제 사 장 이 일 어 난 것 을 보 니 더 욱 분 명 하 도 다

시편 110 편의 예언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합니다

7:16 그 는 육 체 에 상 관 된 계 명 의 법 을 좇 지 아 니 하 고 오 직 무 궁 한 생 명 의 능 렣 을 좇 아 된 것 이 니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케 못합니다.

다만 좋은 언약을 증거하고 좋은 약속을 설립할 따름입니다.

7:17 증 거 하 기 를 네 가 영 원 히 멜 기 세 텍 의 반 차 를 좇 는 제 사 장 이 라 하 였 도 다

7:18 전 옛 계 명 이 언 약 하 며 무 익 하 므 로 폐 하 고

율법이 취소되고 명령이 파기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7:19 (올 법은 아무 것도 온 전 케 못 할 지 라) 이 에 더 좋 은 소 망 이 생 기 니 이
것 으 로 우 리 가 하 나 님 께 가 까 이 가 느 니 라

성경은 말하기를 “그 러 므 로 올 법 의 행 위 로 그 의 앞 에 의 롭 다 하 심 을 얻 을 육
체 가 없 나 니 올 법 으 로 는 죄 를 께 달 음 이 니 라”(로마서 3:20)

성경은 우리들에게 올법이 결코 사람을 의롭게 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법의 목적은 사람의 죄를 나타내는 것과 그사람의 궁극적 죄성을 노출하 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올법으로 말미암 아 내가죄를 께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의 의의 표준을
선언하시매 내가 하나님 의 의의 기준에 이르기에는 짧다는 것을 께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법은 나의 실패를 나타내며 나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법은 나를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입니다.

“ 무 릫 올 법 행 위 에 속 한 자 들 은 저 주 아 래 있 나 니 기 록 된 바 누 구 든 지 올
법 책 에 기 록 된 대 로 온 갓 일 을 항 상 행 하 지 아 니 하 는 자 는 저 주 아 래 있 는
자 라 하 였 음 이 라”(갈라디아 3:10)

올법은 아무도 의롭게 하지못하며우리를 저주아래 가두는 것입니다. 왜내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나타내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양심이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올법을 해석하는 데 있었 습니다.

인간역사를 통해서 올법을 해석 하는데 문제가 존재 해왔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미국에서도 오늘날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특히 헌법의 종교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자유주의 대법원에서 해석하는 방법은 종교 자유가 아니라 종교로부터 자유함 을 갖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전치사를 비틀어 꼬아서 놓는 것입 니다. 미국의 헌법이 원래의 의미가 결코 종교로 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재정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확신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강요 하여 변경토록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종 교의 확신에
대해서 자유롭게 행사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헌법 해석에 대해서 흥미로운 사실은 교사가 고교 학생들 에게 힌두교나 불교의 서적을
주고 읽을 대목을 할당하여 읽는 중에 어떤 좋은 말이 있으면 발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팅턴비치 고등학교에서는 한교사가 학 생들에게 힌두교책을 교재로 삼고 학생 들에게 읽어
오라고 했습니다.

만일 한교사가 기독교에 대한 책을 학생들에게 읽어오라고 말했다면 ACLU 같은
얼빠진자유주의 사회에서 위법이라고 고함지르며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려 했는데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손상을 입혔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나라의 도덕원리 와 조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헌법에 도전하는 상태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 자유심의 한계심의 (Scope
trial)같은 것은 ACLU 에서 설정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 그들은 율법을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 그리고 물질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문자 그대로 물질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문을 따라 가기 때문에 잘난체하며 독선적이 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통채로 삼키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그지역에는 항상 하루살이들나 눈주위로 날아 다니는 성가신 미물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을 괴롭힙니다.

아침에 조깅을 할때에 하루살이가 입안 에 날아 들어 왔습니다. 율법에 고기를 피체먹지 말라고 했으니 코셔방법 으로 피를 철저히 빼내지 않고 먹으면 율법을 범함으로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 하루살이를 피체먹지 않기 위해서 손가락을 입에 넣어 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살이도 이렇게 걸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은 말하기를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짐을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사람들이 짐이 되는 것들을 나열해봅니다.

만일 유리 안구이면 이것도 짐이 됴므로 안식일에는 빼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한쪽 눈만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의치가 있습니까?

안식일에 짐이 됴므로 그것도 빼 내야 합니다.

목다리가 있습니까?

안식일에는 착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이러한 방법으로 율법을 해석하려 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질수 없는 무거운 짐이 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율법을 이러한 방식으로 지켰기 때문에 아주 독선적이 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 실제로 영적인 법칙을 날마다 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영적으로 해석하려 하셨는데 그들의 육신적인 해석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산상 보훈에서 14 절에서

마태복음 5:20 “내 가 너 희 에 게 이 르 노 니 너 희 의 가 서 기 관 과 바 리 새 인 보 다 더 낫 지 못 하 면 결 단 코 천 국 에 들 어 가 지 못 하 리 라”

이말씀을 들은 모든 제자들은 아연 실색 하고 속을 먹어”이사람들보다 어떻게 더 의롭게 된단 말입니까? 나는 빠지겠읍니다”라고 말할며 제자인 어부의 무리들이 우리가 지기에는 너무 나 벅합니다.라고 할때에 예수께서 계속 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의미하신 것을 말씀 하시기를 그들의 의는 모두 자기 들 의 행한 행위이다.

밖으로 볼때는 율법을 지키는듯하나 내적으로 그들은 날마다 영적인 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 5:21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 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 5: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워하는 것은 그것으로 부터 살인이 나오는 것이다

마태 5:27 “또 간음 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5: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며 영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었읍니다

만일 당신이 율법을 이러한 방식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는 범죄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 몽둥이로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았다 할찌라도 이웃개가 밤마다 짖는데도 조용하게 하지 않는 이웃사람을 미워 했다고 하자 “내가 이성가신 개가 짖는 통에 한밤중에 나를 단잠에서 깨게 하였으니 일어나서 그사람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더좋은 소망을 줍니다.

:20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세상의 대통령도 취임식때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주지사도 선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그직책을 맡을때 선서하는 것입니다

7:21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7:22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신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애굽으로 부터 구원받은 구약의 언약의 한부분으로 유월절 만찬때 떡을 취하셨을때 그것은 애굽으로 부터 구원받은 기념이였습니다.

이만찬의 목적은 그들의 조상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게된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데 있었읍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셨을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태복음 26:28) 라고 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옛언약은 짐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밤 내가 그땅을 지나 갈때에 너희 집은 지나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옛언약이었습니다. 희생양의 피가 그집에 발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새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우리죄로 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나 갔 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지나 생명으로 갔습니다.“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히 죽지 아니하리라”오 그때 우리는 변 화를 받을 것입니다.우리는 변화 (metamorphosis)될것입니다. 이썩을것이 썩지 않은 것으로 입히울 것이며 이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게 될것입 니다. 나는 이낫은 천막집에서 하나님 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름답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될것입니 다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된 제사 장이 될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음으로 더 좋은 언약임을 확실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7:23 저 희 제 사 장 된 자 의 수 효 가 많 은 것 은 죽 음 을 인 하 여 항 상 있 지 못 함 이 로 되

그들은 죽습니다 그것이 문제인것입니다.

그들의 수한이 다할때 모두 죽는 것입 니다. 그래서 제사장직분이 그 다음사람 으로 계속 이전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을 맡은자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결과로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 장 의 수가 아주 많게 됩니다

7:23 저 희 제 사 장 된 자 의 수 효 가 많 은 것 은 죽 음 을 인 하 여 항 상 있 지 못 함 이 로 되

7:24 예 수는 영 원 히 계 시 므 로 그 제 사 직 분 도 갈 리 지 아 니 하 나 니

7:25 그 러 므 로 자 기 를 힘 입 어 하 나 님 께 나 아 가 는 자 들 을 온 전 히 구 원 하 실 수 있 으 니 이 는 그 가 항 상 살 아 서 저 희 를 위 하 여 간 구 하 심 이 니 라

이제 제사장직의 목적은 중보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 갈수가 없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그의 재난과 고통을 보고 왜 이러한 일있을까 라고 그이유를 찾다가 결론을 내리기를 아마 욥이 숨은 죄가 있음이 틀림이 없다고 했습니다.

흉악하게 지은 죄를 성공적으로 잘 숨겼 다고 했습니다.

욥은 그의 순결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비난하는 그러한 죄는 짓지 않았고 만일 내가 그러한 죄를 지었다면 죽어 마땅하오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나는 그러한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적이 없소이다”라고 변박 했던 것입니다.

그친구중의 하나가 욥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시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 될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욥은 반응하기를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 그 광해한 하늘을 보면 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께 닭습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내가 무엇을 진언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경우를 알현 하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시며 무한 하십니다. 나는 유한합니다. 무한과 유한의 그 계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유한한 자가 미치기에는 불가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 다

이것이 물론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약점인 것입니다. 유한한 자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건널수 없는 계곡을 넘어 미쳐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 점인 것 입니다. 기독교는 유한한 자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미치려고 노력 하는 것이 아닙 니다. 기독교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에게 찾아 오시 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수궁이 갑니 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께 미쳐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인 것입 니다.

이것은 아주 불가능한 것임을 볼수있습니다.

욥의 친구중 하나가 말하기를 “누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며 하나님을 알수있단 말인가? 누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수 있단 말인가?”그답은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나는 유한한 사람인 입니다.

나의 이해력은 유한하고 나의 마음도 유한 합니다. 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 할수도 없고 상상할수 도 없습니다.

나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미칠수가 없읍 니다. 그계곡이 너무나 깊습니다.

우리들 사이를 연결해줄 중매자가 없읍 니다. 한손으로는 하나님을 다른 한손으로는 나의 손을 잡아줄 중매자가 없습니다.

욥의 외침과 그가 봉착한 난관에 대한 답 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 하 나 님 은 한 분 이 시 요 또 하 나 님 과 사 람 사 이 에 중 보 도 한 분 이 시 니 곧 사 람 이 신 그 리 스 도 예 수 라”(딤펴전 2:5)

그리스도는 그의 손을 양편 모두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한손은 하나님께 다른 한손은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받는 모든 유혹을 받은자가 된 것입니다.

제사장의 목적은 죄인을 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를 위해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자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먼저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당신을 위해 서 먼저가서 당신 을 위해 중보하는 것 입니다. 그는 당신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 가는 것입니 다.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다시 오는 것 입니다. 그는 하 나 님 앞 에서 당신을 대표하고 그 리고 다시 당신에게 돌아와서 당신에 게 하 나 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두분의 사이에 있으면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당 신사 이 에 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자신이 직접하나님께 나아 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이 유는 우리의 죄가 그길을 막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 없게 만드는데 있습니다
당신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앞에 나아 가면 당신은 불에 소멸될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앞에 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직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최상의 상태로 구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얻은 구원을 당신의 어떤것 과도 혼합시켜서는 안됩니다.
이구원은 최상에서 구원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내려가셔서 타락한 자를 올려서 구원얻은 설교자의 위치에 올리 는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실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서 그렇게 하실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최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러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최극상 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이구원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우리를 영광의 가장높은 한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극치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궁극적 경험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런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앞에 올려놓으며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그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최극상의 구원의 위치에 이르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율법 같은것을 지킴으로 결코 그러한 구원을 얻을수 없습니다.어떤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것을 통해서는 결코그러한 구원에 이룰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최극상의 위치에 이르도록 하실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를 최극상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 하리 라”요한복음 6:37”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능력이 있습니다.”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 오는 것입니다.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므로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올자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토록 이제사장직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나를 아버지 앞에 나타내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의 하시는 사역이요 그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는 나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정죄한다는 생각을 어디서 가져 왔습니까?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실때에 “3:17 하나님 이 그 아 들 을 세 상 에 보내신 것은 세 상 을 심 판 하 려 하 십 이 아 니 요 저 로 말 미 암 아 세 상 이 구 원 을 받 게 하 려 하 십 이 라

3:18 저 를 믿 는 자 는 심 판 을 받 지 아 니 하 는 것 이 요 믿 지 아 니 하 는 자 는 하 나 님 의 독 생 자 의 이 름 을 믿 지 아 니 하 므 로 별 썬 심 판 을 받 은 것 이 니 라”
이말씀을 보면 “열심히 일하면, 헌신하는 일에 신실하면 또 하루에 기도 한시간씩하면, 성경을 매일 열장씩 읽으면 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저를 믿는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라고 했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심판을 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 때 그들이 빛으로 오기를 싫어한것이 저주 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3 “서 기 관 들 과 바 리 새 인 들 이 간 음 중 에 잡 힌 여 자 를 끌 고 와 서 가 운 데 세 우 고

8:4 예 수 께 말 하 되 `선 생 이 여, 이 여 자 가 간 음 하 다 가 현 장 에 서 잡 혀 나 이 다

8:5 모 세 는 율 법 에 이 러 한 여 자 를 돌 로 치 라 명 하 였 거 니 와 선 생 은 어 땡 게 말 하 겠 나 이 까 ?

8:6 저 희 가 이 렇 게 말 함 은 고 소 할 조 건 을 얻 고 자 하 여 예 수 를 시 험 함 이 러 라 예 수 께 서 목 을 굽 히 사 손 가 락 으 로 땅 에 쓰 시 니

8:7 저 희 가 문 기 를 마 지 아 니 하 는 지 라 이 에 일 어 나 가 라 사 대 `너 희 중 에 죄 없 는 자 가 먼 저 돌 로 치 라 !’ 하 시 고

8:8 다 시 목 을 굽 히 사 손 가 락 으 로 땅 에 쓰 시 니

8:9 저 희 가 이 말 씀 을 듣 고 양 심 의 가 책 을 받 아 어 른 으 로 시 작 하 여 젊 은 이 까 지 하 나 썩 하 나 썩 나 가 고 오 직 예 수 와 그 가 운 데 섰 는 여 자 만 남 았 더 라

8:10 예 수 께 서 일 어 나 사 여 자 외 에 아 무 도 없 는 것 을 보 시 고 이 르 시 되 여 자 여, 너 를 고 소 하 던 그 들 이 어 디 있 느 냐 ? 너 를 정 죄 한 자 가 없 느 냐 ?

8:11 대 답 하 되 `주 여, 없 나 이 다’ 예 수 께 서 가 라 사 대 `나 도 너 를 정 죄 하 지 아 니 하 노 니 가 서 다 시 는 죄 를 범 치 말 라 !’ 하 시 니 라”(요한복음 8:3-11)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저주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이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랜세월동안 나는 나를 심판하는 자가 예수님이라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대답하기를 “누 가 정 죄 하 리 요 죽 으 실 뿐 아 니 라 다 시 살 아 나 신 이 는 그 리 스 도 예 수 시 니 그 는 하 나 님 우 편 에 계 신 자 요 우 리 를 위 하 여 간 구 하 시 는 자 시 니 라”

(로마서 8:34)

당신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말하기를 “제판장이여 이사람은 고약한 사람입니다. 감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보시요 내가 당신에게 오천불을 왜 주었습니까? 내 아내가 제판장에게 가 서 그렇게 말할것입니다 당신까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 않소.

변호사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당신의 가장 좋은 점만 말하여 당신이 정죄를 면하게 하려고 할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용서받게 해줄것입니다. 당신의 변호사가 당신의 원하는 데로 당신을 잘 대변해줄것을 원할것입니다. 만일 그변호사가 당신의 뜻대로 변호하 지 못했다면 아마 당신은 그변호사를 고 소 할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실뿐 아니라 그는 나의 증보자이십니다.

그는 영존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므로 나를 극상의 구원으로 이끌어 올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토록 나의 증보자가 될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위를 증보하시며 하나님과 나사이를 중재하시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표하여 중재하시고 계십니다.

7:26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기록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7:27 저가 저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7:28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7:26-28)

8 장

8:1 이 제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우편에 앉으셨으니

8:2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8:3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8:4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때에 하나님께서 산에서 지시하신대로 정확하게 만들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장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기 때 문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늘의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까?

당신이 그모든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장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오.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시은좌를 덮고 있는 그룹천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건설한 땅에 있는 성전에는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는 들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지상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성전은 원래의 성전이 아니 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원래성전의 모형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땅에있는 모형의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으시고 하늘에 있는 참된 원래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며 그림자에 자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에 있는 참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땅에있는 회막은 그것의 모형일 따름입니다.

그기서 예수님께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를 대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에있는 하늘의 모형인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표본으로써 그림자일 따름입니다.

많은 경우에 레우기를 공부하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때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성전의 치수와 그속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읽을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제사에 대한것을 읽어보면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할수 있습니다.

옛죽은 제도에 대해서만 읽는다면 도저히 이해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마치 죽은 언어인 라틴어와 같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에 배운 라틴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기록하기를 “라틴어는 아주 죽은 언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언어는 “먼저 로마를 죽였고 이제 나 를 죽인다” 라고고 했습니다.

이땅의 제도는 이제 폐기 되었고 지나 갔습니다. 왜냐하면 참된것이 왔기 때문 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참된것이 왔을때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된것이 왔을때는 모형이 더이상 필요 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쳐 놓아야 합니다

지금은 참된것이 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8:6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제 출애굽기 19 장으로 돌아 가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며 제사장 제도를 설립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와 언약을 맺은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내용을 보면 사람들의 신실함과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출애굽기 19:5” 세 계 가 다 내 게 속 하 였 나 니 너 희 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기서 “만일”이란 조건부가 붙어 있습니다.

이언약은 일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건부인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주에서 내소유가 되겠고 19:6 너 희 가 내 게 대 하 여 제 사 장 나 라 가 되 며 거 룝 한 백 성 이 되 리 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너 는 이 말 을 이 스 라 엘 자 손 에 게 고 할 지 니”

그래서 모세는 내려와서 이말씀을 백성들에 전했습니다. 그럴때에 백성 들이 19:7 모 세 가 와 서 백 성 의 장 로 들 을 불 러 여 호 와 께 서 자 기 에 게 명 하 신 그 모 든 말 씀 을 그 앞 에 진 술 하 니 19:8 백 성 이 일 제 히 응 답 하 여 가 로 되 ` 여 호 와 의 명 하 신 대 로 우 리 가 다 행 하 리 이 다 !' 모 세 가 백 성 의 말 로 여 호 와 께 회 보 하 때” 모세는 하나님께돌아 와서 백성들이 그 모든 말씀대로 청종 하 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치 않았습니다.

보다시피 그언약은 “만일” 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한다면 이란 “만일”이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언약을 어긴자가 하나님이라 아니라 사람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언약은 사람의 순종과 신실함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순종치도 않았고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새언약의 중보자 이십니다. 이것은 더 좋은 언약입니다. 왜냐 하면 더 좋은 약속위에 설립 되었기 때문 입니다. 왜냐하면 새언약은 나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새언약은 나의 행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하시는 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언약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좋아 하며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언약은 나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더좋은 언약인 것입니다.

신약은 구약보다 월등 합니다. 혹은 새 언약은 옛언약보다 더욱 우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역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리고 나는 그를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조건뿐인 것입니다.

8:7 저 첫 언약이 무효 하였더면 둘째 것을 요구 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만일 첫언약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수 있었다면 다른 언약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새언약이 필요 했던 것입니다.

8:8 저 희를 허물 하여 일렸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8:9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 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 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 희는 내

언약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나의 순종에 의존되는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히 8:9)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나의 언약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8:10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나의 생각에 두시고 나의 마음속에 그법을 기록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나의 생활에 나타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에게 나의생활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나의생활에서 나타내시는데 나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가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나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역사 하십니다.

내가 북쪽 벤추라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헐리웃을 통해서 고속도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산셋 대로에 와서 나는 생각하기를 “오늘 날씨도 좋고 산타 바바라에 어떤 특정한 약속도 없으니 해안가로 달리는 도로로 천천히 운전을 즐기기로 하고 차 덮개를 열어 재치고 마구지점에서 말리부 를 거쳐서 운전하여 가기로 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산셋대로를 거쳐서 해안고속도로 들어 가려고 하는데 두 젊은 부부가 서서 차를 태워주기를 원하여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나는 홀로라서 그들을 태우고 운 전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그리스도를 벤추라 갈때까지 증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길가에다 차를 세우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나는 산타 바바라 까지 갔는데 그갔을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척 지금 즉시 산타아나 집으로 돌아와야 겠소 그래서 나는 즉시 차를 타고 산타아나로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의 생각속에 “해안 도로 로 통해서 가볼까?” 라는 생각을 넣어주 었을까?

그것은 나에게 아주 자연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닷가를 좋아 하기 때문 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라고 하 셧습니다. 나의

마음속이 번개같이 날씨 도 좋은데 해 안가로 즐기며 천천히 운 전을 해볼가 라는 생각을 누가 내마음 속에 넣었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그생각을 내마음에 두셨 습니 다. 왜냐하면 몬타나에서 온 두부부가 절 망적으로 하나님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저희들의 마음에 기록하 리라

나는 생각하기를 “나는 해변을 좋아하여

말리부쪽으로 운전하며 주마해변까지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내 마음속에 두셨습니다.

“야 이렇게 운전하는게 나에게서 즐거운 일이야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입니다. “오 내가 말리부 그리고 주마 해변까지 가야 하느냐? “라고 억지로 가야한다고 생각지 않았읍니다. 아니 이것은 나의 마 음속에 소원하는 일 이 었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의 법 을 기록하신 것입니 다. 내가 차를 돌려 산셀대로로 진입했 을때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아” 오, 하나 님께서 그것을 그렇게도 쉽게 그의 법 을 육 비에 기록하셨습니다.나의 생각에 기록 하셨습니다. 돌비에 기록한 것이 아 니고 “하라... 하지말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비에 기록하시니 얼마 나 좋은가? 내가 알고 보니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하기를 원하는 일이었 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 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 지 알 수 없읍니다. 내가 사람들은 하나 님의 계 획이라고 하면 고통스럽다고 생 각합니다. 십자가 를 지고 그고통 가운데 서 일어 나려고 최선을 다하며 애쓰야 한다고 생 각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령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 를”나의 짐은 가볍고 지기 쉬우니라 네 영혼이 짐 을 얻으리라 나의 법을 너의 생각에 두고 네 마음에 기록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할수 있도록 하십니다.

8:11 또 각 각 자 기 나 라 사 람 과 각 각 자 기 형 제 를 가르 쳐 이 르 기 를 주 를 알 라 하 지 아 니 할 것 은 저 희 가 작 은 자 로 부 터 큰 자 까 지 다 나 를 앞 이 니 라

8:12 내 가 저 희 불 의 를 긍 흘 히 여 기 고 저 희 죄 를 다 시 기 억 하 지 아 니 하 리 라 하 셧 느 니 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나의 신실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 십니다 나의 생활에서 역사하고 계십니 다. 그가 나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알게 됩니다. 그는 실수하는 나를 긍흘이 여기시고 그리고 나의 패역한 죄 를 기억도 아니 하십니다

8:13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을 때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
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옛언약은 곧 없어지게 됩니다.

그이후에는 제사장 제도가 끝이 났습니다. 주후 70년경에 옛언약이 끝났습니다.

심지어 정통파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도 오늘날 옛언약에 순종치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들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희생제사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음식을 조심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통곡의
벽이나 다윗의 무덤이나 라헬의 무덤이나 아브라함의 무덤에 가서 기도를 올릴지라도 하나님
과 맺은 언약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것은 무너지고 주후 70년경의 예루살렘의 파괴와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파괴전 6년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가 선언하신 것을 보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이말씀이 6년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옛것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언약은 더좋은 약속위에서 설립된 것입니다. 이새언약은 죽지도 않는 대제사장위에서
그리고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제사드리기전에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분위에 설립된 것입니다. 그는 단번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고 내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올때에 그분의 하신일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대 대해 감사 드립니다.

그는 땅의 장막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이 풍성한 대제사장을 주신대 대해 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불의한 대서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정결케 해주시며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시고 우리의 기질을 바꿔주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중생함을 얻고 영적인 생활을 영위할수 있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안에서 생활 하고 걸어갈수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 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내게로 오라 너에게 메운 나의
명애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주일 저녁에 와서 성경공부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의 세째부분이것으로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될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 수록 주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였 기에 당신을 위해서 그러한 모든 일을 하셨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 을 읽고 연구하기를 권장 합니다.

다음주에는 9장과 10 장을 공부하겠는데 예수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시기를 이책의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

시편 40:7 “그 때 에 내 가 말 하 기 를 내 가 왔 나 이 다 나 를 가 리 켜 기 록 한 것 이 두 루 마 리 책 에 있 나 이 다”

그래서 와서 그에 대해서 배우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구세주에 대한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게 될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의 손이 항상 당신의 생활에 임하여 당신을 지키시고 강하게 하시며 이번주에도 길을 인도해주시기를 기원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그의 뜻과 그의 목적을 당신의 마음속에 심어주실때에 그의 소원과 계획이 당신의 마음에 소원으로 새겨 주시기를 기원 합니다.

이번주에도 주님 안에서 행하며 그에게 순종하여 그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주간이 되기를 기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히브리 9 장

히브리 8 장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에서 하나님께서 돌비에 기록한 구약과 달리 백성들과 새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사람들의 마음의 심비에 기록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언약을 설정하신다고 하는 것은 새언약을 설립하시기 위해서 첫번 언약은 제쳐 놓는 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을 거행하실때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태복음 26;28)

그래서 구약은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하는 (덮어두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언약을 설치하셨는데 이것은 돌비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의 심비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설립하시기 위해서 첫번 언약을 제쳐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9 장에 계속하여 8 장의 개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율법으로 맺어진 첫언약에 대조하여 새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아래 맺어진 언약을 기억해보시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들이 율법을 행하면 그율법에 의하여 살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첫언약에서는 “만일 네가 나에게 순종하고 모든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언약은 사람의 순종과 사람의 신실 성에 기초를 두고 설립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언약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옛언약은 실패했습니다. 율법이 선하지 않아서 그러한 것도 아니고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서 그런것도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 언약하여 그 율법을 지킬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새언약은 영원토록 설립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히 9:1)

그래서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며 그는 회막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막안에서 제사장에 의하여 하나님을 경배 하였습니다.

히 9:2)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래서 먼저 이회막안에는 천막집이 있는데 길이 45 피터 넓이 30 피터 그리고 높이 15 피터 크기의 장방형모양인 천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천막과 같은 것은 아니고 모퉁이에서 높이가 15 피터 길이가 40 피터 그리고 넓이가 30 피터 되는 천막으로 된 집입니다.

이제 이천막의 내부를 살펴보면 두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그 천막의 동쪽으로 향한 베일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길이 30 피터 그리고 넓이 15 피터의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방의 오른쪽에는 12 개의 진설병이 놓여있는 책상이 있습니다. 그 떡 하나마다 이스라엘의 각족속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방으로 들어가기 전 베일앞 맞은 편에 향단이 있는데 제사장이 들어와서 거기서 향을 피워 올리는 일을 합니다. 이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대표하는 것이며 제사장은 그 향은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봉사하는 입니다.

그첫방의 왼쪽에는 일곱가지가 달린 불이 켜진 금 촛대를 볼수 있습니다. 이가지 끝에는 작은 기름이 담긴 컵이 있고 그속에 심지가 있어 계속 그방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물건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노라 혹은 촛대에서 나오는 일곱가지 마다 각각 컵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7 가지 혹은 성령의 완전한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 향단이 있고 금촛대가있으며 그리고 진설병이 놓인 책상이 있습니다. 여기를 성소라고 부릅니다.

또 들 제 휘 장 뒤에 있는 장 막 을 지 성 소 라 일 권 나 니 9:4 금 향 로 와 사 면 을 금 으 로 짚 언 약 께 가 있 고 그 안 에 만 나 를 담 은 금 항 아 리 와 아 론 의 짝 난 지 팡 이 와 언 약 의 비 석 들 이 있 고 (히 9:3-4)

이 언약궤는 참으로 흥미있는 가구 입니다. 만일 내가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기에 손을 댈것인지아닌지 나는 잘 모르 겠습니다. 그러나 그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광야에서 먹인 만나가 담긴 그릇이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족을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가족으로 택하신 것을 확인 하는 아론의 짚난 지팡이가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하신 두돌판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물건입니다. 이가구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 겠습니까? 이것들이 언약궤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신 언약이 이것에 기초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고 대제사장인 아론의 제사장직의 임무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9:5 그 위 에 속 죄 소 를 덮 는 영 광 의 그 룹 들 이 있 으 니 이 것 들 에 관 하 여 는 이 제 날 날 이 말 할 수 없 노 라

이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룹천사들에 의해 둘러 쌓여 있는 것과 같은 하늘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를

그 위 에 속 죄 소 를 덮 는 영 광 의 그 룹 들 이 있 으 니 이 것 들 에 관 하 여 는 이 제 날 날 이 말 할 수 없 노 라 9:6 이 모든 것을 이 같이 예비 하였 으 니 제 사 장 들 이 향 상 첫 장 막 에 들 어 가 섬 기 는 예 를 행 하 고

제사장들이 매일 첫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행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진설병을 새것으로 바꾸고 매일 촛대의 심지를 짜르고 기름을 컵에 채워 붓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촛불이 그의 앞에서 계속 밝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백성들의 기도를 올리며 그리고 작은 금대접들은 향로를 담는 그릇 들이 었 읍 니다. 그들이 밖에서 희생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불을 피울때 거기서 불타는 솥을 가져다 향이담긴 작은 그릇에 담고 성소로 들어가서 향단 앞에서 쇠줄이 달린 향로 대접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올리는 기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그들이 매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사의숫자와 제사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백명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여러가지 다른 형태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루종일 정규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의 일로 아주 바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스가랴가 아비야의 반렬에 따른 제사장이 었읍니다. 이때가 주님의 제단 앞에 향과 기도를 올리는 직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때였습니다. 제사장은 일년에 한달씩 봉사 합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좋은 일입 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냅니다. 스가랴가 주님의 제단 앞에서 향을 올리고 있을때에 가브리엘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나이가 많은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아 메시아 앞서 가서 그길을 평탄케 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기전 성소에서 하나님을 봉사함에 대해서 조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수 없는 장소 인 것입니다. 그것도 속죄의 날(욘키퍼)에 일년에 한번밖에 들어 갈수 없습니다. 그날이 어제 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회막도 없고 성전도 없으면서 욘키퍼를 속죄의 날에서 반성의 날로 바꾸웠읍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이날 하루만 들어갈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데 이날 두번 들어 갈수 있습니다.

첫번은 자신이 목욕을 하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소를 잡아 희생제사를 드리는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잡은 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는 특수한 예법에 따라 짐승의 피를 시은좌에 뿌립니다. 시은좌 앞에 일곱번 뿌리고 그리고 구석에 놓아 둡니다. 여기서 정규적인 예법을 따라 행합니다.

레위기 16 장을 보면 속죄일에 관한것과 그날에 대제사장이 해야 될일들이 자세이 기록 되어있읍니다.

자신의 죄를 위하여 수송아지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 입고 두염소를 가져다 제비를 뽑고 뽑힌 염소를 죽여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염소는 제사장이 속죄염소로써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두 염소위에 고백하고 한 염소는 죽여 이하루에 대제사장이 두번째로 지성소에 들어 가서 첫번째 제비 뽑힌 염소의 피를 가지고 시은좌에 뿌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고백한 다른 염소는 광야로 보내어 도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보내어

자유롭게 달아나게 하는 것은 죄를 위한 희생을 뜻하며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 한다는 관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죄에서 격리되는 것 즉 염소를 광야에 풀어주어 사라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염소는 죽이고 다른 염소는 광야로 풀어주는것입니다.

“이제 두번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홀로 일년에 한번씩 들어가는데 첫번째는 자신의죄를 위해서 두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없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히 9:8)

회막이 서있는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접근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하나님께 나아 갈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 부터 두터운 베일로 격리 되어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때에 이막이 위에서 부터 아래까지 찢여진 의미 심장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고 있습니다. 이막은 하나님께서 찢어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 부터 위로 찢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실때에 그 베일을 찢어신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 올수 있는 길을 터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 하여 행하신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로 나아갈수 있게 된것입니다.

첫회막이 서있는한 성령께서 지성소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이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수 없나니

9:10 이런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찢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 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9:11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 9:9-12)

대제사장이 매년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매년 행하는일에 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곳에 단번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회막은 단지 하늘것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성전에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피로 희생제사를 드리며 동시에

희생제물도 되신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는 제사를 드렸으며 자신이 제물도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왔다면 그는 당신을 위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쪽 모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제물도 되시고 그의 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도 되십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염 소 와 황 소 의 피 와 밧 암 송 아 지 의 제 로 부 정 한 자 에 게 뿌 려 그 육 체 를 정 결 케 하 여 거 록 케 하 거 든

9:14 하 물 며 영 원 하 신 성 령 으 로 말 미 암 아 흠 없 는 자 기 를 하 나 님 께 드 린 그 리 스 도 의 피 가 어 찌 너 희 양 심 으 로 죽 은 행 실 에 서 깨끗 하게 하 고 살 아 계 신 하 나 님 을 섬 기 게 못 하 겠 느 뇨

(히 9:13-14)

제사장에 의해서 드러지는 희생제사의 약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할 따름이며 매년 그것을 행하는 사실은 우리의 양심에 계속해서 죄책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도 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릴때에 그의 피로 우리를 위한 속죄를 위해 단번에 들어가서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을 하나님께 드릴때에 하나님께서는 못쓰게 된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아주 늙은 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소는 늙어 그만 죽게 되었는데 이소를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을까 생각 끝에 하나님께 드리자 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실로 비극 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쓰지 못할것을 하나 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물건이 좋지 못하여 더이상쓸수 없으니 하나님께나 바치 자”

나는 어떤 농부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그는 어느날 아침식사때에 그의 아내에게 선언하기를 그의 암소가 쌍둥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주 감사해서 그중 한마리는 주님께 드리고 다른 한마리는 내가 갖겠다”라고 선언 했습니다.

그 아내는말하기를”그것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라고 했습니다. 그 소들이 점점자 라서 팔수있는 시간에 이르렀읍니다. 아내가 묻기를 어느소가 주님것이고 어느 소 가 당신것이냐고 물었을때에 그농부는 대답하기를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한마리는 주님의 것 그리고 다른 한마리는 나의 것인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것이 주님의 것이며 또 자기 것이라 결정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것들은 똑같은데 그러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날 아침에 그가 황급히 들어오더니 “아주 나쁜일이 생겼어- 하나님의 소가 죽어 버렸어” 라고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버려진 것을 수락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양을 제물로 바칠때에 점없는 것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흠도 없어야 합니다.

흠은 후천적으로 생긴 것이고 점은 선천 적으로 생긴것이며 유전인자와 관계 됩니다. 양이 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늑대에게 함침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절벽에서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걸려 생긴 것입니다. 양을 하나님께 바치려면 선천적 결핍이나 후천적 결핍인 점도 흠도 없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조상의 유전한 망령된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것이나라”(벧전 1:18-19)

실제로 예수님께 대해서만 점이없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천적인 죄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속에는 선천적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유전인자가 근본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는다는 사실은 아주흥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유전인자가 형성한 피는 하나님께로 부터 직접은 것이며 사람속에 선천적 결핍에 의하여 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없이 순수하게 태어나신것 뿐만 아니라 계속 순결하게 사신 것이기 때문에 흠도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만이 희생양의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우리는 점도있고 점이 없다 할찌라도 우리는 후천적 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위한 희생양이 될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점도 없고 흠이 없어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릴수 있으며 죽은 일로 부터 당신의 양심을 깨끗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봉사할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기의 육신의 일을 하나님께 바치고져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행이도 바로 그러한 일을 오늘날 유대인 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속죄의 날이 었습니다. 죄에대한 희생제물도 없고 제사도 없습니다. 양을 죽이는 일도 없습니다. 염소나 송아지를 죽이는 일도 없습니다.

그들은 집에 앉아 그들의 삶에서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잘한 것들도 생각하여 그들이 기도 할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잘 한것을 생각하여 잘못된 것을 덮어 준다고 생각 합니다.

그들의 잘한일이 잘못된일을 능가할때에 그들은 마음에 위로 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유대인들은지난주 선한일을 많이하기를 애 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한일이 악한일을 능가하므로 어제는 평안한 날이 될것 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러한 죽은 일을 제거하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봉사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를 인 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에 범 한 죄 를 속 하 려 고 죽 으 사 부르 심 을 입 은 자 로 하여 금 영 원 한 기 업 의 약 속 을 얻 게 하 려 하 십 이 니 라(히 9:15)

이제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중보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약에서 중보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잔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나의 피로세운 새 언약이니라” 새언약 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인 첫언약 에서 범 죄 한 우리 의 허물을 구속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자면 영원한 유산의 약속을 받을 것입니다.

12 절로 돌아가서 우리들은 영원한 구속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구속받은 자들은 영원한 유산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유산을 받는 일이얼마나 영광스런 일입니까?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3 "찬 송 하 리 로 다 우 리 주 예 수 그 리 스 도 의 아 버 지 하 나 님 이 그 많 으 신 공 흘 대 로 예 수 그 리 스 도 의 죽 은 자 가 운 데 서 부 활 하 심 으 로 말 미 암 아 우 리 를 거 듭 나 게 하 사 산 소 망 이 있 게 하 시 며

1:4 썩 지 않 고 더 럽 지 않 고 쇠 하 지 아 니 하 는 기 업 을 잇 게 하 시 나 니 곧 너 희 를 위 하 여 하 늘 에 간 직 하 신 것 이 라

1:5 너 희 가 말 세 에 나 타 내 기 로 예 비 하 신 구 원 을 얻 기 위 하 여 믿 음 으 로 말 미 암 아 하 나 님 의 능 력 으 로 보 호 하 심 을 입 었 나 니

이 영원한 기업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의 후사가 된 영광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유 언 은 유 언 한 자 가 죽 어 야 되 나 니

9:17 유 언 은 그 사 람 이 죽 은 후 에 야 견 고 한 즉 유 언 한 자 가 살 았 을 때 에 는 언 제 든 지 효 력 이 없 느 니 라 (9:16-17)

유언한자가 죽기전에는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지못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유언과 유언장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는 내재산이 여차히 분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유언은 유언한 당사자가 죽기까지는 아무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새언약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러나 죽기전에는 그언약이 실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영광스런 언약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러 므 로 첫 언 약 도 피 없 이 세 운 것 이 아 니 니

9:19 모 세 가 율 법 대 로 모 든 계 명 을 온 백 성 에 게 말 한 후 에 송 아 지 와 염 소 의 피 와 밧 물 과 붉 은 양 털 과 우 슬 초 를 취 하 여 그 책 과 온 백 성 에 게 뿌 려

9:20 이 르 되 이 는 하 나 님 이 너 희 에 게 명 하 신 언 약 의 피 라 하 고

9:21 또 한 이 와 같 이 피 로 써 장 막 과 섬 기 는 일 에 쓰 는 모 든 그릇 에 뿌 려 었 느 니 라

9:22 율 법 을 좇 아 거 의 모 든 물 건 이 피 로 써 정 결 케 되 나 니 피 흘 림 이 없 은 즉 사 함 이 없 느 니 라 (9:18-22)

모세가 모든것을 설립하였을때 이얼마나 중요한 선언을 하였는지요, 그가 염소를 죽여 피를 물과 섞어서 사람들에게 뿌리며 책에 뿌리고 그리고 모든 장소에 뿌려 거룩히 구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효력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흘리신 피로 곧 언약의 피로 그효력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피를 통해서 모든 것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로 부터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언약이 효력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피가 그효력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이유 때문에 오늘날 아주 독실한 유대인들과의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실성에 대해서 의문이나 질문이 없습니다. 나는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 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아주 진지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을수있다 는데 동의할수 없습니다. 그 개념은 성경과 아주 상반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개념을 조사해 보면 그들은 아주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병들게하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문제는 죄문 제인 것입니다. 나의 정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것 입니까 ? 성전도 없고 제사 도 없으며 피흘림도 없으 니 그들의 죄가 어떻게 없어 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첫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둘째언 약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리에 대해서 예수님 시대의 때와 같이 사람의 유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교리에 대해서 사람의 유전을 가르친다? 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유전은 너의 착한 행실로서 네죄를 대속 할수있다는 가르침이다. 너의악 보다 선을 더욱 행하면 된다. 그렇게만 하면 아무문제 없다라는 사고 방식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을 수있는 길을 내셨습니다. 그길은 제사인 것입니다.

약 거의 2000 년간 제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 심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후 곧 제사가 끊어지고 다시 시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들림받은 다음에 7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금 일을 시작 하실때에 제사가 다시 시행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사를 다시금 시작 하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7년의 중반기에 매일드리 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 할것이며 라는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보아 짐작 할수있읍 니 다. 그래서 그들은 경배하는 장소를 만들것이며 마지막 7년 기간동안 제사제도를 설립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성취해야 할 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성경적으로 그들의 죄를 없이 할 기초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9:23)

다른 말로 한다면 이땅에 있는 것은 모델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함을 얻는 것이 중요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들은 그자체가 소나 염소나 양보다 더좋은 희생제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 고

그는 이땅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앞에 나타나시고(9:24)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것 같이 자주 자기 를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9:26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고 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
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
나셨느니라

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계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9:28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
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925-28)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들어가셔서 나타 내실 것입니다. 그의 희생제사는 완전한 것이며 그러므로 한번만
드리면 되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단번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나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쳐 드린 것입니다

10 장

10:1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 든 지 온 전 케 할 수 없느니

지금 율법은 단지 앞으로 닥아올 좋은 것의 그림자일 따름입니다. 크리스찬이 레위기와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 유익한 점은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림자인 것 입니다. 예수그리스도를
제물로써 바쳐드리는 것과 예수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으로 역사 하실 일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닌 것 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골로세 2 장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를 도 말 하 시 고 제 하 여
버 리 사 십 자 가 에 못 박 으 시 고

2:15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 내 시 고 십 자 가 로 승 리 하 셧 느 니
라” (골 2:14-15)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 든 지
너 희 를 평 론 하 지 못 하 게 하 라

2:17 이것 들 은 장 래 일 의 그림 자 이 나 몸 은 그 리 스 도 의 것 이 니 라 (골 2:16-
17)

그림자의 실체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이시점에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그림자는 지난 역사를 덮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는 율법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지 그림자에 지나지않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의 오심에 대한 전조인 것입니다.
한번 주님이 오시면 그림자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실체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그의 그림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령 지 아 니 하 면 섬 기 는 자 들 이 단 번 에 정 결 케 되 어 다 시 죄 를 깨 단 는 일
이 없 으 리 니 어 쯤 드 리 는 일 을 그 치 지 아 니 하 셧 으 리 요(10:2)

다시 말해서 모세의 시대에 단번에 정결케 되었다면 날마다 짐승을 잡아 제사드리는 일을 계속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들이 일년에 한번씩 지성소에서 제사드리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어찌드리는 일을그치지아니 하였으리요" (10;2)

10:2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10;2)

지금 이것은 구약 시대 아래있는 것입니다. 만일 정결케하는 일이 효과가 있었다면 한번 정결함을 받았으면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깨끗함을 받는 일이 없음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나 영광스런 사실은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깨끗함을 받으면 우리는 죄책을 더이상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되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말에서 이것은 현재 완전한 현재형 시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죄로 부터 계속 해서 우리를 정결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속 깨끗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런 일입니까?

10:3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10;3)

매년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때 우리의 죄가 기억나고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0:4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당신의 죄를 실제로 없이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코파"라고 부르는데 죄를 덮는 다는 뜻입니다. 히브리말에서 코파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속죄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것이 좋은 번역은 아닌것 같습니다. 죄를 "덮는다"라고 번역했어야 될것입니다.그들의 죄를 덮는것입니다. 제사로 말미암아 단지 그들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10:5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말씀은 시편 40 편 6 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용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란 뜻입니다. 이것이 킹제임스에는 없지만 70 인 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70 인역은그리스도의 탄생전 200 년경에 70 인의 학자가 뭉여 구약을 히브리말에서 헬라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 히브리 말이 그의 죽었을때 었습니다. 그때에 성경학자들만 히브리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히브리 말을 사용 했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은 코인어나 헬라어를 사용했 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말은 성경학자들만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학자들이 평민들이 이해하는 말로된 성경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히브리 말로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70 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70 인역을 읽을때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것은 히브리말로된 구약성경을 70 인의 성경학자들이 헬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전 200 경에 번역한 성경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약에서 인용하듯이 70 인 역에서 인용해보면 “예물과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혹은 하나님은 예물과 제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말씀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한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몸으로 사람을 위하여 완전하고 무험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읍니다.

10:6 전 체 로 번 제 함 과 속 죄 제 는 기 빼 하 지 아 니 하 시 나 니

10:7 이 에 내 가 말 하 기 를 하 나 님 이 여 ! 보 시 읍 소 서 두 루 마 리 책 에 나 를 가 리 켜 기 록 한 것 과 같 이 하 나 님 의 뜻 을 행 하 러 왔 나 이 다 하 시 니 라 (10:6-7)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언이었는데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것과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구약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여러모양의 형태와 그림자의 모든 것과 이책의 모든 내용에 있어서 서로 얽혀 있는 한가닥의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 시킴에 있어서 하나의 계속적인 이야기로 된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예언이나 소망들이나 모든 인물들의표현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번제와 속죄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다섯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제사들은 그목적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귀을 갖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 사귀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땅위에서 하시고져 하시는 목적을 성취하시는데 함께 협조 하는데 있습니다.

이제 죄가 사람과 하나님을 갈라 놓았읍니다. 죄가 사람을 하나님께로 부터 격리케 해 놓았읍니다. 죄많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읍니다.

바울은 아주 부패한 도시에 사는 고린도인 들에게 편지했읍니다. 고린도인이라는 말은 아주 타락한 사람과 동의어로 사용 되었읍니다. 밤마다 수천명의 여자중들이 고린도 위에 위치한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아프로다이트 신전으로 부터 고린도 시내로 내려 옵니다. 이여중들은 다름아닌 창녀들입니다. 여러 수천명의 창녀들이 길거리로 다니며 밤마다 음행을 하는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창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경고하기를 “창기와 합하는 것이 그와 하나가 되는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하나 라면 그리스도로 하여금 창기와 합하는데 참여케 함을 알지 모사느냐” 그는 말하기를 “너희가 그럴수 없느니라 빛과 어두움이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수있느냐?” 바울은 이러한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했읍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만일 당신이 나가서 죄를 짓는다면 당신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을 그기에 동참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 없읍니다. 죄를 지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귀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귀을 갖기전에 죄를 없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언약에서 죄문제를 다루는데 두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속죄제 입니다. 이제사는 일반적인 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둘째제사는 속건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고의적으로 범한 죄에 대한 제사 입니다.

그것은 희생제물도 다른 형태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사귀을 갖기 전에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속죄제와 속건죄를 드린 다음에 번제를 드릴수 있습니다.

여기서 번제와 속죄제를 볼수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성결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로써 나의 생활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음은 소제인데 내가 농사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나의 봉사의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제는 하나님기 사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없어지고 허물도 없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활과 나의 봉사를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앉아 먹는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은혜로써 대접하는 자가 되어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먹으며 우리가 함께 식사하며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같은 양고기를 먹으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러한 사귀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희생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실증이 나셨습니다.

10:8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10:9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것니 그 첫것을 폐하심은 둘째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10:8-9).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우신 첫번 언약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언약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 갈수 없습니다.

항상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겨룰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 저것 들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당신의 수준에서 흥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결코 성취될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갈수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위에 자신을 던지며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수준에 맞추어 하나님께 나아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구약은 무효화되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더효과가 없습니다. 새 언약을 설립함에 있어서 먼저 첫번 언약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둘째 언약을 설치하실 것입니다.

10:10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10:1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화평이시요 나의 의가 되시며 그는 또한 나의 속죄 제물이 되시며 그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중보자시며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갈수도 없고 하나님으로 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망이요 구제 불능입니다.

10:11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들은 아주 바쁩니다. 그들은 속죄제를 하루종일 계속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사람들이 올때에 소제도 계속해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10:12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주님의 제사는 완전 했습니다. 주님은 매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계속 반복해서 십자가에 못박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10:13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0:14 저가 한 제물로 기록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의 한번 드리신 제사로 우리가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10:15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0:16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0:17**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시편 32;1-2)

이말씀에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말은 “아멘” 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 하심을 받은 자는 얼마나 복이 있는 자입니까?

10:18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번 이미 모든 죄용서 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었으면 더이상 죄에대한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나는 주님께서 들어가신 곳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바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 간다는 것은 내가 지성소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와 사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가자”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10:21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10: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10:23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이제 새언약을 살피 보십시오. 미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새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위험한 것은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을 이끌고 제사장에게 와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다시금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의 유전이 얼마나 깊이 그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과소 평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안식이을 지키고 코셔의 음식 규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유전 가운데 뿌리 내려진 한 부분이므로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더이상 유대인이 되지 않을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완전한 유대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여태껏 유대인으로써 행사해온 자신 보다 더 좋은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랍비는 말하기를 유대인이 크리스찬이 될 수 없고 크리스찬이 되면 유대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둘다 동시에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민족의 특수성을 유지하고 보호 하려고 인간 힘을 다하여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신이 그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크리스찬이라고 선언한 자들중에 어떤자들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 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바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있어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금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분은 미쁘시기 때문 입니다.

10: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우리들이 뭉일때에 서로 사랑하며 선한일에 서로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10: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 사랑과 선한 일들을 권장해야 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이 가까워 질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왕을 반역하는 무리들을 정복시키고 그 왕비를 대려다 재판관을 하여 그도시의 밖에 있는 호랑이 소굴에다 던져 넣기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나무를 베고 호랑이 소굴을 만들어 놓고 그소굴 가운데다 기둥을 세워 사형수들을 그 기둥에 묶어 놓는 것입니다.

밤에 호랑이 들이 사람의 고기 냄새를 맡고 그곳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잡아 먹는 것입니다. 사형날자가 이르렀을때에 그여인을 숲으로 데려가서 호랑이 소굴 가운데 있는 기둥에다 묶어 놓고 밤에 그여인의 운명에 맡겨 놓았던 것입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 질때에 그여인은 그여인의 머리 위에서 자갈을 밟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여인이 위를 쳐다 보았더니 호랑이가 아닌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사람은 호랑이 소굴로 뛰어내렸읍니다, 그여자가 보았더니 자기가 배반한 자기 남편인 왕자였음을 깨달았읍니다. 그여인은 그를 향하여 성난 목소리로 “당신이 내가 처참이 죽는 꼴을 보고 조롱하러 왔구나“ 라고 소리 질렀을때에 그왕자의 대답이 ‘아니요 내가 항상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증명하러 왔소 당신은 결코 그것을 이해 못할 것이요” 라고 대답했읍니다. 그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때에 위에서 또 자갈 소리가 나서 보니 이번에는 사람 고기 냄새를 맡고 사람을 잡아 먹으려고 한마리의 호랑이가 내려 오고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그주위를 빙빙 돌다가 호랑이 소굴인 마른 웅덩이로 뛰어 내려 와 서 왕비에게 달려들지 않고 왕자에게 뛰어 내렸읍니다. 이왕자는 칼을 뽑아 밤새 도록 호랑이와 싸웠읍니다. 이왕후는 드디어 마지막의 숨을 거두는 소리를 듣고 계속 피방울만 떨어지는 것을 보았읍니다.

날이 밝은 후 사람들이 왕후의 시체를 묘에 묻어려고 와 보았더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읍니다. 죄수인 왕후는 아무 탈이 없이 호랑이 소굴의 마른 웅덩이 가운데 있는 기둥에 그대로 묶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 피투성이가 되어 그의 죽게된 사랑하는 그들의 왕자를 보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죽은 호랑이가 누워 있었읍니다.

그들은 왕자를 급히 옮겨 그왕국의 가장 훌륭한 의사에게 맡겨 치료케 하였읍니다. 그왕자는 삼일동안 사경을 헤매고 있었읍니다. 왕자의 병의사태를 시시각각 계시판에 붙여 백성들에게 알렸읍니다. 그왕자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안간 힘을 다 하였읍니다. 드디어 삼일째 그왕자는 위기를 모면 하고 다시 생명을 되찾는다는 희소식을 전해 왔읍니다. 그왕국이 모든 백성들은 기뻐 했읍니다

그동안 이왕후는 법정의 판결대로 처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후를 강금하여 두고 다시금 재판에 부치게 되었읍니다. 그여인을 다시금 재판석에 끌어내여 판결을 언도하는 선언을 하려고 했읍니다. 이 왕후에 대한 판결을 듣기 위해서 그왕국의 모든 백성들이 큰 광장에 모여 들었읍니다. 그 판결의 언도를 선언 하기 위해서 낭독자가 “대법원의 판결문을 들어시요” 라고 외쳤읍니다.

그때에 그 낭독자가 왕후를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오른쪽 문이 있는데 그문 뒤에는 당신이 배신한 당신의 남편인 왕자가 서있고 당신의 왼편에 있는 문뒤에는 여러마리의 호랑이가 있소 오늘 오후 5시까지 당신이 이제부터는 신실한 헌신된 아내로써 살겠다는 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선언하고 당신 남편이 있는 오른쪽 문 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왼편에 있는 문으로 들어 가야 하는데 그기는 왕자가 당신을 살리려 자기목숨을 그의 잃어버릴듯 했던 죽음이기다리고 있소 이번에는 탈 출할 소망이 전혀 없소”라고 선언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는데 어느쪽 편의 문을 택할 것인가?

Tape #C2301

척 스미스

히브리 11 장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믿음이 어떠한 것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새번역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물질화한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란 말에서 “증거”란 말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신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록 보지 못한다 할찌라도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란 뜻입니다. 나는 그것들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 할찌라도 그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나의 마음속에 믿음을 창조 합니다.

오늘 아침 지적인 바와 같이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본적도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보지 못하지만 바람을 믿습니다. 우리는 바람으로 인한 결과를 봅니다. 우리는 바람의 힘에 의해서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잎이 흔들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지가 바람에 의해서 날라 다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의 증거를 봅니다.

우리는 바람을느낄수도 있습니다. 우리는말하기를 “오 출구나 싸늘한 바람이 몹씨 불구나” 또 말하기를 “오 그것은 산타 아나 바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바람을느낍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의 증거를 확신합니다.그리하여 우리가 바람을 보지못한다 할찌라도 우리는 바람이 존재 함을 믿습니다.

전자력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전혀 본적이없습니다. 내가 상반되는 양극을 함께 놓았을때 서로 끄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력과 전자계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결코 본적이없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의 효과를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의 확실한 증거를 봅니다. 나는 그의 임재를 느끼며 그의 능력을 느낍니다. 나는 그의 사랑을 느끼며 그의 존재의 증거를 봅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을 결코 본적은 없으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의 증거가 우리 주위를 온통 둘러 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물질화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11: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라

지금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시작할때... 그것 들어가기 전에 천지창조 부터 시작합니다.

1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특히 과학적인 견지에서 볼때에 아주 흥미 진진 한 진술 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또 말씀 하시기를 “물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또 말씀 하기를 “땅은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을 존재 하도록 명 하시때 우리가 보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들로 부터 창조 되었습니다.

예로써 실제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나 아니면 믿음의 증거나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취하셔서 보이는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물질화 하신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나 세상이 보이지 않는 원자로 구성된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물체가 우리가 볼수 없는 원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타나 있어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로 부터 창조된 것입니다. 환상적인 진술입니다.

지금 그는 구약성경으로 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기 시작 합니다. 그는 그들을 연대적 순위로 나열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로써 다윗과 사무엘 까지 나열하고 나서 그리고 연대적 순위를 역으로 나열하기도 합니다.

첫번 나타난 믿음의 위인은 아벨이었습니다

11: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 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다른 말로 한다면 예를 들어 아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농부인 가인은 농부로서 그가 농사지은 땅에서 난 열매를 주님께 가져 왔습니다.

반면 아벨은 목동으로써 양을 제물로 가져 왔습니다.

그들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때 주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는 지는 알수가 없으나 가인이 그의 제사가 거절 되었고 아벨의 제사가 수락 된것을 보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거절 하시신데 대해서 성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 하시기를 “너의 제사가 거절됨에 대해서 왜 성을 내느냐?”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제사가 거절 되었으면 죄가 그문턱에 있지 않겠느냐?” 근본적으로 옳바르게 제사했다면 영접되었을 것인데 네 이마음이 옳바르면 왜 거절했겠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고 가인은 땅에서 난 과실을 제사 했기때문이라 주장하는 자도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피의 제물이였기 때문이라고 암시합니다. 거절된 가인의 제사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일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바쳤기 때문에 거절 되었다고 암시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론들로 구구합니다 마는 히브리 주석의 말씀을 보면 하나는 거절 되고 다른 하나는 영접된 이유는 하나는 믿음 으로 제사 했고 다른 하나는 믿음 없이 단지 사람의 손의 일로 제사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제사드리는 자들이 있고 자기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어 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 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흥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설정 하실때에 하나님께 열납되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제사는 그들이 농사한 곡물을 가루로 빻아서 전병을 만들고 굽기도 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는것입니다. 이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봉사의 성

별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소제라고 불리우는데 이제사는 아주 완전한 적법한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화목제사와 같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표현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품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가지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 하실수 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죄문제를 해결하라고하십니다.

산상 보훈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하나님의 제단앞에 나올때에 다른 형제와 꺼리끼는 일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하고 그다음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마태 5;23-24)

많은 때에 사람들은 정도로 가지 않고 가로질러 가서 하나님과 사귀려 합니다.

먼저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통이나 사귀는 것 전에 죄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이 죄문제를 다루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너의 제사가 열납되지 못함은 네죄가 네 짐문턱에 있느니라 네 죄문제를먼저 해결하고 와서 너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제사는 열납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의로움의 증거였습니다.

인류 역사 초기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증거하셨습니다.

11: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얼마나 위대한 증거 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 인 것입니다.

계시록 4 장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있는 그룹천사들이 하나님의거룩하심과 영원하심을 선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24 장노들이 보좌앞에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그들의 면류관을 유리 바다 위에 던지며 말하기를 “우리구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기쁨을 위하여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계시록 4;11)라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본적 목적은...당신의하나님의기쁨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읍니다. 자신의기쁨을위해서 사는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이탈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그 쾌락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어떤것 좀더 흥분되는 다른것들을 항상 끝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1:6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11:6 상)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로 부터 의롭다 함을 얻었으며 그의 제사가 열납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며 옮기기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을가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읍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11:6 하)

그래서 당신은 먼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를 부지런히 찾는자에게 상주시는자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의 예로서는 노아 입니다.

11: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은...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노아 까지는 지구에 비가 내린적이 없었습니다. 땅은 저녁 마다 땅에서 올라 오는 안개로 적셨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가운데 두시고 물을 아래위로 나누셨기 때문에 땅에 수분이 가득하여 습도가 높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질학 발굴의 조사를 보면 그때 당시의 아스파라가스 같은 채소의 높이가 70 내지 80 피트까지 자란것을 볼수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900 살 정도가되며 세포의 변이와 파괴를 일으키며 노화를 유발하는 우주로 부터 오는 방사선을 막는 수기층이 있어던 것입니다.

홍수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었고 초목과 나무가 크게 자랐으며 그들은 이전에 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땅에 40 주야 비를 내리 겠다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홍수가 곧 올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희롱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100년에 걸쳐 노아는 비를 결코 알지도 못한 지역에 거대한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의로운 설교자...

11: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다시금 십일장에서의 전체적인 사상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행함이 아닙니다. 행함은 자동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음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은 믿음을 만들어 낼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대치 할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일합니다. 내가 믿는 바를 그대로 닳아 가는 생활이 없이 양심적으로 내가 믿는다고 말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의 생활에 믿는바를 닳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먼저 와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위한 나의 행함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책망 하였습니다. 그는 의의 상속자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11: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한번에 한걸음씩 인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한번에 할것음씩 인도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라 하신 다면 나에게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두걸음 세걸음 혹은 네걸음. 나는 하나님이 전체적인 계획을 나에게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의 전 계획을 알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원치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집사에게 “사막지역인 가사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는 이지역에서 아주 큰 부흥집회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고작 그말씀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믿고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있는 중인데 주께서 이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버리고 아무도 없는 사막지역인 가사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빌립은 순종하여 가사로 갔습니다. 그다음 둘째 걸음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가라”고하십니다. “어디 말씀입니까?” “가사로”라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한 말씀만 주셨습니다. “이땅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 서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여보시오 어디가십니까?” 누가물으면 “모르겠소” 당신이 온가족을 이끌고 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단 말이요?”

“예 모릅니다” “만일 당신이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하면 당신이 그곳에 도착했을때 어떻게알아요?”라고 물으면 “오 그분이 말해 주시겠지요”라고 말할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유업을 함께 받을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때에 순종하여 갈바를 알지 못하나 그는 떠났던 것입니다.”

11:9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것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가 여기 이땅에 왔을때에 그는 베엘 그땅의 중심 지역의 높은 곳에서 사방을 바라볼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북쪽과 동쪽과 남쪽과 서쪽을

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네게 주리라 아브라함아 내가 이땅을 네게 주고 네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리라 이것은 너의 것이니라”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땅을 두루 다녀 여행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내려 갔다가 세겜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국 사람이였고 여행자에 불과 했습니다. 그는 천막에서 살았고 도시를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막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모든 땅이 자기의것임에도 외국사람으로써 그곳에 거했던 것입니다

11:10 이는하나님의경영하시고지으실터가있는성을바랐음이라

11:11 믿음으로사라자신도나이늙어단산하였으나잉태하는힘을얻었으니이는약속하신이를미쁘신줄알이라

큰 믿음을 가진 위인들에 대해서 읽을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역사의 한 장면을 이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라의 장면이 나올때는 그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먼저 그의 나이가 나옵니다. (90 세이상) 이 나이에 이르기 까지 아이를 가져 본적이 없었습니다.

사라는 나이 많아 출산기가 지난대도 불구하고 임신할 능력을 받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신도 기억 하다시피 사라의 믿음은 항상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읽어 볼때에 많은 경우에 우리의 범주에서 벗어난 특별한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을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초인간적 성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그들의 경지에 들어 갈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내가 이스마일도 축복하여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사라를 통하여 너의 아들을 낳으리라”(창 17;18-21).

사라가 천막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도청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네아들을 낳겠다 ”라고 말씀하셨을때 사라는 웃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을수 없는 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왜 사라가 웃느냐?” 사라가 대답하기를 “웃지 않았습니다(창 18;13-15).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태어 났을때 그이름을 웃는자 곧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이삭은 웃는자란 뜻입니다. 사라가 노년에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너무도 믿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여 웃었던 것입니다.

11:12 이러므로 죽은자와방불한한사람으로말미암아 하늘에허다한별과또해변의무수한모래와같이많이생육하였느니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태어 났습니다.

11: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잠깐만! 믿음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까? 충분한 믿음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충분한 믿음을 가지면 결코 아프지도 않고 충분한 믿음을 가지면 무슨 차던지 가질수 있고 무슨 집이든지 소유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믿음의 멧세지” 가 아직 그들에게 도달하지 않았 습니다.

11: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야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약속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는 외국인 과 나그네 로 증거 하였 으니 (11:13 하)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적절한 태도를 가졌고 삶에 대한 적절한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이땅에서는 다만 외국인이요 순례자에 불가 합니다. 나는 천막에 사는 것으로 만족 합니다. 이것은 나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원한 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약속이 주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기초를 세우시고 지으신 집이 있는 그도시를 바라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며 고백하기를 “여기는 내가살 영원한 곳이 아니다 이곳을 지나 갈따름이다. 나는 이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자이다. 나는 하늘나라에 속하며 하늘나라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보았습니다. 약속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믿고 간직하고 있으므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단지 행인이요 순례 자에 불가 합니다.

11:14 이 같이 말 하는 자 들 은 본 향 찾는 것을 나타 냄 이 라

11:15 저 희 가 나 온 바 본 향 을 생 각 하였 으 면 돌 아 갈 기 회 가 있 었 으 려 니 와

그들이 하란에 도착했을때 돌아서 바벨론으로 다시 갈수도 있었습니다. 항상 되돌아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 여행길을 계속했습니다.

11:16 저 희 가 이 제 는 더 나 은 본 향 을 사 모 하 니 곧 하늘 에 있는 것 이 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 희 하나님 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 하시고 저 희 를 위 하여 한 성 을 예비 하 셨 느 니 라

이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하지 않으셨다. 이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에 대해서 부끄러워 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에 대해 수궁이 갑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부끄러워 하시는 일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든때가 있었을가 두렵습니다. 사람의 예로 “오 저사람이 하나님의 종 목사 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위치가 부끄러운 것이 될가 두렵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여호와께 바쳐드리는 이야기에 있어서 아주 좋은 깨달음을 보여 줍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편지할때에 말하기를 “고전 15:1 형 제 들 아 ! 내 가 너 희 에 게 전 한 복 음 을 너 희 로 알 게 하 노 니 이 는 너 희 가 받 은 것 이 요 또 그 가 운 데 선 것 이 라
15:2 너 희 가 만 일 나 의 전 한 그 말 을 굳 게 지 키 고 헛 되 이 믿 지 아 니 하 였 으 면 이 로 말 미 암 아 구 원 을 얻 으 리 라
15:3 내 가 받 은 것 을 먼 저 너 희 에 게 전 하 였 노 니 이 는 성 경 대 로 그 리 스 도 께 서 우 리 죄 를 위 하 여 죽 으 시 고
15:4 장 사 지 낸 바 되 었 다 가 성 경 대 로 사 흘 만 에 다 시 살 아 나 사
(고린도전서 15:2-4)

여기서 저자는 물론 구약성경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 장에서 “범죄자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시편 22 장 14 절에 보면 “나는 죽음으로 물같이 쏟아졌으며” 우리는 성경이 그가 장사되며 그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하였다는 예언한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어디에 그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예언이 있는가?

요나에서 찾아 볼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요 나 가 밤 낮 사 흘 을 큰 물 고 기 뱃 속 에 있 었 던 것 같 이 인 자 도 밤 낮 사 흘 을 땅 속 에 있 으 리 라” (마태복음 12:40)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어느곳에 사흘후에 부활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여기 있나이다” 창 22:2 여 호 와 께 서 가 라 사 대 네 아 들 네 사 랑 하 는 독 자 이 삭 을 데 리 고 모 리 아 땅 으 로 가 서 내 가 네 게 지 시 하 는 한 산 거 기 서 그 를 번 제 로 드 리 라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부분을 꼬집어서 성경과 하나님을 아주 경멸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시길레 한 사람에게 그의 아들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 하였는 가?”

그들은 다만 이사건의 이야기를 저주스런 측면에서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혼돈하여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러한 일을 요구 하셨는가 비웃고 있습니다.

“너의 아들 독자를 취하여” 하나님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삭만이 그의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하갈을 통해서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는 이삭보다 13 세살이나 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하실때는 “네씨로 불리우는 이삭을 통해서”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일을 인정치 않았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약속의 아들인 이삭만 인정 하십니다.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그림책을 통해서 이삭이 8 세에서 10 세에 이르는 소년인것으로 상상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8 세된 아브라함이 8 세된 소년을 이끌고 모리아 산에가서 하나님께 제사를드리는 것으로 상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아끼는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데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느냐?

이때는 아마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25 세 쯤 되었을 것입니다. 이삭도 이끌려 가는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때쯤의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20 대 후반이 었을 것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도 125 세 쯤된 것으로 짐작 됩니다.

이삭은 그의 젊음의 첨단에 이른 나이 이기때문에 그의 늙은 아버지를 쉽게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만 하시지요 뭣하십니까?”라고 할수 있었으나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자진해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삼일간 헤브론으로 부터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사흘동안의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의 아들은 이미 자기에게는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는 장소에서 그에게 그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칠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일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을 보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환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나와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 리고 다시 올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문법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일이 있는데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라는 말을 계속해서 일부러 반복하는 형태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움직임 그리고 계속적으로 고의적인 행동의 어법이 있습니다. “나와 아이는 (will go)가서 (will worship) 하나님을 경배하고(will come again) 다시 돌아 올것이다. 그는 이삭이 나와 함께 다시돌아 올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이삭을 통해서 네자손이 태어날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아직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시려면 이삭이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직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나라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네자식이 태어나리 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아이를 다시 살릴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삭이 너의 씨라 불리 우리라”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야 합니다. 죽은자를 살리시는 일 아니면 무엇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이 아이는 다시 올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지금 모리아 산으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말하기를 “아버지 여기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무엇을 잊어버리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아들아 주께서 자신을 제물로 준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창 22:7-8) 흥미있는 예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제물로 준비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모리아 산에 왔을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어 제단위에 놓았습니다 칼을 들어 죽이려 할때에 하나님께서 중지시켰습니다.

22: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22:11 여호와 의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22:12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 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22: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 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창 22: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제 “너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취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삭은 삼일 밤낮 동안 죽은것 같이 예수께서도 그의 부활전에 삼일삼야를 음부에서 지나셨습니다.

흥미있는 일입니다. 우연의 일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친 곳이며 2000 년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준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세상과 자신과의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 만일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주석이 없었더라면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요구에 혼돈할뻔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경험을 기쁨으로 감수 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필요 하다면 죽은 이사를 다시 살릴수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를 통해서 그 후손이 나리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라도 살릴수있는 능력이 있음을 생각할때 “그때부터 그를 한
특별한 인물로 받아 드립니다” 다시말해서 그는 불가능한 아이 였습니다. 그의 기적의
아이였습니다. 그의 출생도 자연 출산의 가능성을 훨씬 넘은 경우 입니다. 그는 죽은
자로 부터 얻은 아들입니다. 처음부터 기적으로 시작한 아이 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를 출생케 하셨습니다.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때까지
기적으로 유지해오셨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11:20 믿음으로 이사는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
하였으며

11:21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
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 하였으며

11:22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 하였으며

그래서 가족의 족보를 따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사에게 전해지고
믿음으로 두아들인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될일에
대해서 예언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그의 아들들 곧 요셉의 두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
였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요셉은 애굽에서 큰권능과 능력을 가졌으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 그 땅 을
차지해야 할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애굽이 영원히 거할곳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로 하여금
약속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갈때에 애굽에서 나의
뼈를 가지고 그땅으로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그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 자기들의 땅이 될것을 알았습니
다.

그래서 요셉이 죽은후 약 300 년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갈때에 요셉의 마미(시체)를 메고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서 그땅에서 장사 를
지냈습니다.

11:23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에

이제 몇백년 전으로 앞당겨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시
위아니하였으며

바로왕이 모든 히브리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바로왕은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수가
증다하여 애굽 나라에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급속히 번식하여 그수가 애굽인들 보다 많아지고 강하게 됨으로
애굽인들을 능가하여 미래에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의 종이 될 가능성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히브리인들의 남자영아 들을 모조리 나일강에 던지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의 부모가 그를 숨겼습니다. 왕의 명령을 불순종
했습니다. 부모들이 불때에 그 아이가 너무나 아름다웠고 또한 왕의 명령을 두려
워하지 않았습니 다

11:24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
절 하고

이때에 모세의 나이가 약 40 세가량 되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으며 애굽의 학교에서 모든 학문과 과학을 통달한
사람이었으며 바로왕의 딸의 양자가 되어 왕이 될수있는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포기 했습니다.

11:24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
함을 거절 하고

11:25 도리어 하나님을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간 죄악의 낙을 누리
는 것보다 더 좋아 하고

모세는 아주 흥미있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인 공주의 아들로써 평생을 죄악 가운데서 잠간 즐길수있는 기회
가 있었습니다. 그는 120년인 란 세월을 살았지만 지금 3700년이 지난 기간 을
생각하면 아주 짧은 기간 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기 를 잠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보다
더 좋은 것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모세는 죄악의낙을 누리는 것이 오래가지 않음
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 보십시오 육신적인 쾌락이나 흥분이 있긴 하지만
오래가지 않고 실증이 곧 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현명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11:2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한편으로는 바로의 딸로써 왕궁의 모든 영화와 애굽의 모든 부를 분토와 같이 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더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점이 있고 또한 영원히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잠깐 있는 현재보다 영원한 것을 취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영원한 것을 취할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장 가시적이고 일시적으로 흥분적인 이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길의 마지막이 어디로 인도되는 것을 볼수있고 찾아갈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믿음으로 이세상의 일시적인 안일 과 영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능욕을 선택 하였으며 또한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부로 여겼으니

“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11:26)

그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대한 영원한 상을 바라 보았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에 대한 상주심이 육신을 쫓아 일시적인 향락을 누림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견인의 비결은 하나님을 볼수있고 그의 역사를 볼수있고 그의 손을 볼수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나는 역경중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을 볼수있고 내가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수 있을때에 내가 견딜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여 질때에 나는 하나님께 “왜 하나님?” 이라고 질문하기 시작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자 곧 그뜻대로 부르심을 입은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깨닫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볼수있을때에 나는 견딜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다” 라고 말할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수있을때 견딜 수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을 믿을때에 하나님을 볼수있습니다.

11:28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뿌리는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애굽인들에게 내린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가정마다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내가 이밤에 애굽땅에 두루 다니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년된 양을 잡아 취하여 죽이고 그피를 그릇에 담아 피를 우슬초로 짙어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와 인방에 뿌리는 것은 아 주 흥미로운 일인데 그것을 그렇게 뿌리 다 보면 십자가를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밤 그땅을 칠때에 그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내가 그피를 볼 때에 그집을 지나가며 장자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집을 위하여 희생된 양은 장자를 보존 하기위한 대속의 양입니다. 장자 대신에 어린양이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대속의 죽음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죽을 자리에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대신 대속의 죽음을 하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11:28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11:29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미리 앞당겨 본다면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 었읍니다

11:30 믿음으로 칠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시에 라합이라 이름하는 한여인이 살았읍니다 이여인의 집에 여호수가 보낸 스파이가 들어 왔을때에 그들을 쫓는 여리고 사람으로 부터 숨겨서 그들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11:31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저자는 말하기를

11:32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도 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밋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 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에 사사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 하였는데 이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로 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이스라엘의 사사들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제 다윗으로 넘어 갑니다.(11:32)

여기서 다윗은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고 단지 그의 이름만 명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서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사무엘(11:32)

내가 말했듯이 이곳만이 년대적으로 그 이름들이 기록되지 않았읍니다.
사무엘이 다윗 다음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만이 연대적 나열에서 벗어난 것입
니다.

저자는 아마 그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현출 한 삶을 살았던 구약성경의 인물들을 기록
하기 시작한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들이 믿음으로 무슨일을 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33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11:34 불의 세력을 떨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11:35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
며(11:33-35)

이것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첫번 부분입니다. 첫부분은 아주 강하고
그들의 믿음에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떨하기도 하며 연약한자가 강하게도 되며 전쟁에서 용맹되어 이방사람을 물리치 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패배도 맞보고 용기도 저하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항 상 고침을
받고 항상 승리하고 항상 고급차인 마즈라티를 타며 결코 문제를 경험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나열한 말씀들을 읽어보면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 며

그들의 믿음은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견고해집니다. 원수를
대적할때 승리 합니다. 이방인들을 물리쳤읍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극심한 핍박도 받았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들을
항상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나를 여기서 꼭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오늘날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 입니다.

이것은 나열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첫번 부분만을믿고 둘째부분을 무시한 자들
입니다. 현실은 그들의 주장과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들은 악형을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았읍니다.

구들은 악형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목베임을 당하였고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악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저주의 부활보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더 좋게 여겨 악형을 구차히 면하려하지 않았으며 영원한 생명의 더좋은 부활을 얻고져 했던 것입니다.

11:36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11:37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우리는 놀라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한 말씀들에 대해서 그의 계시를 심히 즐겼
읽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은 이사야의 몸을 톱으로 두토막으로 잘랐던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고 영적인 통찰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11:37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11:38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
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진술입니까!

이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로 그들이 감당한 일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항상 적군에 대한 승리를 항상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믿음은 삶에 있어서 어떠한 긴급한 일이라 할찌라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이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이러한 인내를 가지며 견디는 질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을 물리치고 승리의 최첨단에 이르게하는 믿음도 좋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렵고 괴로운 시험을 당할때 에 인내 할수있는 믿음을 갖는데 도 역시
흥미가 있습니다

11:38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26 □

□ □

□ □ □ □ □ □ □'

16:27 □ □ □ ` □

□ □ □ □ □ □

16:28 □

□ □ □ □ □ □ □ □ □ □ □ □ □ □

16:29 □ □ □ □ □ □ □ □ □ ` □

□ □ □ □ □ □ □ □ □ □'

16:30 □ □ □ ` □

□ □'

16:31 □ □ □ ` □

□ □

□ □ □ □ □ □

예수께서돌아가시기 전에 지옥에 두부분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위로는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는자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간 자들이죽으면 음부의 두부분중에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염려말라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약속한데로 그의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구세주를 보내실 것이다. 우리를 여기서 데리고 가실 것이다”

이사야 61 장에 보면 예수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 하셨습니다. “여호와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부으사 가나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자를 위로하되”

또 주님께서말씀하시기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자에게 놓임을”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때에 베드로에 의하면 주님은 음부로 내려 가서서 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가 옥에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문을 열어 놓임을 주셨으며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마태복음 27 장에 보면 예수님의부활후에 많은 성도들의 무덤이 열려 예루살렘 거리 로 다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위로 올라 가실때에 포로된 자들을 이끌고
가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올라 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위로
올라 가실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
그는 이부분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음부의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있는 곳을 비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약속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었을때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들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약속을 지킬것이며 그의하신 말씀에 미쁘신 자이심을
믿는자들이 위로를 받고 있었읍니다.

그는 갇힌 자들에게 구원을 선언 하셨습니다.

“내가 이루웠노라 이제 모든 죄는 없이 되고 희생을 완성 하였노라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하겠노라” 라고 하시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옥문을 열고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이끌고 올라 가셨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3 □
□ □ □ □ □ □ □ □ □ □ □ □

1:24 □

히브리 12 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12:1 이 러 므 로 우 리 에 게 구 름 같 이 둘 러 썬 허 다 한 증 인 들 이 있 으 니 모 든 무 거 운 것 과 엮 매 이 기 쉬 운 죄 를 벗 어 버 리 고 인 내 로 썬 우 리 앞 에 당 한 경 주 를 경 주 하 며

이말씀은 11 장에서 언급한 구약성도들이 하늘에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말씀은 또한 이땅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행동하나를 관망하고 있는 구약성도들의 무리들이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말씀의 뜻은 구약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성취한 일들이 우리의 생활에서 믿음으로 살아갈때에 믿음이 어떠한 일을 할수있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때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의 생활로써 우리들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로써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볼수있습니다.

12:1 이 러 므 로 우 리 에 게 구 름 같 이 둘 러 썬 허 다 한 증 인 들 이 있 으 니 모 든 무 거 운 것 과 엮 매 이 기 쉬 운 죄 를 벗 어 버 리 고 인 내 로 썬 우 리 앞 에 당 한 경 주 를 경 주 하 며

12:2 믿 음 의 주 요 또 은 전 케 하 시 는 이 인 예 수 를 바 라 보 자 저 는 그 앞 에 있 는 즐 거 움 을 위 하 여 십 자 가 를 참 으 사 부 끄 러 움 을 개 의 치 아 니 하 시 터 니 하 나 님 보 좌 우 편 에 앉 으 셨 느 니 라

그래서 그들의 생활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중의 가장 좋은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많은 곳에 나타나 있듯이 이땅위의 생활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4:7 내가 선 한 싸 움 을 싸 우 고 나 의 달 려 갈 길 을 마 치 고 믿 음 을 지 켜 으 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주를 다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경주하나 상받는 자는 한사람밖에 없으니 그상을 받도록 열심히 경주하라” 했습니다. 다시말해서 전력을 다하여 경주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그림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앞에 놓여져있는 경주를 인내로써 경주하자 라는 뜻입니다.

헬라말을 보면 흥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라본다는 말이 헬라말에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슬적쳐다본다는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연구한다는 뜻이있고 또 하나는 바라보고 숙고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특수한 헬라 말을 여기에서만 사용했습니다. 신약성경의 어느 다른곳에도 이러한 말을 사용하지 않았읍니다.

이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경이와 찬사로써 주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찬 예수를 주시 하나다는 뜻입니다.

그는 믿음의 처음이요 나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그은혜를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 장에 바울은 성령의 은사로써 믿음을 나열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는 또한 믿음의 마지막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 하노라”(빌 1:6)

나는 확신 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이가 우리의 생활에서 그의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그는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작하시고 그가 끝을 내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창조요 그리고 우리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도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처음도 되시고 마침도 되시는 것입니다.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경주할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인 것입니다. 경주할때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쉬운 삶을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세상에서는너 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 16:33)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크리스찬의 특징을 말씀하신 후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 5:11) 누구에게 복이 있단 말입니까? 화평케하는자, 자비를 매꾸는자, 선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왜내하면 크리스찬인 여러분들은 이세상에서 외인들이니까요

당신이 예수님과 동행할때에 세상과는 관계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위협이되고 그들고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하며 그들은 더러운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에 가책이 없이 계속 더러운 일을 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더러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에 대해서 혐오를 느낍니다.

세상사람들이 더러운 농담을 할때에 그것에 장단을 맞추어서 크게 같이 폭소를 하는 대신에 당신은 “오 그것은 더러운 일이 구먼” 이라고 말할때에 그들은 그러한 말을 싫어하여 당장에 예수쟁이라고 욕을 하며 핍박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마태 5:11)

그리스도는 우리의 표본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어떻게 하였난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앞에 있는 기쁨을 보라보고..”라고 했습니다.

경주함에 있어서 이긴자 받는 대가는 승자에게 오는 영광과 보상인데 그것은 승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우리의 죄로인한 사망을 이기시고 죄에서 자유케하시며 죄를 용서해주시고 길잃은 우리들을 구속하여 영생을 주실수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40:8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시편 40:8)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알고 행할때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했을때의 기쁨은 말할수 없이 큰 것입니다.

나의 생활이 하나님의 영원하신계획과 일치 할때 입니다.

그의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의무로 지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아니하고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12:2)

사실은 십자가는 그에게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때에 할수만 있으면 다른 길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조금나아가사 얼굴을 땅에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마태 29:39)

만일사람이 종교적으로 구원얻는 길이 있다면 선한일을 하거나 신실하거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수 있다면 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나 예수님을 그잔을 마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12:하)

예수님은 십자가를 승리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12: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일”

여기에 그의 생활에서 사랑과 선을 나타낸 한 사람이있습니다.

하루는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에 그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치려하느냐?’”(요한 10:32)

내가 많은 선한 일을 하였다. 눈먼 자를 고치고 앓은뱅이르 걷게하고 죽은자를 살리는 일을 했는데 무슨일로 나를 돌려 치려느냐?라고했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그러한 일때문이야니고... 네가 사람이 되어 항상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돌로 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두루다니시며 많은 선한일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악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기에 선한일 외에는 한일이 없는 사람을 가장 악한 행동을 한사람 가운데 하나로 희생된 것입니다.

여기에 삶의 최고의 가치로써 사랑을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가장 중요하는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으며 사람의 독소를 모두 받으신 분입니다.

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죄인들의 거역인지요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경주를 할때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주를 할때에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닥아 오면 우리는 피곤하여 힘이빠질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핍박을 당할때에 피곤해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한쪽뺨을 치면우리도 같이 그사람의 뺨을 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주님께 행한 일에 대해서 주님이 그의 행하신 정반대의 일을 생각해보라

12: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 게 거역한 일 을 참 으 신 자 를 생 각 하 라

12:4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 하고

여기에 예수님께서서 죄와 싸우기를 그의 피를 흘리기 까지 대항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읍니다.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운데 순교한자는 아무도 없읍니다

아마 말로써 핍박을 당한자가 있거나실제로 육체적으로 핍박을 경험한자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중에 가족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육체적인 핍박을 경험한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예수님께서서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훈계시키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할때에 우리가 바른길로 가도록 훈계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지 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을때에 부모가 훈계를 합니다 그때에 그들은 부모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훈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계는 우리를 좋게 하기위함과 유익을 위해서 하십니다

많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된 위치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주일학교 시절에 가졌던 생각이 다시 되살아 나서 나타난 현상이라 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나쁜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경고 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 됩니다.

만일 네가 나쁜짓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네가 나쁜짓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신다. 우리의 나쁜것은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를 좋아 하신다.

나의 어린 손자의 경우와 같이 그손자가 집에 와서 말하기를 “아빠 하나님이 나를 보고계시나요?”라고 물었다. 아빠는 묻기를 “왜그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왜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했느냐?”물었더니 “내가 나쁜일을 했거던요 그게 정말인가요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나요?” 라고 묻는 대답에 적은 말하기를 “그럼 사실이야 윌리엄.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서 눈을 뺄수가 없어”라고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이 사실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수갑을 채워 감옥에 집어넣으려하는 순경과 같은 태도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우리에게서 그의 눈을 뺄수 없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을 한적이 있습니까? 나의 어린 손자들이 집에 오면 나는 그들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나의 눈을 뺄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마다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버릇없이 구는 것도 이쁩니다.

나의 아내와 나는 그광경을 보고 계속 얼마나 귀엽나?라고 말합니다. 저것 보라!

어떨때는 갑자기 엉뚱한 짓을 할때는 우리집 아이들이라면 매를 칠것인데도 이제 손자들이 그런짓을 할때는 귀엽기만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아주 버릇없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주 버릇없이 구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할때에 훈계하십니다.

12:5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 을 잊 었 도 다 일 렸 으 되 내 아들 아! 주의 징계 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 심 하 지 말 라

12: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체찍질 하 심 이 니 라 하 였 으 니

12:7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 하시나 너 어 찌 아 비 가 징 계 하 지 않 는 아 들 이 있 으 리 요

12:8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주님의 체찍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그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악한 일을 해도 아무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아주 염려해야 합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속이 면서 살아도 아무일 없이 지나가고 당신이 잘못던 관계를 오랫동안 아무일없이 지나왔다면 당신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 합니다. 당신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죄를 지어도 벌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들키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위험한 위치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가 나쁜짓을 할때는 우리를 거저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잘못돈 행위를 찾아내어 체찍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사실은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직장에서 조금씩 일하는 시간을 속여 카드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 나도 나의 일한 시간을 조금 속여도 된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에 곧 일이 발각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도 들키지 않고 아무일 없이 지나가는데 “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때에 결코 아무일 없이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쁜짓을 할때는 반드시 들케게하십니다. 당신은 말하기를 “그것은 불공평 합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죄짓는 것을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일없이 지나갈지 모르나 당신은 아닙니다.

그래성 당신이 나쁜짓을 하다 들키면 바로 즐거워하며 “야 하나님께서 내가 죄짓는 것을 허용치 않으시는 구나”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채찍을 경히 여기지 않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실 것입니다. 만일 채찍을 맞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12:9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12:10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예하시느니라

우리 부모들은 자기들의 좋은데로 훈계를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많은 때에 자기들에게 편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집에 자녀들을 위한 규칙을 정하는 것은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훈계가 부모들의 편의상 실시되던지 아니면 그 규칙이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세워 집니다. 그 부모들이 항상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때에 그들의 자신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나를 훈계하여 매를 칠 때에 이것이 너를 아프게 하는 것 보다 나를 더욱 아프게 한다” 라는 말을 얼마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여간 나는 그러한 말을 내가 실제로 아버지가 될 때 까지는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때에야 그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실 때는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땅위의 부모들을 존경하거든 하물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12:11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합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우리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하것을 확신 합니다. 당신채찍을 맞을 때에 이것은 실제로 결코 즐겁운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매를 맞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가요?

나에게는 항상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없구나라는 감정빠지게 됩니다.

나는 징계를 받을 때에 어둡 컴컴한 방구석에 앉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는 항상 나를 그의 침실로 데리고 가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밖에서 다른 방에 모두 뭉여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나는 저희들이 서로 앉아 모든 말소리들을 다들을 수있으나 나는 어두운 방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곧 나를 불러 매질을 할것입니다.

물론 그때 내가 고통을 질러 아버지 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훈계를 제대로 받아들였구나 생각토록 하여 나를 쉽게 넘어갈것이라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방을 나가시고 문을 닫으면 나는 계속 그 어두운 방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침대에 누워서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들이 방에 들어 와서 내가 죽을 것을 보면 아버지가 나를 때린것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나?

나의 어린 동생이 내가 죽은 것을 알면 얼마나 슬피 울겠나 생각할때에 나는 더욱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심리학자가 있다면 내가 말한것으로 여러가지 재미있는 심리 분석을 할것이라 상상 합니다.

그곳에 한동안 누워있다가 이런생각들이 다지난후에는 다시금 정상시의 생활로 들어 가게 될것입니다. “그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어 보니 아주 재미를 보고 있는 듯 합니다.

나는 여시서 무엇을 하고 있나?

어디 가서 보자 무슨 재미있는 말들을 하고 있는지!

왜 그들이 저렇게 웃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금 나는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다시금 합세를 하는 것입니다.

보다시피 나는 벌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기 전에는 합세 할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책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시간에 나는 파이를 하나더 더달라고 말할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파이를 두번째 먹기를 원했으나 죄책감 때문에 감히 하나 더달라고 말할수 가 없었습니다.

나는 가족의 한부분이 아니 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책감에 사로 잡혀 있었고 아버지 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저녁먹은 후에 내가 너에게 할말이 있으니 우리는 나의 침실로 가는 거다”

이말을 듣고난 후에 음식이 목구멍에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요 그러나 한번 훈계를 받은 후에는 다시금 한 가족의 일원이 되며 죄책감은 없어지고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입니다.

채찍을 받는 순간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기뻐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훈계 받은 후의 결과와 열매가 무엇입니까?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 이얼마나 아름다운것입니까?

그것이 다지난후에는 죄책감이 모두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여 들켰습니다. 이제 벌을 받고 나니 더이상 죄책감에 사로 잡힐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금 가족의 일원이 되어 나가서 그들과 함께 모노폴리 게임도 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여

모든 가족행사 참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찍을 맞을 동안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12:11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훈계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시고 계십니다.

수공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아들이며 그는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나쁜짓을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훈계를 받은 후에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됩니다.

내속에 현재 하나님과가지고 있는 사함이 다시금 모두 회복되는 것입니다

12:12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주님의 채찍을 맞을 때에 우리는 피곤합니다. 우리가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찬양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중히 다루 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 하는데 문제를 줌 가지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거룩한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12:12...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 다시 경배하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12:12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2:13 너 희발을 위하여 곧은길을 만들어 주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

게

하

라

12:14 모든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
지 못하리라

참으로 흥미 진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것임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우리는 거룩함을 내려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룩함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함을 좇는 것이 어떤 의상을 입음으로 외관상으로 거룩을 장식하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결그룹으로 알려진 똥임도있고 오순절적인 성결, 순례자의 성결 그리고 또 다른
성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함에 대한 해석은 여인들이 화자를 하지 않는 다던가 금으로 단자를 하지
않는다던가 그리고 옷을 입는 입성에 대한것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과 생활이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러한 사이적인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루사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통채로삼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손가락을 입에 넣고 토하는 장면을 흔히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길을 가다가 하루사리가 입으로 날라들어와서 목에걸려 있을때 그들은 그것들을 토하여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살이를 피채먹었기 때문입니다. 피채먹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거리에서 그 하루살이를 토하려고 왁왁 애쓰는 장면을 목격할수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25”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잔과 대접의겉은 깨끗이하되그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하는도다 23:26 소경된 바리새인아너는먼저안을 깨끗이하라 그리하면겉도 깨끗하리라 23:27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무덤같으니겉으로는아름답게보이나그안에는죽은사람의뼈와모든더러운것이 가득하도다”

우리 각자가 참된 거룩함을 갈망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순결한 삶을 사는것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여야 될줄 믿습니다

12:15 너희는돌아보아하나님은혜에이르지못하는자가있는가 두려워하고또쓴뿌리가나서 피롭게하고많은사람이이로말미암아더러움을입을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자가 있는가 두려워 해야 합니다. 우리속의 음탕한 것을 외식으로 덮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된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자신의 행위를 의지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지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행위로는 결코 하나님께나아올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고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하는 우리마음속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행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신다”라고 우리스스로 감사는 생각을 해서는 않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하나님의 은혜를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15...또쓴뿌리가나서 피롭게하고많은사람이이로말미암아더러움을입을까 두려워 하고

쓴뿌리는 우리가 실제로 경계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쓴뿌리가 우리 마음에 있을때에 얼마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많은지 알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심령속에 쓴뿌리가 있을때는 우리 몸에서 나쁜화학물질을 생성하여 당신의 몸도 파괴시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파괴하는 것입니다.

12:16 음행하는자와혹한그릇식물을위하여장자의명분을판에서와같이망령된자가있을까두려워하라

에서는 광야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니 배가 고프았습니다. 심히 굶주렸습니다. 그의 우아한 형제 야곱이 맛있는 진미의 팻죽을 쑤고있었습니다.

에서는 말하기를 “야 그팻죽 좀나에게 달라” 야곱은 말하기를 “너의 장자명분과 바꾸자” “여보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럼 바꾸지.”

에서는 장자명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팻죽 한그릇에 팔고 말았습니다.

12:17 너희의아는바와같이저가그후에축복을기업으로받으려고눈물을흘리며구하되버린바가되어회개할기회를얻지못하였느니라

그가 거절 당했음은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하고 나는 바꾸지 않겠다라는태도는 위험한 것입니다.

12:17...눈물을흘리며구하되버린바가되어회개할기회를얻지못하였느니라

여기서 그가 회개 할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는 실제로 회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할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가 눈물로 추구한 것은 단지 축복 뿐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삭으로 부터 축복을 받은 후에 에서가 아버지를 위해서 맛있는 고기를 장만하여 들고 들어와서 말하기를 “아버지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바비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말하기를 “그러면 조금전에 들어왔던 자가 누구나? 내가 이미 그에게 모든 축복을 하였느니라”

에서는 말하기를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러면 야곱이었구면 내가 이미 그에게 모든 축복을 하였다”

에서는 말하기를 “오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 부터 눈물을 흘리면 축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말하기를 “내가 모든 축복을 너형제에게 다했으므로 할수가 없다” 그래서 그가 눈물로써 축복을 구하였으나 아직 회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회개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가원했던 것은 축복 자기에게 유익한것만 추구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없신 여기고 그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축복을 잃은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축복은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독교 국가에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방종교섬기는 나라에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에가서 사십시요 아니요 나는 기독교가 어디를 가든지 동반하는 축복인 자유를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회개할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비교해서 본다면 저자는 율법아래있는히브리사람들에게 기록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언약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새언약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구약의 율법을 애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12:18 너희의이른곳은만질만한불붙는산과혹운과혹암과폭풍과
12:19 나팔소리와말하는소리가아니라그소리를듣는자들은더말씀하지아
니 하 시 기 를 구 하 였 으 니
12:20 이는짐승이라도산에이르거든돌로침을당하리라하신명을저희가견
디 지 못 함 이 라
12:21 그보이는바가이렇듯이무섭기로모세도이르되내가심히두렵고떨린
다 하였으나

출애굽기 19 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사건에 대해서 읽어 봅시다.

19:14 모세가산에서내려백성에게이르러백성으로성결케하니그들이자기옷을빨
더라

19:15 모세가백성에게이르되`예비하여제삼일을기다리고여인을가까이말라'하
니라

19:16 제삼일아침에우뢰와번개와뽁뽁한구름이산위에있고나팔소리가심히크니
진중모든백성이다떨더라

19:17 모세가하나님을맞으려고백성을거느리고진에서나오매그들이산기슭에섰
더니

19:18 시내산에연기가자욱하니여호와께서불가운데서거기강림하심이라그연기
가용기점연기같이떠오르고온산이크게진동하며

19:19 나팔소리가점점커질때에모세가말한즉하나님이음성으로대답하시더라

19:20 여호와께서시내산곧그산꼭대기에강림하시고그리로모세를부르시니모세
가올라가매

19:21 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내려가서백성을신칙하라백성이돌파하고나

여호와께로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19:22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여기에 아주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저자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른 곳은 시나이산과 같이 무섭고 그산에 손도 댈수 없었고 감히 가까이 접근할수 없는 곳이야이다.

그산은 연기와 불로 덮여있었고 천둥과 폭풍이 불었으며 흑암으로 덮여있었고 나팔소리가 났었다. 그광경이 너무나 무서워서 모세 자신도 떨었다"

12:22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나이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12:23 하늘에 기록한 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맞은 전케된 의인의 영들과

12:24 새 언약의 증보이신 예수와 밋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들이 시나이산에 갈수 없었다. 만일 그산에 갔다면 돌로 침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다른 산 곧 시나이산에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 이것은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들이 있는 곳 교회의 처음난자, 하나님께 중생한자, 온전케된 의인의 영들이 예수께 와있다. 그래서

12:25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늘로 좃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나

히브리 1:1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1:2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책을 소개하는 일장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는 그의아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시는 멧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로 통해서 설정하신 더좋은 언약, 더좋은 길, 더 좋은 희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가하시는 말씀을 거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그리스도 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12:25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늘로 좇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예수그리스 도의 말씀을 거역하지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고 거절한 자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두세증인을 인하여 둘로 침을 받았거든 하늘로 좇아 경고하신자를 배반하는 우리는 말할것도 없습니다

12:26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무서운 천재지변이 우주에 내려질 것입니다. 성경의 몇군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가고 땅이 술취한자같이 천방지축 비틀거릴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별뿔들이 지구상에 쏘나기 같이 떨어질 것이며 땅만 진동할뿐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입니다

12:27 이또한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지구를 한번 진동시킬 것입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말씀하실때에 그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더 이땅을 진동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킬터인데 진동치 않는 것들은 영존하게 될 것이며 진도하는 것들은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닥아올 무서운 천재지변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하늘이 큰소리로 떠나가며 채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겠으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고 말했습니다.

이땅의 모든 채질이 진동될 모든 것은 진동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동되지 않는 것만이 남을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만 한생명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곧 지나갈 것인데 다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이외의 모든 것들은 모두 파괴될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물계가 어떤날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당신의 가치관을 물질에만 둔다면 이물질이 사라질때에 당신도 그것과 함께 사라지게 될것입니다.당신이 죽을때 모든 것을 다 잃게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관의 전부가 당신 주위의 물질 세계에 기초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의 가치관을 영적 세계에 둔다면 그것은 진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남게 될것입니다.

이세상의 채질이 불에 풀어 질때에 그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베드로는 질문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영적인 일에 두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고 성령을 좇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보다 훨씬 우위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은 이러한 멧세지를 싫어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멧세지를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이세상의 물질의 신들과 소유재산에 사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인생의 가치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물질적인 것은 모두 파괴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헐박이 될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멧세지를 듣기를원치 않으나 이것은 사실 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번더 천지를 진동시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말씀은 진동되는 모든 것은 없어질 것이고 진동되지 않는 것들은 남을 것입니다.

12:28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은혜를받자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12:29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주 흥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앗시리아의 대군이 남방나라 유다를 공격하려고 내려와서 포위하였을때 하룻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185,000 명을 죽였습니다.

하룻밤에 하나의 천사가 대군을 전멸 시켰습니다.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진을 쳐다보니 185,000 죽은군인들의 시체들만 늘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기를 시온에 있는 죄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도성에 사는 죄인들이 실제로 겁을 집어 먹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불이 어떠한 일을 할수 있나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33:14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이란 그자체가 흥미 있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은 어디에나 있다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산화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긴말이지만 자연은 불에서서히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조각의 쇠를 밖에다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쇠에 녹이 쏠기 시작 합니다.

이녹은 산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이쇠가 산화 현상에 의해서 그기질이 서서히 불에타고 있으며 그쇠가 점점 쇠퇴 되어 결국은 썩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물질이 서서히 타서 파괴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의 마지막 박은 못되 산화현상에 의해서 서서히 불타서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보수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페인트를 자주 칠해서 이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것으로 계속 대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화현상때문에 물질이 서서히 불타서 모든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불이란 흥미있는 물질인데 이불은 소멸할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불은 어떤물질을 영구적으로 변형 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황동(구리 와 아연의 합금)을 불에대 넣어 열을 가하면 이것은 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에 의하여 더 여문 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란 흥미있는 것입니다. 이불은 다른것들은 태우지만 어떤것들은 영구적인 것으로 변형시킵니다. 이것은 무슨 물질을 불에 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누가 하나님의 불을 피할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대답은 아무도 하나님의 불을 피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당신에게 그불이 무엇을 할것인가? 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떤사람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을 영원한것으로 변형시키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떤날 당신을 완전히 소멸할 것입니다.

히브리 13 장

히브리 13 장을 마치면서

13:1 형 제 사 랑 하 기 를 계 속 하 고

13:2 손 님 대 접 하 기 를 잊 지 말 라 이 로 써 부 지 중 에 천 사 들 을 대 접 한 이 들 이 있 었 느 니 라

흥미있는 말입니다. 나는 그말씀을 믿습니다. 나의 기억으로는 내가 천사를 대접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 이분이 아마 천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해본적은 전혀없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한적도 없고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도 없습니다.

천사를 맞았다는 소문들을 많이 듣는데 나는 그말들이 믿어지지않고 의아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없다고 전혀 부인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천사가 사람으로 가장하여 나타날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13:3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러한 말씀이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생각하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옥에 여러번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때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갇혀있을때에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 했고 묶인 자들을 기억해줄것을 격려 했던 것입니다

13:3...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는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가르침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라고 했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 몸이 고통을 당한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사람이 만일 역경으로 고통을 당한다면 그를 기억하고 기도해야 함은 우리모두가 한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러시아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더많은 시간을 소모하지 못하는데 대해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도 당신들과 같이 선전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신론 주의자라라고 말합니다. 러시아에는 좋은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저들은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파괴시키고저하는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선한 사람들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그렇지가 않습니다.

러시아에는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핍박을 당하고 있는 아름다운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베리아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생각을 드물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한 한 몸인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나의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자주 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중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그들이 번역한 나의 설교를 듣고 갈보리 채플을 위해서 매일 기도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관리들의 눈을 피해 몰래 전달된 편지를 읽을때에 나의마음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가책을 받습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주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었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간혀있는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에 간혀 있는 자들을 기억해야합니다. 시베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간혀있는 자들을 기억해야합니다. 철의 장막 배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을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몸이므로 한나가 고통당하면 우리 모두가 고통 당하는 것입니다.

13:4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혼인의 결속 안에서만 가깝고 긴밀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한몸이 되어 살면서 아름다운 경험을 하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3:4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13:5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 전서 6:6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빌립보 4: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도 “있는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했습니다.

13:5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가진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도 모시고 있습니다. 있는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만일 당신이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가 우리의 보급창고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면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13:6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오나는 이말씀을 아주 좋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바울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대적 하리요”(롬 8:31).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자시니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것을 두려워 아니하노라

유다왕 아사가 왕위에 올랐을때에 에티오피아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 했습니다. 수적으로 적군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태에 임하였을때에 아사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는 주박에도와 줄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 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 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 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역대하 14:11).

나는 이기도가 좋습니다. 이기도 내용에는 많은 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는 많은 군대가 있던지 아니면 없던지 상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도 없사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호와와 이름이 더럽히게 되지않게 하옵소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편이 되셔서 우리의 계획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편이오니 사람이 당신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도우시는 자시요 나의 힘이시니이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사실을 꼭 기억 하십시오 바랍니다.

13:7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 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 하 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 받으라

경건한 생활의 마지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을 고려 해보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했던 사람들을 기억 하십시오 그들의 믿음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구절은 흥미있는 말씀입니다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 하시니라

13:9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써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일을 강조하는 교리인 우리의 행위나 사람의 의로운 행실에서가 아니라 은혜위에서 설립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것들 그러한 것에 기초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이상한 교리에 빠져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휴버터 암스트롱과 같이 무슨 고기를 먹어야 하고 어떤고기를 먹으면
아니된다라는 교리에 빠지면 안됩니다.

당신의 의가 율법을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하는데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령이 은혜위에 설립되며 외면적인 의식이나 고기 같은 것에 메여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일에 멍여 있는자들에게는 결코 유익이 없습니다.

13:10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
서 먹 을 권 이 없 나 니

13:11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들이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사용할때에 그 짐승의 사체를 속죄제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사체를 성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태웠던
것입니다

13: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밖에서 고난을 받느니
라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안에서 케톨릭이 그리스도께서 십가자에 달리신 곳이라고
기념하는 교회를 지은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시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문 밖으로 이끌고 갔읍니다.

그래서 헤롯의 대문 건너편 약 한불럭 떨어진 무덤의 정원 지역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던 자리라고 생각함이 더욱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메섹성문 밖에 위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밖에서 고난을
받느니라

13:13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말씀의 의미는 유대교의 영문밖이며 이스라엘의 율법의 밖이요 종교제도의 밖에 있음으로 그것들의 밖으로 나아가자

13:13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3:14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도성이없고오직장차올것을찾나니*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지으신 도성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이땅에는 영구적인 집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땅에서 단지 지나가는 나그네요 행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도성을 찾고 있습니다.

13:15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드리자 이는그이름을증거하는입술의열매니라*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드이 가져오는 희생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제사가 실증이 났다”

“히 **10:5**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입술의 열매인 우리의 찬미의 제사입니다.

어린 염소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죽여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시다.

하나님께 찬미를 보내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13:16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은 필요한 자들을 도와 주는 것입니다

이같은 제사는

우리가 드릴수 있는 다른 제사방법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13:17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 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13:16-17)

요한 기록하기를 “나는 나의 자녀들이 진리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기쁨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말씀은 모든 목사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이야기 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진리에서 행한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13:18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13:19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다른 말로 한다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가기를 가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함으로 너희들이 기도함으로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로 갈수 있을 것이다”

13:20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주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

13:21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축도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주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 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노라”(요한 10:11)

그는 양의 큰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완전히 성숙하게 하심을 축복 합니다. 완전히란 말이 헬라말에서 완전히 성숙이란 뜻입니다.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완전히 성숙하기를 축원 합니다

13:21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3:22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13:23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마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풀려 나왔다고 했습니다

13:23 우리 형제 디모테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 가속히 오면 내가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13:24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밋 모든 성도에 게문안 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편지는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기록한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의 옥중 서신 중의 하나인 것으로 생각 됩니다.

13:25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는 놀라운 책입니다. 너무나 많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들어가면 그는 우리를

야고보 1:22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저녁 이 두장에서 우리는 많은 권면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가서 이책을 다시 읽어 보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시 복습을 하고 권면을 받고 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몸이기 때문입니다.

궁핍한 자들을 잊지 말고 도와 주워야 합니다.

아주 훌륭한 권면 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만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요 우리는 진실로 시베리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독교를 행위에 옮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 믿음을 실편에 옮길때에 떠 하나님의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하며 순종할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의 사랑안에 보존하시고 그의 화평으로 채워주셔서 이번주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그와 동행할때에 그의 선하심의 풍성함이 당신의 심령과 생활속에 넘쳐 흘러나기를 기원 합니다.

우리의 뒤통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육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를때에 주님 안에서주님과 영적인 일에 더욱 깊이 들어가기를 기원 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